

예술의 초대

Since 1992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Vol. **402**
JUNE 2025 **6**

© 황승택

Cover Story

국립현대무용단 어린이 무용 압!압!압!

COLUMN 로컬리티 기반 국립무용원 건립을 요망한다

여기, 예술 빈집을 기억해야 해

당신은 지금 바비레파에 살고 있군요

R석

30,000원

S석

20,000원

※ 36개월 이상 관람

출연

강애심

장은정

최지연

김혜숙

조민수

주최 주관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제작 협력

춤추는 여자들

Global Women Performing Arts Festival
세계여성공연예술축제 추진위원회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2025. 6. 27.(금) 20:00

2025. 6. 28.(토) 15:00

문의

부산시민회관 051-607-6000 (ARS 1번)

오르간 신동일

예술감독·지휘 오충근

Program

길망

오르간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교향곡

베르디

오페라 리골레토 外



제14회 부산사람들 이태석 기념음악회

바리톤 안세범

소프라노 황신영

2025. 7. 2 (수) 7:30PM

 부산콘서트홀

주최·문의 (사) 부산사람들
이태석기념사업회 <http://johnlee.or.kr> 051.637.0125

특별후원 **BNK 부산은행** 후원 **부산일보사** **국제신문** **KBS** **부산방송총국** **부산MBC** 부산광역시 **KNN**

무료관람응모 **NAVER** [부산사람이태석기념사업회](http://www.johnlee.or.kr)  <http://www.johnlee.or.kr> 추첨 후 개별통지

나눔으로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 본 음악회는 예술인 재능기부 공연입니다.

예술감독 오충근(지휘)

연주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BSO)

협연 신동일(오르간) · 황신영(소프라노) · 안세범(바리톤)

smile!
금정

2025.
6.26.목
-
6.28.토

조윤성

전창민

신동진

이동규

김우연

손일훈

금정 클래식 위크

GEUM JEONG CLASSIC WEEK

2nd. 이음

임선혜

주형기

이재형

김진세

이명운

최지희

이호찬

김혜빈

다니엘 린데만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은빛샘홀

임정은

안수빈

조민현

시명운

황여진

부산 원먼스 페스티벌²⁰²⁵

BUSAN ONEMONTH FESTIVAL

釜山一个月的音乐节 | 釜山ワンマンフェスティバル



◆ 우리동네 문화살롱페스타 5th ◆

2025. 6.1^{Sun.} - 30^{Mon.}

부산 전역에서 6월 한달간 매일 릴레이로 열리는 30개의 음악공연!

제 3회 프롬나드 콘서트 3rd PROMENADE CONCERT

- 2025.05.31(토) 13:00
- 부산근현대역사관 본관 야외마당

제 3회 부산 라이징팀콘테스트 3rd RISING TEAM CONTEST

- 공모기간 2025.08.04 - 09.29
- 본선 10월 18일 토요일 오후6시

주최 |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주관 | 부산소공연장연합회
Busan Small Art Hall Association

후원 | BNK 부산은행

bt 부산관광공사
BUSAN TOURISM ORGANIZATION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조직위원회

2025부산원먼스페스티벌은 [부산광역시 지원사업] 입니다.





MOSCOW STATE BALLET
LA CLASSIQUE

SWAN LAKE



Moscow State Ballet 'La Classique' World Tour In KOREA

모스크바 라 클라시크 발레단 월드투어

백조의 호수

2025.7.11~13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주최 WSM 부산문화회관 부산문화회관 시간 금 오후 2시 / 토,일 오후 2시, 6시 30분 예매 인터파크, 티켓링크, 네이버예약 문의 1566-5490

★★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할인 1인 2매 / 1566-5490 전화예매시 ★★

해운의 풍류

(海雲) (風流)

국악 페스티벌

퓨전국악 **날라리와 쟁이**



6.17.(화) 19: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퓨전국악밴드 **밴드날다**



6.19.(목) 19: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퓨전프로젝트 **가이아**



6.21.(토) 17: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해운대문화회관 에메치



주최 | 해운대문화회관 HAEUNDAE CULTURAL CENTER
주관 | 공연단체
티켓가격 | R석 20,000원, S석(2층) 10,000원
관람제한 | 8세 이상
티켓할인 | 초·중·고, 예술인 패스권,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30%), 누림회원(40%) ※ 누림회원, 학생증, 장애인카드 확인 후 매표소에서 티켓 발부
인터넷예매 | 해운대문화회관 홈페이지 전화예매 | 해운대문화회관 051) 749-7651

클래식 너무 어려워요ㅠㅠ

알고보면 재밌을걸요?

지휘&해설 서희태
연주 KNN방송교향악단

지휘자 서희태의

톡

클래식

비발디 <사계>



협연
바이올리니스트 김혜정

2025. 6. 20(금) 19:00 부산은행 본점 2층 오션홀

 Play on Busan [부산에서 즐긴다]

'Play on Busan'은 지역 시민들이 세대와 계층을 초월한 문화적 다양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문화예술 프로그램입니다. 클래식, 국악, 가요등의 음악 공연부터 연극, 코미디, 영화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매월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이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JUNE 2025

VOL. **402**

발행인 차재근

편집인 남영희

고객지원팀장 남양욱

편집위원 김성필, 박소윤, 박진홍, 박창희, 이정호, 최찬열

편집장 정복업

발행처 (재)부산문화회관

4853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76번길 1

Tel. 051 607 6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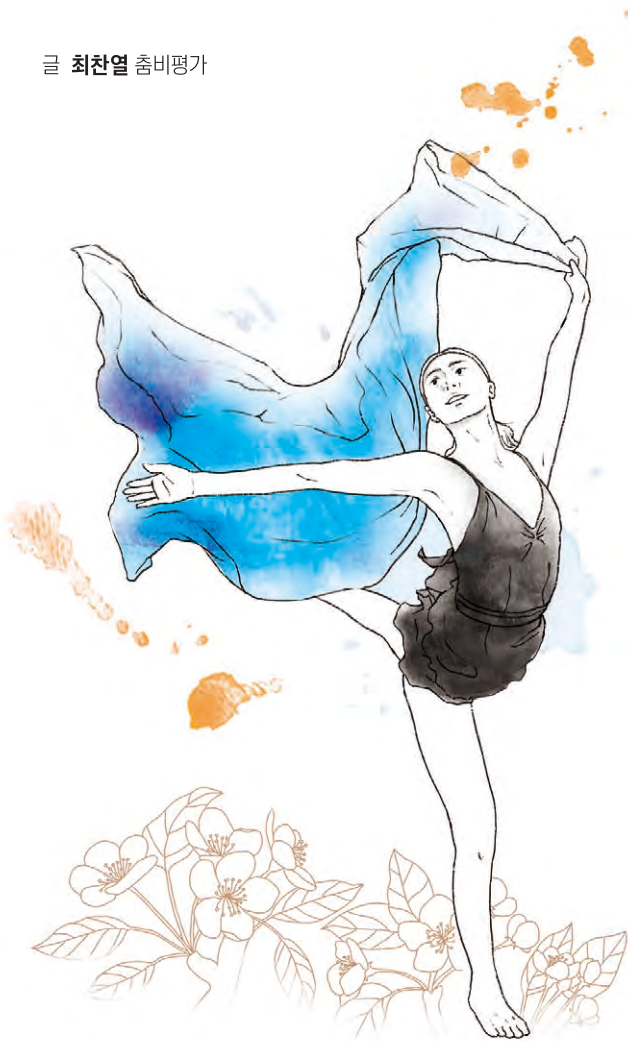
발행일 2025년 5월 25일

디자인·제작 효민디앤피

- 10 Column
로컬리티 기반 국립무용원 건립을 요망한다
- 12 여기, 예술
빈집을 기억해야 해
- 14 Cultural Issue
클래식 음악 '듣기'에서 '듣고 보는' 필름 콘서트로의 진화
- 16 무대 뒤 사람들
무대디자이너 황지선
- 18 현대미술산책
바우하우스, 현대적 삶이 되다
- 24 Cover Story 1
국립현대무용단 어린이 무용 압! 압! 압!
- 28 Cover Story 2
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 부산콘서트홀 개관
- 33 Preview
- 42 문화가화제
제21회 부산국제무용제
2025 부산 원먼스 페스티벌
금정 클래식 워크 2nd. 이음
- 50 Review
- 52 Program Guide
- 66 객석에서
- 67 New Book
- 68 BSCC News
- 72 2025 공연프로그램 안내

로컬리티 기반 국립무용원 건립을 요망한다

글 최찬열 춤비평가



전체 인구의 과반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몰려 살고 있다. 경제력과 자본 역시 이곳에 초집중된 상태이다. 철용성 같은 수도권 중심주의가 강고하게 작동 중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중심의 비대화 현상은 날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고, 이와 대조적으로 그 외 주변부 지역은 침체 상태가 지속하고 있다. 수도권 중심 일극체제의 해소와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이 요긴한 시점이라는

말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식이면 이의 해결은 난망하리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 예로 큰 선거가 있을 때마다 지역 균형발전 정책이 되풀이해서 제시되지만, 새로운 정권이 창출된 뒤에는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이를 되돌려버리고, 다시 중심이 더 강화되는 움직임을 이어왔다. 그러기에 지역에선 수도권이 변함없이 비대해지고 있는 상황에 탄식이 자자하고, 균형발전 정책의 실효성에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비수도권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대적인 국가 구조의 재편 정책이 하루빨리 시행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한국의 문화예술 정책 또한 오랜 시간 변함없이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견지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인구와 권력과 돈이 집중된 곳에 여지없이 문화와 예술이 과하게 몰려 있는 것이다. 무용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가령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아르코)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각종 무용 지원 사업은 그 공모 구조상 서울 및 수도권 예술단체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고, 정책의 심의 구조도 수도권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종 기반 시설과 유통 플랫폼, 네트워크 등과 국공립예술단체 및 대규모 국제 공연 예술제 등도 이곳에 집중되어 있다. 춤 정책과 자원 등 모든 면에서 심하게 편중된 상태인 것이다. 그야말로 지역 무용계는 지속적으로 기회를 박탈당하는 구조이다. 그리고 이러한 불균등한 분배는 지역 무용인에게 구조적인 기회 불균형을 야기하고, 서울과 수도권 이외 지역의 무용 생태계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토대와 기반을 붕괴시키고 있다. 곧 지역 무용계의 자력갱생 기반을 위축시키고, 창작의 다양성 및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수도권 중심 무용 정책은 지역 무용의 다채로움과 다양성을 저해하며, 지역 무용의 고유성과 자생력을 억제하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그 결과 지역 고유의 무용 형식과 어법이 소멸하고, 특별히 있거나 본래부터 지닌 몸짓 감각이 소외되고 배제된다. 또한 지역은 춤을 생산하는 곳이 아니라 소비만 하는 곳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란 여론도 비등하다.

지역 무용에 대한 위기 담론은 이렇게 팽배해 있다. 하지만 위기 현상을 타파하기 위한 몇 가지 유의미한 조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최근 부산 영화의전당과 서울 문화재단이 업무협약을 맺고, 서울과 부산을 잇는 문화예술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부산 공연 예술계에 힘을 보태고자 하였다. 또한 아르코에서는 2025년 ‘지역예술도약지원사업’ 대상자를 공모했다. 이 사업은 지역 기초예술의 성장과 활성화를 도모하고, 광역 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은 예술 활동과 작품을 후속 지원함으로써 지역 예술의 지속적인 발전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문체부는 얼마 전 향후 10년의 문화정책 중장기 비전을 담은 ‘문화한국2035’에서 ‘지역 문화 균형발전’을 핵심과제로 내세우며, 그 실천 방법의 하나로 국립예술단체의 지역 이전을 꼽았다.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해 일부 국립예술단체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불균등을 해소하기 위한 각계의 여러 조치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평가는 지엽적이고 부분적이며 졸속이라는 비판이 우세하다. 이는 무엇보다도 지역 무용의 침체와 소멸 위기 현상을 서울 중심으로, 피상적으로 접근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고, 지역 무용을 이해하고 지역 무용계가 겪는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한다.

그래서 앞으로도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욱 강화될 것이란 근심과 걱정이 끊어질 않는다. 이런 와중에 국립현대무용단의 대구 출신 예술감독 김성용이 시행하고 있는 지역 상생 프로젝트 ‘코레오 커넥션’ 사업이 눈에 띈다. 각 지역에서 활발하게 창작 활동을 펼치며 독창적인 색깔을 가진 안무가들을 발굴해 중앙과 전국에 소개하는 프로젝트이다. 그는 “지역 예술이 제대로 존립하지 못하면 전체 예술이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하면서, 예술계와 행정시스템이 함께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수도권 중심의 한 방향적인 지원이 아닌, 지역 예술가의 수도권 진출과 주변부 예술가의 지역 창작 활동이 실질적으로 순환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그의 말에서는 무엇보다 지역의 눈으로 문제점을 직시하고 해결을 모색해 보자는 의도가 읽혀, 예상롭게 들리지는 않는다. 구체적인 성과가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장기적인 플랜을 꼼꼼하게 세워, 확대할 필요가 있는 기획이다. 말하자면 예술 행위는 특정한 장소성을 지닌

삶의 감각에서 비롯되어야 하며, 무용 또한 그러한 장소에서 묻어나는 몸의 감각과 깊게 연관되기에, 무용 정책은 자원을 단순하게 나누고, 분배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의 역사성이 새겨진 몸짓 감각을 존중하고 정치화하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요컨대 수도권 중심의 무용 정책은 중앙과 지역의 공고한 위계를 바탕으로 지역의 ‘몸’과 ‘장소’를 타자화하고 주변화하는 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춤은 본질적으로 장소성과 삶의 감각이 축적된 몸을 매개로 하는 예술이며, 따라서 로컬리티에 기반한 무용 정책이 지역 예술의 다양성과 독창성을 실현할 수 있다. 지역의 정체성과 결합한 고유한 몸짓 언어의 탐색을 구조적으로 제도화함으로써 지역춤이 동시대성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하고, 소외되고 배제된 몸짓 감각들에 대한 정치적 주목을 통해 지역춤의 존재론적 가치를 재정립하는 정책이 요망된다는 의미이다. 춤은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라, 그 지역의 일상과 삶을 몸이 기억하고 드러내는 행위이기에, 지역 무용 정책은 지금-여기의 일상과 삶의 춤을 위한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로컬리티와 로컬의 감각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책 방향은 단순한 예산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몸과 그것이 속한 장소와 공동체, 그리고 시공간의 감각을 다시 불러내는 작업이어야 한다. 로컬리티는 단순한 지리적 공간을 의미하지 않고, 그 지역의 역사와 사람, 신체적 실천, 문화적 기억 등이 얹힌 복합적 장소성의 총체이다. 이는 지역 사람들의 삶과 노동, 역사와 기억, 정서와 감각 등이 결합한 몸의 시공간이며, 춤이라는 몸의 예술은 바로 이러한 로컬리티의 역동성 속에서 새롭게 생성 변화한다. 따라서 무용 정책은 몸과 시공간이 교차하는 실존적 감각의 층위에서 다시 설계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말인데, 무용계의 숙원 사업인 국립무용원 건립도 로컬리티에 기반하길 요망한다. 곧 경상도와 전라도, 충청도와 강원도 등에 순차적으로 로컬리티에 기반한 지역 거점 국립무용원을 먼저 건립하고, 마지막에 가서야 서울에 세우는 것이 어떨까. 우선 서울에 달랑 하나만 건립하고 마는 것은 지역 무용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을 한 번 더 공고히 다지는 처사이기에 하는 말이다.

빈집을 기억해야 해

글 박소윤 (재)부산문화재단 정책기획센터장

피란수도와 산업화 시기 급격히 팽창했던 부산 인구는 산업구조의 재편과 청년인구의 수도권 이주로 인해 감소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구 감소는 빈집 증가로 이어졌다. 통계청 2023년 「주택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부산의 빈집 수는 전국 153만 4,919호 중 11만 4,245호로 7개 특별·광역시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개발의 경우, 새로운 주거단지가 형성되지만, 노후화된 채 버려진 빈집은 관광객을 위한 숙소나 임대주택, 마을 농장, 썸지 공원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빈집 자체가 갖는 정서적인 분위기는 예술가들의 창작공간이나 문화공간으로 종종 이용된다. 부산문화재단은 공공과 민간으로부터 임대 기부받은 빈집을 창작공간으로 조성하여 예술가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현재 사하구, 부산진구, 서구, 동구의 빈집 13호가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문화공간화 속도보다 빈집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르고, 또 빈집 전부를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빈집 철거 후 나대지가 되면, 재산세가 증가하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살지 않으면서도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빈집으로 인한 안전 및 위생 등 여러 위험 요인이 높아지자, 최근 동구청은 소유주가 불분명한 상태로 10년 넘게 방치된 좌천동 폐가를 직권으로 철거하기도 했다. (부산시 동구 보도자료, 2025.05.13.)

그럼에도,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사회의

인문적 사유와 성찰은 필요하다. 에드워드 랠프에 따르면 장소는 의도적으로 정의된 사물 또는 사물이나 사건들의 집합에 대한 맥락이나 배경이며, 집은 개인으로서 그리고 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우리 정체성의 토대, 즉 존재의 거주 장소이기 때문이다. 또한 집은 한 개인의 거주 공간을 넘어, 당대의 주거방식과 가족 형태와 같은 미시사를 알려주는 지표이자 그 시대의 생각과 감정을 담고 있는 곳이다.



다원예술 <감만 기억>(홍석진, 허경미) © 박병민

미디어 작가 홍석진과 안무가 허경미는 재개발로 인해 사라지고 있는 감만동에 수년간 천착하며 ‘집’과 ‘마을’의 의미를 집요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감만1동 일대 부지 41만 8,719㎡는 뉴스테이 재개발 사업지로 선정 되어 이곳에 지하 4층, 지상 45층 규모의 아파트 66개 동, 9,092가구가 건립될 예정이다. 이 예술가들은 재개발로 인해 기존 마을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은 그 지역의 역사 문화적 문맥을 끊는 일이라고 보고, 감만동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예술적 아카이빙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다원예술 <감만 기억>(2018), <콜링 감만>(2019), <부식 풍경 1>(2022), <워킹 감만>(2023), <어반 셀>(2023), <부식 풍경 2>(2024)가 그것이다.

빈집은 단지 곧 철거될 건축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주거지이자 삶의 터전이다. 폐허가 된 빈집은 근대 부산의 증거이기에 작가들의 예술적 퍼포먼스는 미시적 역사에 대한 기억 투쟁으로 작동된다. <감만 기억> part 1에서 흰옷을 입고 골목길을 내달리는 춤꾼들은 기억의 정령들이다. 그들은 동네의 기억을 소환하고, 맺힌 이야기들을 춤으로 풀어내며, 기억은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감만 기억> part 2의 마지막 장면에서는 0 정령들이 집이 철거된 자리에 흙을 뿌려 집 구조를 그려내고는 그 집안에서 춤춘다. 춤이 잦아지면 흰옷을 입은 주민들이 화초를 한 포기씩 들고 등장하여 빈 바다에 흠어져 있는 흙을 이어 붙여 꽃을 심는다. 빈집을 추억하며 그 땅이 다시 생명의 장소로 태어나기를 기원하는 의식 같다.

시각 작가 양자주도 빈집의 기억을 작품으로 남기는 이다. 작가는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 중인 오래된 마을에서 채집한 벽돌, 집의 목재들을 작품의 오브제로 사용했으며, 베이징의 오래된 골목과 벽의 흔적들을 재현하는 작업을 해 왔다. 2017년 부산문화재단 감만동 리서치 프로젝트를 위해 걸었던 골목길에서 빈집에 덧대어진 푸르스름하게 변색된 합판 조각, 빨랫줄에서 웅기종기 이마를 맞대고 있는 빛바랜 빨래집게들을 보고는, 너무 예쁘다며 한숨 같은 감탄을 했던 기억이 난다. 작가는 빈집의 낡고 부스러진 부산물들을 옮겨와 전시했다. 이는 버려진 것들을 미학적으로 직조한 작품이라기보다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것들을 찾아내 보여주는 작업 같았다. 빈집에 버려진 것들을 오브제로 남김으로써, 그 장소와 장소의 기억을 기리기 위한.

이시다 히로야스 감독의 애니메이션 <표류 단지>(2022)도 집은 우리에게 어떤 곳인가를 생각하게 한다. 나츠메와 코츠케의 집이었던

카모노미야 아파트는 지어진 지 60년 되는 건물로 철거를 앞두고 있다. 나츠메는 친구 코츠케와 그의 할아버지와 보냈던 추억들을 잃지 않기 위해, 옛집에 가서 과제를 하고 낮잠도 잔다. 그 곁을 아파트의 정령인 낫포가 지키고 있다. 초등학교 6학년 여름방학 자유 연구 과제인 ‘유령 포획 작전’을 위해 카모노미야 아파트를 찾아온 코츠케, 타이시, 유즈루가 빈 아파트에서 나츠메를 발견하게 되고, 지나가던 레이나와 주리까지 이곳에 모이게 된다. 친구들의 소동 끝에 나츠메가 추락하게 되자 갑자기 주위는 바다로 차오르고, 이들은 이 아파트를 탄 채 표류하게 된다.

바다 위를 떠다니는 동안 그들은 3학년이었을 때 문을 닫은 나라하라 수영장, 6년 전 사라진 백화점, 옛 야시마 놀이공원과 마주치게 된다. 즉 바다는 그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집단 무의식의 세계이며 그곳에서 만난 건물들은 기억의 장소들이다. 친구들은 이 여정을 통해 다투고 화해하고, 함께 위기를 극복하면서 더욱 성숙해 간다. 그런 그들 곁에는 낫포가 있었다. 추억 어린 장소가 사람들을 지켜주고 또 자라게 하는 것이다. 마지막에 도착한 폐건물 무덤에 낫포가 내리면서, 친구들은 현실 세계로 돌아온다. 다시 보면 이 작품은 장소를 추억하는 이야기이자, 그 장소와 작별하는 과정에 대한 서사이다. 추억의 장소가 사라져도 아쉬움을 디디고 삶은 다시 이어진다. 그것은 옛 장소와 그곳에서의 추억이 힘이 되어주기 때문이다. 친구들은 낫포를 향해 손을 흔들며 외친다. “안녕, 낫포!”

시간이 흐르는 동안 집들은 헐리고 다시 지어진다. 하지만, 그 집들은 우리를 키운 곳이고,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증언한다. 예술가들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고, 우리 사회는 경건히 그 집들의 기억을 역사라고 명명한다.

클래식 음악 ‘듣기’에서 ‘듣고 보는’ 필름 콘서트로의 진화

글 송현민 음악평론가

영화음악을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콘서트가 눈에 띄게 많아졌다. <해리 포터> <반지의 제왕> <스타워즈> <타이타닉> <라라랜드> 등의 영화는 물론 스튜디오 지브리가 제작한 애니메이션에 녹아든 히사이시 조(1950~)의 음악 세계도 급부상 중이다. 한 세대 전만 해도 클래식 음악은 영화와 일정한 거리를 두는 ‘순수예술’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필름 콘서트’라는 장르로 자리 잡았고, 주요 공연장들은 해마다 영화음악 기획을 고정 프로그램으로 편성 중이다.

필름 콘서트의 인기 비결

그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다. 첫째, 클래식 관객층 확대 전략으로서 영화음악은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다. 클래식에 익숙하지 않은 관객이라도, 좋아하는 영화의 테마 음악이라면 감상 장벽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가족 단위나 2030 세대에게 영화음악은 또다른 클래식 입문서로 작용하며, 관객 저변을 넓히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둘째, 공연기획 측면에서 안정성도 빼놓을 수 없다. 유명 영화의 IP(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권)를 바탕으로 하는 공연은 마케팅 효과가 크고, 티켓 판매도 안정적이다. 영상과 음악을 동시에 체험하는 ‘필름 콘서트’ 형식은 몰입도가 높고, 공연 자체가 하나의 종합예술로 소비된다. 음악을 따라가며 장면을 감상하거나, 장면을 회상하며 음악에 몰입하는 관객의 감정선은 기존의 클래식 공연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감각이다.

세 번째는 콘텐츠의 다양화와 장르 간 융합이다. 오늘날 클래식 음악계는 대중문화와의 접점을 넓히며 새 프로그램



해리 포터와 불사조 기사단 인 콘서트(5.11~12, 세종문화회관)

램을 개발하는 흐름 속에 있다. 영화음악은 클래식, 재즈, 일렉트로닉, 민속음악 등 다양한 음악적 어휘를 품고 있어 오케스트라 해석에 따라 그 깊이와 감동의 스펙트럼이 확장된다. 결과적으로 영화음악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클래식 음악의 새로움을 위한 자원이 된다.

네 번째로는 저명 작곡가들의 활약이 있다. 엔니오 모리코네(1928~2020), 존 윌리엄스(1932~), 하워드 쇼어(1946~), 한스 짐머(1957~), 알렉상드르 데스플라(1961~) 같은 작곡가들은 이미 클래식 음악가 못지않은 세계적 명성과 음악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들의 영화음악은 오케스트라가 탐구할 가치가 충분한 ‘현대 레퍼토리’로서 연주되고, 수많은 연주자가 이 작품을 통해 새로운 청중과 만난다.

마지막으로는 공연장 환경의 변화도 크다. 새롭게 지어진 공연장들은 음향뿐 아니라 대형 스크린을 상영할 수 있는 설비까지 갖추고 있어 멀티미디어 기반의 공연을 전제로 기획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간의 변화는 클래식과 대중문화, 순수예술과 엔터테인먼트의 경계를 허무는 흐름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이제 영화음악은 클래식 공연장에

당당히 입장하며, 청중의 감각을 환기하는 또 하나의 ‘클래식’으로 기능하고 있다.

영화음악계의 모차르트 코른골트

그렇다면 영화음악은 과연 클래식 음악의 외곽선에 있는 장르일까? 아니다. 오히려 그 중심에는 클래식 작곡가가 있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에리히 볼프강 코른골트(1897~1957)다. 그는 말러와 슈트라우스가 활약하던 빈에서 신동으로 주목받았고, 11세에 작곡한 발레곡 <눈사람>으로 음악계에 충격을 안겼다. 이후 20대에 작곡한 오페라 <죽음의 도시>는 1920년 초연 이후 유럽 전역에서 큰 성공을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나치 세력의 부상과 함께 유대계 작곡가였던 그는 미국으로 망명했고, 그곳에서 영화음악 작곡가로 제2의 삶을 시작한다.

할리우드로 옮긴 코른골트는 <로빈 후드의 모험>(1938)으로 아카데미 음악상을 받으며 할리우드 영화음악의 ‘클래식한 수준’을 한 단계 상승시켰다. 그의 음악들은 단순한 삽입곡을 넘어, 등장인물의 심리와 플롯의 구성까지 관통하는 하나의 서사로 작동했다. 영화음악이 오페라와 교향곡의 후계자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최근 ‘필름 콘서트’의 부상과 함께 코른골트의 음악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2년 서울시립교향악단은 그의 바이올린 협주곡과 교향곡을 연주하며 관객에게 “영화음악이라는 옷을 입은 낭만주의 교향악”의 진수를 선사했다. 한경arte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코른골트 영화음악>이라는 이름의 테마 콘서트를 기획해 그의 영화 테마곡을 집중 조명했으며, 국립오페라단은 2024년 오페라 <죽음의 도시>를 국내 초연하며 그의 정체성을 영화음악에서 다시 오페라로 끌어올렸다. 특히 <죽음의 도시>를 접한 관객들은 마치 오페라가 스크린 위로 걸어 나오는 듯한 감정의 밀도에 놀랐으며, 코른골트 음악의 드라마성과 정교함을 높이 샀다. 국내 음악계 역시 코른골트를 통해 영화와 오페라, 교향악이 하나의 감성 언어로 통합될 수 있음을 실감하게 되었다. 그의 음악은 장르를 넘나드는 서사의 가능성을 보여주며, 국내 작곡가와 연주자들에게도 스토리텔링을 품은 음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주목할 것은 최근 발매된 바이올리니스트 김봄소리의 음반이다. 도이치 그라모폰에서 출시된 음반에서 김봄소리는 코른골트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중심으로 <죽음의 도시> 중 ‘마르리에타의 노래’ 등을 담았다. 지휘는 야쿠프 흐루샤, 밤베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함께 했다.

김봄소리는 코른골트가 영화음악을 통해 어떤 서정성과 화려함을 담아냈는지를 정제된 연주로 보여준다. 그녀의 연주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 코른골트의 바이올린 협주곡은 단순한 기교적 협주곡이 아니라, 영화적 상상력을 지닌 서사적 음악으로 다가온다. 전통적인 낭만주의 문법과 함께, 영화적 감정을 진폭 넓게 담아낸 이 작품은 영화음악이 가진 내러티브의 잠재력을 보여준다. 이처럼 김봄소리의 연주는 코른골트의 음악이 단지 클래식 음악의 주변부가 아니라, 오히려 대중성과 예술성을 모두 아우른다는 것을 증명하며, 영화음악을 예술로 받아들이는 관점을 정교하게 확장시킨다.

영화의 도시 부산에서 만나는 필름 콘서트

이처럼 영화음악은 점점 더 공연장으로 들어오고 있고, 그 흐름은 부산을 비롯한 경강권에서 드러난다. 6월 25일, <심현정의 11시 영화음악 콘서트>(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가 오른다. 부산필름뮤직오케스트라가 함께 하는 이번 공연은 <북극의 눈물> <아마존의 눈물> 같은 다큐멘터리 시리즈의 음악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영화 <올드보이>로 잘 알려진 영화음악감독 심현정이 무대에 올라 음악의 배경과 감정을 안내한다. 시리즈마다 테마가 있는데, 6월은 ‘지구의 눈물’이다. 심현정이 음악을 맡았던 환경 다큐멘터리 <북극의 눈물>(2008)부터 <남극의 눈물>(2011)까지, 스크린에 녹아든 음악을 콘서트 무대로 올리는 시간이다. 3월에 첫선을 보였던 이 시리즈는 6월 이후에도 7~11월에 여러 테마로 이어진다.

이처럼 영화음악은 콘서트홀의 문턱을 낮추며 새로운 클래식 관객을 만들고 있다. 동시에, 그 역사 속에 코른골트처럼 위대한 작곡가들이 존재했음을 안다면, 우리는 이 음악을 단순한 배경음악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 장르로 더 깊이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무대를 ‘디자인’한다는 것

무대디자이너 황지선

글 박나무 자유기고가



연극이 현실 같고 현실이 연극 같다. 대본을 이렇게 쓰면 너무 극단적인 상황이 쉽 없이 펼쳐진다면 비현실적이라는 트집으로 퇴짜를 맞지 않을까 싶다. 훗날의 예술가들은 이 한반도의 2024년 말과 2025년 초를 어떻게 기억하고 표현할 지 자못 궁금하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몸과 마음이 멀쩡할 때 직접 겪은 일인데다 세상 그 어떤 사건들보다 영상을 포함한 기록물들이 흔한 터라 극적으로 만듦은 오히려 어려울 성 싶다. 그래도 연극으로 만듦을 상상해본다. 총을 든 군인들이 굳게 닫힌 문을 지키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해볼까? 숯제 극장입구에서부터 관객들을 제한하는 것처럼 연출해볼까? 거리에 나선 시민들은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헬기와 건물들의 모습은 그림으로 표현해볼까? 아냐, 실제로 근접하게 만들어야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줄 수 있을거야. 헬기에 탄 군인의 마음을 이번 연극의 주된 이야기로 삼아볼까? 광주를 겪은 사람의 아들이 이번 계엄에 개입하게 되면서 빚어지는 갈등을 그려볼까? 45년 전 광주의 모습은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하고, 과거가 현재를 돕는 것은 어떻게 형상화해서 보여줄 수 있을까?

극작가의 상상은 자유롭게 뻗어나가겠고, 연출가의 심박동수는 기대감에 벅차 빨라지겠으나, 한 사람 무대디자이너의 얼굴은 흠뻑으로 변하고 있겠다. 극작가가 우주정거

장을 배경으로 쓰면 무대디자이너는 그 우주정거장을 구현해야 하고, 연출가가 실제와 같은 건물을 원하면 무대디자이너는 실제처럼 만들고 보여질 방법을 찾아야 한다. 무대디자이너도 나름의 상상력을 펼쳐야 하고, 극장의 크기에 따라서 이상과 현실 사이를 왔다 갔다 해야 한다. 그리고 보면 무대디자이너는 건축가의 입장과 참 비슷해 보인다. 건축주의 요구에 따라 건물을 설계하지만 가능한 게 있고, 불가능한 것도 있다. 건축주의 집이지만 건축가의 작품이기도 하니 양측 간에 밀고 당기는 살바싸움도 있는 것. 각자의 욕심대로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와야겠지만, 현실은 냉정하고 예산에도 한계가 있다. 오늘도 어디선가 무대는 새 옷을 입고, 또 다음 옷을 갈아입고 있다. 그 옷을 결정짓는 사람이 바로 무대 디자이너이다.

20년간 부산의 여러 공연 무대를 디자인하면서 또 후배들을 키우고 있는 황지선 디자이너를 만났다. “이렇게 무대 디자이너를 독립적인 영역으로 보고 찾아주어 고맙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한때는 극장이나 공연단체들도 무대디자이너가 무대감독인지, 제작감독인지, 시공업체인지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은 구분 못한다기보다는 그저 ‘무대를 설치하고 운용하는’ 영역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표현된 것이다. 지난 20년간의 내 작업은 무대를 ‘디자인’한다는 것에 대한 독립성을 인정받기 위한 몸부림이었던 것 같다” 그러게, 나도 그런 줄 알았다. 무대 디자이너가 여성이라 살짝 놀라며 “망치질 타카질 목공까지 다 하시는 거냐?”는 무식한 질문부터 던진다.

“스무살 무렵에 극단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때는 배우도 하고, 무대 디자인에 시공도 하고, 조명도 잡고, 음향까지 맡던 시절이라 전천후로 일해 왔다. 모든 것을 다 하는 사람이 잘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되겠지만 어쩌면 다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 싶더라. 저는 무대를 디자인하고 그것이 실제로 구현됐을 때 큰 기쁨을 느끼는 사람인줄 알고, 20대 중반부터 다시 그 일을 공부했고 지금껏 그 일을 하고 있다. 망치질 타카질 목공까지 누구보다 잘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무대제작의 역할까지 부여받았을 때 하는 일이

지, 디자이너의 영역은 아니다.” 그동안 나 같은 사람을 일하면서 얼마나 많이 만났을까? “디자인과 제작이 다른 영역이고, 그러므로 용역에 대한 비용은 각각에 따로 책정해야 하고, 그것이 선행되어야 이후 저작권 문제나 재공연할 때의 비용 문제들도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부산의 연극판이 큰 돈을 벌어본 적이 잘 없어서 이 논의가 잠 들어있었나 싶다. 재공연 때 배우들에 대한 출연료는 당연히 따로 책정해야 하는 줄 알지만, 무대 디자인은 그냥 가져다 쓰는 것으로 아는 사람도 많다.

이제는 여러 대학에 무대디자인 전공도 생겼으니, 세월이 많이 달라진 셈이다. 그 달라짐에 황지선 디자이너의 따뭇한 눈물도 담겨 있겠다. 부산예술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반짝반짝하는 눈빛들을 보고 있노라면 기대감과 걱정이 함께 밀려온다. “아직까지는 이 일이 예술의 독창적인 영역으로 서려면 갈 길이 멀다. 제대로 일하기 위해서는 서울로 가야 하는 게 인정하기 싫지만 엄연한 현실이고, 후배들이 이 곳에서 일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게 우리 선배들이 할 일이라 어깨가 무겁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을 열심히 잘 하기만 하면 되는 것도 큰 복이지 싶다. 내 일을 끊임없이 설명하고, 설득하고, 또 증명하는 것은 참 고단한 일이다.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할 일, 복 받은 것처럼 보이는 일도 저절로 되지는 않았겠지. 부산이라는 공연 무대가 더욱 풍성하고 다양해지길 바라본다.

무대는 그저 아스팔트 바닥일 수도 있고, 소극장 좁은 바닥일 수도 있고, 해운대 백사장에 특별히 세운 ‘아시바’일 수도 있고, 대극장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디자인해 볼 수도 있고, 때로는 객석이 무대가 될 수도 있겠다. 부산의 공연예술을 지켜온 황지선을 비롯한 몇 안 되는 무대디자이너들, 눈빛이 반짝거리는 후배들이 상상의 나래를 활짝 펼 무대가 펍 많아졌으면 좋겠다.

윤현무대 대표로 있는 황지선은 20여 년 넘게 수많은 공연의 무대 디자인을 맡아왔다. 최근 공연했던 부산시립극단 연합공연 ‘바리데기’를 비롯하여 포항시립극단 ‘한여름밤 모르페스의 꿈’, 경주시립극단 ‘울화’, 극단 누리에 ‘어둠상자’, 극단 현장 ‘반추’, 나주시립합창단 오페라 ‘레미제라블’, 가야오페라단 ‘라보엠’, 부산시립예술단 국악칸타타 ‘가마솥 외산’ 등의 무대디자인을 맡았으며, 부산연극제(2018), 경남연극제(2022), 울산연극제(2012, 2013, 2020, 2023) 무대미술상을 수상했다.

바우하우스, 현대적 삶이 되다

글 박송화 미학연구자, <새롭게 읽는 서양미술사> 저자



1919년, 독일 바이마르에서 예술, 기술, 일상의 종합이 이루어졌다. 유럽의 현대예술가들과 러시아의 절대주의와 구축주의자들, 네덜란드 데 스틸의 활동가들은 바이마르로 달려가 그들의 못다 이룬 꿈을 ‘바우하우스’라는 이름 아래 실현한다. 바우하우스는 미술사에서 가장 독특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것은 미술 사조도, 특정 양식도 아닌, 학교 이름이지만 미술사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으며, 순수 예술부터 각종 디자인, 교육학에서까지 다루는 거대한 주제가 되었다. 나아가 20세기 이후 현대 사회의 풍경을 완전히 바꿔놓은 주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우하우스가 백 년 전에 고안한 디자인이 여전히 우리 일상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이다.

야망과 능력을 동시에 지닌 건축가 발터 그로피우스(Walter Gropius, 1883~1969)는 새로운 종합예술학교의 학장직을 맡아 달라는 시(市)의 요청을 수락하고 학교 이름을 ‘바이마르 국립 바우하우스’라고 지었다. 바우하우스(Bauhaus)는 ‘집을 건축하다’, ‘건축을 위한 집’이라는 독일어로 모든 예술은 건축으로 종합된다는 그로피우스의 신념을 담은 이름이다. 현대 사회는 분업을 기초로 모든 분야가 서로 분리되었고, 이로 인해 인간성의 파편화라는 비극을 겪었다. 그로피우스는 1차 세계대전의 격전지였던 서부전선에 참전했다가 이성과 감성이 말살된 현장을 목격하고는 전인성(全人性)을 회복하고자 하였고, 그러한 목표가 학교 설립에서 ‘건축’이라는 이상으로 반영되었다. 이

처럼 바우하우스는 사회개혁과 전인교육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안고 태어났다. 따라서 예술과 기술, 이론과 실습의 결합은 바우하우스의 교육철학이 되었다.

학생들은 순수예술가와 각종 공예 장인들 밑에서 단계를 밟아 견습생에서 장인이 되는 교육을 받았는데,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고 그것을 바탕으로 실제 작품(또는 제품)을 제작하는 것까지 모든 과정을 훈련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예술가와 장인, 제작자와 사용자, 아름다움과 실용을 아우를 수 있는 소양을 기르고 파편화, 분업화로 인해 잃어버린 감수성을 회복할 수 있었다.

초기 바우하우스를 이끌었던 화가 요하네스 이텐(Johannes Itten, 1888~1967)은 교수의 작품을 모방하는 과거 교육 방식을 버리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물질을 탐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형태와 색채를 조형하도록 하였다. 1920년 이후 교수로 합류한 파울 클레(Paul Klee, 1879~1940)와 칸딘스키 또한 학생들의 직관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독려했다. 이처럼 초기 바우하우스는 산업화와 전쟁으로 인한 인간성 파괴라는 문제의식이 배경이 되어, 동시대 추상미술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낡은 세계를 타파하고 정신과 물질이 조화로운 세계를 지향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것을 모방하는 '구상'이 아닌, 색채와 형태의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추상'을 지향하는 예술가들이 바우하우스를 주도하게 된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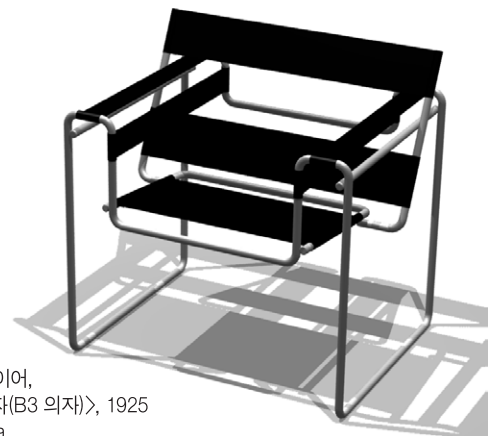
학교는 제2의 르네상스를 맞이한 것처럼 역동적 기운이 넘쳤지만, 반대로 학교 밖 상황은 날로 어두워졌다. 독일은 1차 대전의 막대한 전쟁 배상금(베르사유 조약)을 지급해야 했고, 정치적으로는 보수화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정치권에서는 바우하우스를 세금만 낭비하는 학교로 보기 시작했다. 그로피우스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예술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산업 친화적으로 바우하우스의 정체성을 새롭게 규정하였다. 자유로운 표현을 중시한 이텐이 물러가고, 1923년 나즐로 모홀리 나기(Laszlo Moholy Nagy, 1895~1949)가 들어오면서 바우하우스는 기하학적 추상을 중심으로 새로운 도약을 하게 된다.

모홀리 나기는 엄격함, 정확함, 합리성을 중시한 추상화가이자 디자이너로 그의 철학은 산업사회의 지향성과 잘 맞았다. 비슷한 시기, 데 스테일의 아버지, 반 되스버그가 바우하우스로 왔다. 되스버그는 정식 교수는 아니었지만, 학생들에게 본질과 규칙에 대한 데 스테일의 이론을 설파했다. 1920년이 지나면서 바우하우스는 유럽의 추상미술을 한데 끌어모았고, 추상미술이 본격적으로 산업, 건축, 생활에 침투하도록 하였으며 이윽고 바우하우스 하면 떠오르는 세련되며 간결한 '바우하우스 스타일'을 탄생시켰다.

모홀리 나기가 가르친 학생이었던 디자이너 마리안느 브란트(Marianne Brandt, 1893~1983)는 산업사회의 대표 재료인 금속을 활용하여 주방 소품, 조명 등 일상의 다양한 물건을 만들었다. 그녀는 그릇과 다구(茶具)는 도자기라는 편견을 깨고 매끈한 금속으로 된 다구 세트를 제작했다.(1924) 군더더기 없는 외형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마리안느 브란트, <다구(茶具) 세트>, 1924 ©Photo: Lucia Moholy, © Bauhaus-Archiv Berlin, ©VG Bild-Kunst, Bonn, © ADAGP, Paris



마르셀 브로이어, <바실리 의자(B3 의자)>, 1925 © Wikipedia

기계적으로 자른 주전자의 둥근 표면이 정밀하면서도 이 지적 느낌을 전달한다. 견습생에서 장인이 된 마르셀 브로이어(Marcel Breuer, 1902~1981)는 자전거 핸들에 영감을 받아 강철 파이프를 구부리고 천을 씌어 의자를 만들었다. 이 의자는 ‘바실리 체어(B3 의자, 1925)’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도 판매되고 있다.

이처럼 기하학적 추상을 바탕으로 정밀함, 간결함을 지향한 바우하우스의 디자인은 현대적 세련됨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했으며 세계 유명 호텔, 고급 라운지 등에서 쉽게 마주칠 수 있다. 그 이유는 지역성, 민족성, 시대성이라는 특수하고 개별적인 성질보다 형태와 색채라는 보다 본질적이고 보편적인 성질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는 산업화를 바탕으로 규격화, 표준화, 대량생산으로 특징지어지는데, 바우하우스의 기하학적 추상은 여기에 가장 부합하는 철학이자 표현이었다. 물론 바우하우스의 철학은 학교에 참여했던 내로라하는 추상미술가들의 신념과 떼어놓을 수 없다.

그로피우스의 노력과 바우하우스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외부 세계는 학교에 우호적이지 않았는데, 마침 산업화를 꾀하던 데사우에서 바우하우스를 유치하게 된다. 1926년 그로피우스는 데사우에 학교를 새로 지었는데, 종합예술

학교답게 강의실, 실습실, 기숙사, 극장, 커뮤니티 공간 등이 있는 복합건물이 세워졌다. 학습관 전면은 직사각형 유리 패널들로 덮였고, 건물 전체를 이루는 수직과 수평은 몬드리안의 작품이 3차원으로 등장한 것 같은 인상을 풍긴다. 학교의 마지막 교장인 건축가, 루트비히 미스 반 데어 로에(Ludwig Mies van der Rohe, 1886~1969)는 ‘적을수록 풍부하다(less is more)’라는 자신의 철학을 바탕으로 현대적 재료인 철과 유리로 평평하고 매끄러운 건물 <바르셀로나 파빌리온>(1929/1986)을 지었는데, 기하학적 추상미술의 영향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나치가 데사우 시의회를 장악하자 반 데어 로에는 바우하우스를 베를린으로 옮기고 학교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시대의 압력을 막을 순 없었다. 1933년, 한 때 화가 지망생이었던 히틀러는 독일 총리가 되자마자 바우하우스를 폐교시켰다. 시대착오가 심각했던 이 독재자에게는 현대적인 것이 그저 저속하고 퇴폐적인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세계적인 종합예술학교는 개교 14년 만에 전설이 되었고 교수와 학생 중 다수는 미국으로 떠났다. 비록 바우하우스는 역사가 되었지만, 그들의 철학, 예술관, 교육관은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현재까지도 우리의 삶과 함께하고 있다.



미스 반 데어 로에, <바르셀로나 파빌리온>, 1929/1986, 바르셀로나 © Wikipedia

INVITATION TO THE

가

가람아트홀	621-6669
가온아트홀	1600-1602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663-5361
공간소극장	611-8518
국립부산국악원	811-0114
글로벌아트홀	505-5995
금정문화회관	519-5661~2

대

동래문화회관	550-6611
대동대학교 D'ART홀	510-4838, 010-9429-7014
드림씨어터	1833-3755

무

무지크바움	070-7692-0747
-------	---------------

부

부산가톨릭센터 공간101.1	462-1870
부산메트로홀	1600-0316
부산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	605-5114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366-8114
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북구문화예술회관	309-4081
부산민주공원	790-7400
부산시민회관	630-5200
부산예술회관	612-1372
부산콘서트홀	640-8888

성

성원아트홀	1899-5435
소극장 6번출구	010-5232-1350
소민아트센터	991-2200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1644-2963

수아트홀	744-1415
신명천지소극장	515-7314
스페이스 움	557-3369

영

액터스소극장	611-6616
어댑터씨어터	0507-1388-1447
에저또소극장	852-9161
열린아트홀	527-0123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61
영화의전당	780-6000
용천지랄소극장	625-0767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일터소극장	635-5370

차

차성아트홀	728-0993
청춘나비아트홀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621-4005

해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효로민락소극장	623-6232

B

BEXCO 오디토리움	740-7369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BOF아트홀	0507-1330-3001

K

KBS부산홀	620-7181
--------	----------

S

SM아트홀	1600-1602
-------	-----------

ARTS

SUN	MON	TUE	W
1	2	3 신소미 첼로 독주회 19:30 [대] 초대/신소미(010-8826-8371)	4 부산시립예술단 예술교향악단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클래식' 10:30(단체관람) [대]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부산시립예술단 예술교향악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7월의향연' 10:30(단체관람) [대]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소프라노 양효정 리사이틀 [대] 초대/양효정(010-2611-1111)
8 뮤지컬 '달 샤페트' 11:00, 14:00, 16:30 [대] 6만6천원-4만4천원/쥬쥬크브릿지(1533-7857) 제11회 시노두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영 아티스트 협주곡의 밤' 18:00 [대] 시노두스 심포니 오케스트라(010-8733-7438) 이윤지 피아노 리사이틀 17:00 [대] 전석 2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	9	10 부산예술고등학교 제37회 국악정기연주 19:00 [대] 무료/부산예술고등학교 음악교육부(514-1232)	11 한국가곡의 밤-사계 19:30 [대] YJ클래식스(010-6301-1111) 부산시 학생 문화공연 권유 '어릴적예(藝)' 브이 브라스 10:30 [대] 브이 브라스(010-5811-1111)
15 2025 한국가곡 대축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17:00 [대] 3만원-2만원-1만원/KNN방송교향악단(850-9568)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국립현대무용단 '압! 압! 압!' 14:00 [대] 2만원-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세계적인 바리톤 고성현과 함께하는 오페라산책 19:30 [대] 코리아싱어헤어로(010-9940-1201)	16	17 제15회 부산시 구·군 여성연합합창 페스티벌 17:00 [대] 무료/부산시여성연합합창단(010-3882-0228) 제8회 더 부산 혼 사운드 정기연주회 19:30 [대] 더 부산 혼 사운드(010-8733-7438)	18 부산시립교향악단 가곡 19:30 [대] 전석 5천원/(재)부산시립교향악단 영남성주국소리보존회 제1회 정기연주회 '판(板)여는 소리' 19:30 [대] 무료/영남성주국소리보존회
22 제22회 부산울산원음합창단 정기연주회 15:00 [대] 무료/부산울산원음합창단(245-0717) 더뉴앙상블 청춘음악회 17:00 [대] 더뉴앙상블(070-8095-9426)	23	24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30회 정기연주회 부산국악작곡가협회와 함께하는 '바람이 머무는 시간' 19:30 [대] 2만원-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소프라노 김미정 독창회 19:30 [대] 전석 2만원/브릴란떼오페라먼트(508-0459) DÓNÓ 제3회 정기연주회 '멘델스존에서 메노티까지 100년' 19:30 [대] 초대/DÓNÓ(010-4484-8812)	25 부산하모니합창단 제21회 정기연주회 [대] 초대/부산하모니합창단 2025 제41회 부산음악제 [대] 부산MBC(760-1121)
29 2025 Project: Tchaikovsky 17:00 [대] 전석 1만원/오민성(010-4725-7714) 김상훈 클라리넷 독주회 17:00 [대] 더뉴앙상블(070-8095-9426)	30		

ED	THU	FRI	SAT
국공연 ‘재밌는 클래식 맛있는 (사)업팀(607-3111) 국공연 재밌는 국악 신나는 국악’ 사업팀(607-3111) 를 19:30 (82-6971)	5 제1250회 MBC 목요일음악회 ‘천천탱고와 함께하는 새로운 물결’ 19:30 대 1만원-5천원/(사)문화도시네트워크(760-1494) 유문경-배정행 작곡 발표회 19:00 참 초대/유문경(010-4001-5285)	6 J Choir 제3회 정기연주회 17:00 대 전석 2만원/아트락(010-5468-4658)	7 뮤지컬 ‘달 사베트’ 11:00, 14:00, 16:30 대 6만6천원-4만4천원 (취생크브릿지(1533-7857)) 참사랑패밀리콘서트 19:00 대 아가페문화예술원(010-8934-3226) 김미연-김미진 피아노 듀오 리사이틀 17:00 대 전석 1만원(현장구매)/김미진(010-9390-4271)
30 7-6885) 람 지원사업 스와 금관악기에 빠지다! 79-3267)	12 부산예술고등학교 제37회 음악정기연주 19:00 대 무료/부산예술고등학교 음악교육부(514-1232) 부산시 학생 문화공연 관람 지원사업 ‘어릴적예(藝)’ 스쿨 오브 쇼파이어 10:30 대 더 하모니어스 앙상블(010-7379-0153)	13	14 낭만주의 거장 ‘차이코프스키&라흐마니노프’ 16:00 대 11만원-9만원-6만원-4만원/밀레니엄심포니 오케스트라(02-6292-9366, 9370)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국립현대무용단 ‘얹! 얹! 얹!’ 14:00 대 2만원-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유망주 음악회’ 17:00 대 무료/(재)부산문화회관(607-6000)
회음악회 ‘미안성 음악회’ 문화회관(607-6000) 제3회 정기공연 0 보존회(010-2596-6740)	19 ◆ 부산시립교향악단 제621회 정기연주회 ‘DSCH’ 19:30 대 3만원-2만원-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닥터스 심포닉 밴드 제22회 정기연주회 19:30 대 무료/닥터스 심포닉 밴드(010-9458-9258) 부산시 학생 문화공연 관람 지원사업 ‘어릴적예(藝)’ 국악그룹 도시락 ‘新홍부전’ 10:00 대 국악그룹 도시락(010-8986-6056)	20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오페라 여행 ‘오페라 A to Z’ 19:30 대 7만원-5만원-4만원-3만원 (사)부산문화(1600-1803) ◆ 부산시립합창단 유명지휘자 초청연주회 ‘전쟁과 평화 그리고 희망’ 19:30 대 전석 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피아니스트 정슬기 귀국 독주회 19:30 대 정슬기(010-8532-1625)	21 부산장로성가단 제20회 정기연주회 ‘여정’ 17:00 대 무료/아트락(010-5468-4658) 부산남구립음드합창단 제1회 정기연주회 17:00 대 부산남구청(607-4065, 010-7472-5510) 한국예술가곡협회 제3회 정기 연주회 16:00 대 (사)아지무소오페라단(010-9550-4649)
회 정기연주회 19:30 단(610-1304) 공쿠리 수상자 연주회 5)	26 제68회 유코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9:30 대 유코오케스트라(010-5468-4658) 박정희 피아노 리사이틀 19:30 대 전석 3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	27 홀튼심포니오케스트라 제3회 정기연주회 ‘운명을 넘어, 한걸음 더’ 19:30 대 5만원-3만원 홀튼심포니오케스트라(010-7232-9832) 2025 VIP 실내악 페스티벌 I ‘Baroque to Romance’ 19:30 대 전석 3만원/비바아첼(070-7537-1248)	28 개성고등학교 130주년 기념 음악회 17:00 대 백양장학회(010-2230-5985) 플루티스트 정승찬 제10회 LAST CONCERT 17:00 대 전석 2만원/아트락(010-5468-4658) 김재욱, 이효진 듀오 콘서트 17:00 대 아트내상스(010-9204-5854)
사랑채극장 ◆ 국악인형극 ‘얼씨구 왕국의 삼총사’ · 3월 5일(수)-6월 1일(일) 평일 오전 10:30 (단체관람), 주말-공휴일 오전 11:00 ※ 월-화요일 공연없음 전석 2만원(36개월 이상 관람)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 부산시립극단 특별공연 가족뮤지컬 ‘신데렐라: 너의 뜻대로’ · 6월 6일(금)-7월 6일(일) 평일 오전 10:30(단체공연), 주말-공휴일 오전 10:30, 오후 2:00 ※월요일 공연없음 전석 1만2천원(전연령 관람가, 미취학 아동 부모 동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전시실 부산회화제 · 6월 10일(화)-6월 15일(일) (사)부산미술협회 서양화분과 010-2870-0505	

SUN

MON

TUE

WE

1

뮤지컬 '바다 100층파리 집' 11:00, 14:00
대 1층 7만원(예매시 할인)/탑월드(1800-7672)

2

3

4

8

2025 최현우 19+1 13:00, 17:00
대 9만9천원·7만7천원
(㈜하늘이엔티(1688-6675))

가족뮤지컬 '슈퍼왕스-초능력 곤충 대소동'
11:00, 14:00, 16:30
소 전석 5만원 / (㈜더화랑이엔티(1800-6567))

9

10

11

부산시 학생 문화공연 관람
'어릴적예(藝)'_발레컬 '우'
대 김옥련발레단(010-23-...)

15

지브리 & 디즈니 OST 콘서트 16:00
대 11만원·9만원·6만원·4만원 / (㈜밀레니엄심포니
오케스트라(02-6292-9370, 9375))

우주 매직쇼 11:00, 14:00
소 전석 4만원(예매시 할인)
우주아트(070-4202-2200)

16

17

18

22

2025 Linn-Benton Chamber Choir
내한공연 19:00
소 컴페니언(010-9478-6212)

23

24

25

해군작전사령부 대한해협
호국음악회 19:00
대 해군작전사령부(917-...)

29

2025 사운드 아카이브: 디 오케스트라 15:00
대 9만9천원·8만8천원·7만7천원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02-6292-9370)

30

ED

THU

FRI

SAT

5

6

7

2025 최현우 19+I 15:00, 19:00

대 9만9천원·7만7천원
 (썬하늘이엔티(1688-6675))

가족뮤지컬 '슈퍼워즈-초능력 곤충 대소동'
 11:00, 14:00, 16:30

소 전석 5만원 / (썬더화랑이엔티(1800-6567))

12

13

14

밤 지원사업
 운수 좋은 날' 14:00
 (579-9486)

부산시 학생 문화공연 관람 지원사업
 '어릴적예(藝)' 발레컬 '운수 좋은 날'
 10:30, 14:00

대 김옥련발레단(010-2579-9486)

부산시 학생 문화공연 관람 지원사업
 '어릴적예(藝)' _세대공감 뮤지컬 '사는게 꽃같네'
 10:30, 14:00

소 (썬문화공(754-7474))

부산시 학생 문화공연 관람 지원사업
 '어릴적예(藝)' 발레컬 '운수 좋은 날'
 14:00, 19:30

대 김옥련발레단(010-2579-9486)

부산시 학생 문화공연 관람 지원사업
 '어릴적예(藝)' _세대공감 뮤지컬 '사는게 꽃같네'
 10:30, 14:00

소 (썬문화공(754-7474))

우주매직쇼 14:00, 16:30

소 전석 4만원(예매시 할인)
 우주아트(070-4202-2200)

19

20

21

우리가 멈춰야 할 때: PAUSE 18:00

대 (사)상월결사(010-2786-8544)

부산시민회관 토크 콘서트
 '살롱 드 바이올린-KoN(콘)' 19:30

소 4만4천원·3만3천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26

27

28

해전 승전 75주년

(6622)

2025 사운드 아카이브: 디 오케스트라 17:00

대 9만9천원·8만8천원·7만7천원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02-6292-9370)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당신은 지금 바버레타에 살고 있군요' 15:00

소 3만원·2만원 /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전시실

아름다운 규방공예(고운손길전)

· 5월 28일(수)-6월 1일(일) 전시실 1
 빛살고운 규방 010-4581-2907

동백수석회

· 6월 3일(화)-6월 8일(일) 전시실 1, 2
 대한민국수석인총연합회 010-5109-0615

제21회 부경서도초대작가전

· 6월 10일(화)-6월 15일(일) 전시실 1, 2
 (사)한국서도협회 부산지회 516-5678

The 봄

· 6월 17일(화)-6월 22일(일) 전시실 1
 유정희 010-8377-2788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위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 에 접속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 바랍니다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세계
국립현대무용단 어린이 무용
압! 압! 압!



어린이의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작은 도전과 성장의 순간들을 현대무용 언어로 풀어낸 국립현대무용단 어린이 무용 ‘얹! 얹! 얹!’이 부산을 찾는다. 특히 이번 공연은 2025년 전국 순회 일정 중 부산에서만 단 2일간 진행되는 단독 공연으로, 어린이는 물론, 한때 어린이였던 모든 어른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무대이다.

몸의 언어로 전하는 성장의 메시지

<얹! 얹! 얹!>은 ‘움직임의 작은 성공을 위한 시도들’이라는 주제를 통해 작지만 다양한 움직임에 도전하는 과정과 그 성공을 보여준다. 어린 생명이 성숙해가는 여정을 다섯 개의 장면(‘수의 춤’, ‘자연의 춤’, ‘시간의 춤’, ‘봐봐!! 춤’, ‘나, 너 춤’)으로 구성, 관객이 직접 움직임의 리듬을 느끼고 각자의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온몸이 활짝 열려 있는 감각의 존재인 어린이는 그 자체로 춤이자, 자유이다. <얹! 얹! 얹!>은 생명력을 주제로 한 다양한 몸과 리듬의 실험이며, 우리의 세계를 만들어온 작지만 거대한 ‘성공’의 의미를 다시금 밝힌다. 2024년 초연무대에서 관객과 평단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으며, 올해 7월에는 예술의전당 <어린이 가족 페스티벌> 무대에서 관객들과 다시 만난다.

어린이에는 흥미를, 어른에게는 성찰을 선물하다

<얹! 얹! 얹!>은 어린이를 위한 공연이지만, 단지 어린이만을 위한 무대는 아니다. 작품은 모든 연령대를 향해 열려 있으며, 현대무용의 문턱을 낮추고 몸의 언어로 소통하는 경험을 공유하는 장을 만든다. 공연 중에는 관객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리듬과 동작, 반복적인 패턴을 통해 무대와 하나가 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봐봐!! 춤’에서는 존재를 확인하고 서로의 시선을 마주하는 과정을, ‘나, 너 춤’에서는 모든 존재가 하나에서 출발해 다시 하나로 연결된다는 철학적 메시지를 감성적으로 풀어낸다. 정답보다 질문을, 설명보다 감각을 남기는 이번 공연은 어린이에게는 흥미를, 어른에게는 성찰을 선물한다.

‘숲에서 소풍 온 듯한 느낌’을 선사하다

자연과 교감하는 공간 연출

이번 부산 공연에서 가장 눈에 띄는 요소는 무대 위에 재현된 거대한 나무 조형물이다. 무대 디자이너 남정식의 손에서 구현된 이 무대는 자연 속 생명력과 순수함을 상징하며, 관객에게 도심 속 극장에서 자연과 교감하는 듯한 공간 경험을 제공한다. 단순히 배경이 아닌 ‘등장인물’처럼 무대를 채우는 이 조형물은 장면마다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내며, 공연 전반의 리듬과 감정을 시각적으로 확장한다. 아이들이 숲속을 뛰놀듯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는 무대로 구성되어 있어, 어린 관객의 몰입도를 높여준다.

무용으로 어린이의 감각과 창의성을 끌어올리다

공동안무가 밝넝쿨·인정주

이번 작품의 공동 안무가 밝넝쿨과 인정주는 유아부터 청소년까지를 위한 무용 작업을 지속해 온 ‘오!마이라이프 무브먼트 씨어터’의 창단 멤버다. 2016년부터 ‘동심으로 바라보는 세계관’을 화두로 작업을 이어오며, 무용이라는 예술 장르를 통해 어린이의 감각과 사유, 창의성을 무대 위로 끌어올려 왔다. 그들의 작업은 국내를 넘어 일본 아시테지 세계총회와 헝가리 국제연극올림픽 등 해외 무대에서도 주목받았으며, <얹! 얹! 얹!>은 두 사람이 함께 만든 여덟 번째 공동 창작물이다. 특히 이번 공연은 무용 매체 <몸> 주관, (사)창무예술원이 주관하는 ‘2024년 제31회 무용예술상’에서 작품상을 수상하며 예술성과 대중성을 모두 인정받았다.

일시	6월 14일-15일 토-일요일 오후 2:00
장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금액	R석 2만원 S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 48개월 이상 관람 (추천연령 6세 이상)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이토록 생생하고 재밌는
현대무용이 있다니

아이와 어른이 함께 즐기는 응원의 춤 <얹! 얹! 얹!>

글 손소영 <얹! 얹! 얹!> 드라마터그

공기를 가르며 한 팔을 빠르게 뻗을 때, 까치발로 힘껏 하늘로 뛰어오를 때, 어려운 과제가 눈앞에 있을 때, 마법의 주문처럼 ‘얹’하고 외친다. 숨을 내뿜는 순간, 신기하게도 우리 몸은 짧게 반짝거리며 힘이 깃든다. ‘얹’은 움직임을 시작하기 전 상태를 전환하는 기합 소리이자, 자신과 누군가를 향한 응원의 말이다.

응원을 건네는 마법의 주문, ‘얹!’

세 개의 ‘얹’이 사이좋게 뛰어오르는 듯한 제목의 <얹! 얹! 얹!>은 소리 내어 읽기만 해도 생생하다. 제목처럼 이 공연은 보기만 해도 힘이 샘솟는 마법을 지녔다. 막 돌아나는 새싹처럼 무용수들은 땅을 박차고 뛰어오르고, 관객과 눈을 맞추며 웃고, 객석을 가로지르며 하이파이브를 건넨다. 어린이 관객은 자신이 잘 아는 숫자와 계절, 시간 등을 춤으로 만나며 소리 내어 웃고, 노래하고, 몸을 움직이며 공연에 몰입한다. 어른 관객은 춤이 은유하는 생명의 순환과 흐름 속에서 아이들과 함께 웃고, 때로는 눈물을 짓는다. 무용수들과 관객은 서로 다른 형태의 ‘얹!’을 주고받으며, 무대와 객석은 응원의 힘으로 점차 가득 찬다.

어린이의 감각과 상상으로 만나는 현대무용

<얹! 얹! 얹!>은 생명력을 주제로 어린이의 감각 세계와 생태적 상상력이 만나는 현대무용 공연이다. 2024년 초연된 국립현대무용단의 어린이 무용 공연으로, 제31회 무용예술상 작품상을 수상했다. 안무를 맡은 ‘오!마이 라이프 무브먼트 씨어터’의 박녕쿨과 인정주는 어린이 무용 공연이 거의 없던 시절부터 영유아를 비롯한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공연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온 창작자들이다. 이들은 “어린이 무용은 무용 예술의 본질을 향한 작업”이라 말한다.

<얹! 얹! 얹!>은 두 사람이 함께 만든 여덟 번째 어린이 작품이다. 국립현대무용단의 안무 위촉을 계기로 ‘무용에 근간을 둔 어린이 무용’이란 무엇인지 묻는 고민이 담겨 있다. 무용의 뿌리를 더듬는 과정은 작품의 주제인 생명력과 맞닿아 있었다. 자연의 일부로서 인간을 바라보며, 생명의 리듬과 이어진 자연의 순서와 배열, 다양한 조합과 변화를 작품 속에 녹여냈다. 인정주 안무가는 어린이가 가진 ‘우주성’을 강조하며, “나를 포함한 무용가, 예술가들이 자기 안에 있는 어린 시절의 힘을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했다.

어린이는 몸은 작지만 섬세하게 반응하고, 예술가처럼 사물을 새롭게 바라본다. 그런 존재와 함께하는 일상은 특별하게 느껴졌고, 배울 점이 많았다. 아이와 함께 살며 키워진 감각들은 자연스레 작품으로 이어졌다. ‘수의 춤’, ‘자연의 춤’, ‘시간의 춤’, ‘봐봐!춤’, ‘나, 너 춤’ 등의 다양한 장면은 어린이의 일상과 친숙한 소재를 다루며, 인간



© 안소영

은 우주와 연결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운다.

현대무용은 흔히 추상적이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갖는다. 이야기가 없는 공연은 어린이에게 더 어려울 거라 걱정하는 양육자들도 많다. 이에 대해 밝넝쿨 안무가는 “이야기가 있든 없든 아이들은 자기 감각으로 각자 고유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더라고요.”라며, 어린이의 감각적 능력을 지지했다. 무용은 맥락 속에서 관계를 읽는 예술이다. 연극과는 또 다른 감각을 자극하며, 아이들의 상상력을 다른 방식으로 확장한다. “연극이 이야기를 통해 상상력을 키운다면, 무용은 고유한 상상력으로 각자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예술이에요. 균형적으로 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린이 무용 레퍼토리 개발, 현대무용의 미래가 시작되는 자리

국립현대무용단은 6년 전부터 어린이·청소년 무용 레퍼토리 개발 프로젝트를 이어오고 있다. 어린 시절 현대무용을 접하고, 이 경험이 성장의 발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이번 세 번째 어린이·청소년 무용 창작 레퍼토리에는 어린이 무용 창작에 대한 전문성과 그동안의 신뢰를 바탕으로 두 안무가를 위촉하였다. <얍! 얍! 얍!>은 올해 부산을 비롯해 제주, 광주, 포항, 화성, 광주 등 10개 도시를 투어한다.

“국립현대무용단의 지원으로 다양한 지역의 관객들을 만날 수 있고, 어린이 무용에 대한 관심도 점점 뜨거워지고 있어요. 어린이 연극은 100년의 역사를 가졌지만, 어린이 무용은 이제 10년이 채 안 된 단계예요. ‘어린이 무용’이라는 성이 튼튼히 세워져야 현대무용의 대중화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밝넝쿨 안무가는 공공의 지원이 현대무용의 저변을 넓히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다.

어린 시절 연극을 재미있게 본 기억이 성인이 되어서도 연극을 찾게 만들 듯, 어린이 무용 역시 어릴 때부터 경험할수록 이후 현대무용의 관객 기반이 탄탄해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어린이 무용 레퍼토리는 단순한 장르가 아닌, 현대무용의 미래를 여는 문이다.



몸으로 기억하는 아이들, 춤으로 응원하는 어른들

어린이 무용 창작을 지속하는 원동력에 대해 인정주 안무가는 말했다. “부모 예술가로서 어린이 무용은 늘 해보고 싶은, 근사한 작업이에요. 디지털에 익숙한 아이들에게 몸을 움직이는 건 즐거운 것이고, 우리가 춤을 추며 경험한 좋은 것들을 아이들에게도 꼭 보여주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뿐 아니라 어린이 관객 모두가 좋은 기억을 많이 쌓아가면 좋겠어요.”

사상가 에디스 코브(Edith Cobb)는 저서 『아동기 상상력의 생태학』에서 말한다. 어린이의 감각과 상상은 몸의 활동에서 시작되며, 이는 이후 고차원적 사유의 기반이 된다. 감각적으로 풍부한 어린 시절을 충분히 누려야, 성인이 되어서도 타자와 세계를 공감하며 살아갈 수 있다.

<얍! 얍! 얍!>은 우리가 어린 시절 바라보던 은하수가 빛나는 밤하늘, 하나둘셋을 외며 내디딘 첫걸음, 봄꽃과 파도, 단풍잎과 눈싸움이 차곡차곡 쌓인 계절의 기억, “봐봐!” 외치며 마주한 반짝이는 눈빛, 너는 내가 되고, 나는 네가 되었던 그 순간들을 다시 불러낸다.

이 작품은 과거의 어린이였던 이들이 한 걸음씩 성장해 온 시간을 되짚으며, 지금의 어린이들이 그 모든 감각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춤추듯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하자는 힘찬 제안이다. 한 번도 보지 못했고, 다시 만나고 싶은, 그런 작지만 커다란 경험으로 존재를 흔드는 ‘얍!’과 같은 무대이다.

최초가 주는 특별함, 최고가 주는 감동

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 부산콘서트홀 개관

6월 21일부터 개관 페스티벌 개최



부산 최초의 클래식 전용 콘서트홀 ‘부산콘서트홀’이 6월 20일 개관한다.

최적의 음향과 세심한 설계로 완성된 부산콘서트홀은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연면적 1만 9,862㎡)로, 메인홀인 콘서트홀(2,011석) 외에도 챔버홀(400석)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베를린 필하모니홀, 일본 산토리홀과 같은 빈야드(‘포도밭’이라는 이름처럼 홀 중심에 무대가 있고 객석을 계단식으로 배치하여 에워싸는 모양) 스타일의 공연장으로, 비수도권 최초로 ‘악기의 제왕’이라 불리는 파이프오르간이 설치되어 있어 음악애호가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부산콘서트홀의 시작을 알리다

개관 페스티벌

개관에 발맞춰 6월 21일부터는 부산콘서트홀의 시작을 알리는 ‘부산콘서트홀 개관 페스티벌’이 화려하게 펼쳐진다. 예술감독 정명훈이 이끄는 아시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APO)를 중심으로 피아니스트 조성진, 선유예권, 오르가니스트 조재혁, 소프라노 황수미 등 국내외 정상급 아티스트들이 총출동한 가운데 ‘베토벤’을 주제로 교향곡, 실내악, 오페라 등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선보인다. 특히 부산콘서트홀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반영한 듯 대부분의 공연이 티켓 오픈 5분 만에 매진되면서 클래식 팬들을 놀라게 했다.

이 시대 가장 깊은 존경과 추앙을 받는 마에스트로 정명훈은

베를린 필하모니, 빈 필하모니, 로열 콘세르트헤바우 오케스트라 등 세계 최정상급 교향악단을 지휘했으며 세계 유수 오페라극장의 포디움에 올랐다. 독일 자르브뤼켄 방송교향악단 상임지휘자, 피렌체 테아트로 코무날레 수석객원지휘자, 파리 오페라 바스티유 음악감독, 로마 산타 체칠리아 오케스트라 수석지휘자,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를 역임했고 현재 KBS교향악단 계관지휘자, 드레스덴 슈타츠크펠레 수석객원지휘자, 도쿄 필하모닉 명예예술감독, 그리고 아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음악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정명훈 예술감독은 최근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이탈리아 밀라노 라스칼라 극장의 음악감독으로 선임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라스칼라 극장 247년 역사상 최초의 아시아인 음악감독으로, 현재 음악감독인 리카르도 샤이의 뒤를 이어 2027년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하나를 위한 노래

6월 21일(토) 오후 3:00 콘서트홀

개관 페스티벌 첫 무대인 '하나를 위한 노래'에서는 정명훈 예술감독이 지휘하는 아시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베토벤의 '삼중 협주곡', 교향곡 제9번 '합창'을 들려준다. 아시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는 일본 도쿄필, 중국 국가대극원, 항저우 필을 비롯하여 베를린 필,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오케스트라, 라디오 프랑스 필, 파리 국립오페라, 뮌헨 필, 베를린 슈타츠포펠레, 도이체오퍼 베를린, 런던 필,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등 세계 각국의 교향악단 및 국내 오케스트라의 아시아 단원들로 구성된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로, 페스티벌 기간 동안 정명훈 예술감독과 함께 무대를 빛내며 클래식 음악 도시 부산을 알린다.

이번 무대에서 피아니스트로도 관객과 만나는 정명훈 예술감독은 바이올리니스트 사야카 쇼지, 첼리스트 지안 왕과 함께 '삼중 협주곡'을 들려준다. 특유의 독특한 예술적 재능과 곡에 대한 세밀한 접근으로 유명한 사야카 쇼지는 1999년 파가니니 국제콩쿠르에서 우승한 후 정명훈, 주빈 메타, 로린 마젤, 세몬 비치코프, 마리스 안손스 등 세계적인 지휘자와 베를린 필하모닉, 빈 심포니 오케스트라,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 런던 심포니 등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협연무대를 가져왔다. 세계 각국의 음악 페스티벌에서 독주 및 실내악 연주자로 활약해온 지안 왕은 특히 스위스 베르비에, 일본 미야자키, 영국 BBC 프롬스와 울드버러, 미국 탕글우드와 모스틀리 모차르트 페스티벌 등에 초청받아 연주했다.

음악사에서 단순한 작품을 넘어 인간의 희망과 연대의 정신을 음악으로 표현한 걸작, 교향곡 제9번 '합창'은 소프라노 황수미, 메조 소프라노 방신제, 테너 김승직, 바리톤 김기훈, 그리고 2025 클래식부산 시즌합창단, 창원시립합창단과 함께 하며 문화와 예술의 도시 부산을 노래한다. 황수미는 독일 본 극장과 비스바덴 헤센 주립극장 솔리스트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경희대학교 교수로 후학양성에 힘쓰고 있다. 방신제는 이탈리아 밀라노 스칼라 극장 아카데미아에 동양인 최초의 메조소프라노로 입학, 졸업한 후 다수의 유럽극장을 중심으로 오페라 가수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승직은 2016년 세계적인 권위의 제네바 국제콩쿠르 1위 없는 3위에 이어 이듬해는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파이널리스트에 올랐던 대표적인 차세대 유망주로, 2023년부터 오스트리 린츠 주립극장에서 솔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김기훈은 2021년 BBC 카티프 싱어 오브 더 월드에서 한국 성악가 최초로 우승했으며, 현재는 유럽과 미국을 오가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황제 그리고 오르간

6월 22일(일) 오후 5:00 콘서트홀

부산콘서트홀 개관을 축하하기 위해 피아니스트 조성진과 피아니사이자 오르가니스트 조재혁이 부산을 찾는다. 이번 무대에서는 정명훈 예술감독이 지휘하는 아시아 필



© Jean-François Leclercq

예술감독 정명훈



바이올린 사야카 쇼지



© Xu Bin

첼로 지안 왕



소프라노 황수미



메조 소프라노 방신제



© Teresa Rohwangi

테너 김승직



바리톤 김기훈



피아노 조성진



피아노·오르간 조재혁

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조성진은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제 5번 '황제'를, 조재혁은 부산콘서트홀의 웅장한 오르간을 선보일 수 있는 바흐의 '토카타와 푸가', 그리고 생상스의 교향곡 제 3번 '오르간'을 들려준다.

2015년 쇼팽 국제콩쿠르 우승으로 국제무대에 화려하게 등장한 조성진은 이후 베를린 필하모닉, 빈 필하모닉, 런던 심포니, 로열 콘세르트허바우, 보스턴 심포니 등 세계 정상급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며 국제적인 커리어를 빠르게 쌓아오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바쁜 피아니스트로 세계적인 명성과 사랑을 받고 있는 조성진은 2024/25 시즌 베를린 필하모닉의 상주 아티스트로 발탁되어 협연뿐 아니라 단원들과의 실내악 프로젝트, 바덴-바덴 부활절 축제, 리사이틀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뉴욕 필하모닉,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며 빈 필하모닉 한국 투어,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아시아 투어에도 참여하며 왕성한 활동을 이어간다. 조성진이 들려줄 '황제'는 베토벤의 협주곡 중 가장 화려

하고 웅장한 작품으로, 베토벤 특유 강렬함을 그만의 깊이 있는 해석으로 만날 수 있다.

폭넓은 레퍼토리와 섬세한 해석, 뛰어난 테크닉을 갖춘 조재혁의 무대에서는 4,406개의 파이프가 만들어내는 장엄한 울림과 압도적인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다. 스페인 마리아 카날스 국제콩쿠르 1위, 모나코 몬테카를로 피아노 마스터즈 국제콩쿠르, 이탈리아 레이크코모 국제콩쿠르, 미국 뉴올리언스 국제콩쿠르 등 세계 유수의 콩쿠르에서 입상하며 국제무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온 조재혁은 오르가니스트로서도 왕성한 활동을 펼치며 예술의전당, 롯데콘서트홀, 프랑스 앙글렘 성베드로성당 등에서 독주회를 가졌으며 코리아 심포니와 함께 요제프 용옌의 오르간 협주곡 'Symphonie Concertante' 한국 초연 및 세종문화회관 제야음악회에서 생상스의 교향곡 '오르간'을 협연했다. 지난 2020년에는 프랑스 마들렌 성당에서 녹음한 첫 오르간 앨범을 발매하기도 했다.

패밀리콘서트 '이구데스만&주'

6월 22일(일) 오전 11:00 챔버홀

가족뮤지컬보다 재미있는 가족음악회를 만날 수 있는 무대 '이구데스만&주'의 패밀리콘서트는 클래식 음악에 코미디가 접목된 '클래식 코믹 퍼포먼스' 공연으로, 뛰어난 연주 실력 위에 코믹한 연출과 익살스러운 연기가 더해지면서 딱딱하고 어렵게만 느껴질 수 있는 클래식 공연을 유쾌하게 풀어낸다. '이구데스만&주'의 무대는 '눈물 나도록 웃긴 클래식', '엄청난 기교와 매혹적인 음악', '유머가 넘치는 독특한 클래식 공연'이라는 찬사와 함께 이들의 유튜브 영상 또한 3천만 회 이상의 누적 조회수를 기록하며 전 세계 관객을 사로잡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을 비롯하여 '엘리제를 위하여' 등 그들의 손에서 재탄생된 유쾌한 베토벤을 만날 수 있다.

'이구데스만&주'는 러시아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 알렉세이 이구데스만과 한국계 영국인 피아니스트 주형기로 구성된 듀오로, 클래식 음악에 유머와 연극적 요소를 결합한 독창적인 공연으로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예후디 메뉴인 스쿨에서 만나 2004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이들은 대표작 'A Little Nightmare Music'으로 유튜브에서 큰 주목을 받았으며 뉴욕필하모닉과의 협연 등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에 기여해왔다. 최근에는 배우 존 말코비치와 'The Music Critic' 투어를 진행하며 장르의 경계를 허무는 혁신적인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이구데스만&주

베토벤과 낭만

6월 23일(월) 오후 7:30 챔버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선우예권이 아시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선보이는 밀도 높은 실내악 무대로, 베토벤의 '클라리넷 3중주'를 비롯하여 포레 '피아노 3중주 라장조', 드뷔시 '시링크스', 브람스 '피아노 3중주 제1번'을 들려준다.

2017년 반 클라이번 국제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하며 국제적인 주목을 받은 선우예권은 강렬한 테크닉과 섬세한 감성을 겸비한 피아니스트로, 시대를 대표하는 연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는 워싱턴 챔버 오케스트라, 덴마크 로열 오케스트라, 뮌헨 필하모닉, 볼티모어 심포니, 바르샤바 필하모닉 등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협연하고 뉴욕 카네기홀, 베를린 필하모니, 런던 위그모어홀, 함부르크 엘브필하모니,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등 세계적인 무대에 서왔다. 반 클라이번 국제콩쿠르 실황으로 제작된 '클라이번 골드 2017'은 빌보드 클래식 차트 1위를 기록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이후에도 모차르트 협주곡과 소나타(2020), 라흐마니노프, 리플렉션(2023) 앨범을 발매하며 음반 활동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피아노 선우예권

고전의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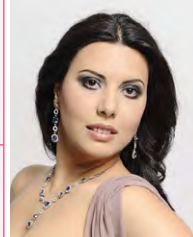
6월 25일(수) 오후 7:30 챔버홀

피아니스트 정명훈을 만날 수 있는 무대로, 아시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함께 실내악의 향연을 펼친다. 모차르트 '플루트 4중주 제1번'을 시작으로 베토벤 '7중주 내림마장조', 그리고 슈베르트의 가곡 '송어 D.550'과 이 곡의 선율을 사용하여 작곡한 피아노 5중주 '송어 D.667'를 들려준다.

피아니스트로서도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은 정명훈은 1974년 차이콥스키 국제콩쿠르에서 피아노 부문 준우승을 차지하며 주목받은 후 솔리스트로서 베를린 필하모닉, 뉴욕 필하모닉, 시카고 심포니 등 세계 정상급 오케스트라와 협연하고 실내악 연주자로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특히 첼리스트 정명화,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등 가족과 함께 한 '정 트리오' 활동을 통해 음악적 유대감을 보여줬으며, 피아니스트로서도 깊이 있는 해석과 정교한 테크닉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테너 에릭 커틀러



소프라노 최하주 바센츠



베이스 알베르트 페센도르퍼

사랑으로 부르는 자유, 피델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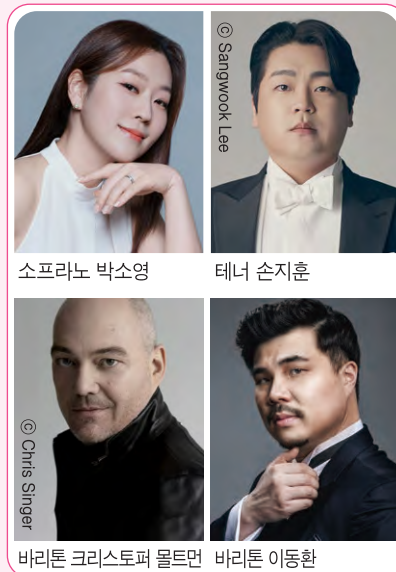
6월 27일(금) 오후 7:30, 28일(토) 오후 5:00 콘서트홀

개관 페스티벌의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하는 무대로, 베토벤이 쓴 단 하나의 오페라 '피델리오'를 만날 수 있다. 정명훈 예술감독이 지휘하는 아시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부산시립합창단, 국립합창단과 함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로열 오페라 등 세계 주요 오페라 극장에서 주역으로 활동해온 테너 에릭 커틀러, 소프라노 최하주 바센츠가 출연, 콘서트 버전으로 선보인다. 연출은 국내 유수 단체와 오페라 협업을 가져온 연출가 엄숙정이 맡아 감옥에 갇힌 남편을 구하기 위해 남장까지 불사한 레오노레의 용기와 사랑을 그려낸다.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오페라 극장과 페스티벌에서 활약중인 에릭 커틀러는 2005년 리처드 터커

어워드 수상자로, 터커 재단으로부터 학업 및 커리어 지원을 받아 벨칸토 테너로서의 경력을 시작했다. 특히 최근에는 베를린 슈타츠크펠레와 함께하는 말리의 '대지의 노래', 코벤트 가든 로열 오페라 하우스 및 취리히에서의 '피델리오', 취리히 오페라 하우스에서의 코른골트 '죽음의 도시'에서 주역을 맡아 관객과 평단의 호평을 받았다. 아르메니아 출신의 흐라추히 바센트는 2006년 이후 독일을 거점으로 활동을 이어오며 '일 트로바토레'의 레오노라 역으로 데뷔한 후 코벤트 가든, 텔아비브 이스라엘 오페라, 빈 국립 오페라, 런던 로열 오페라 하우스 등 세계 주요 오페라 하우스에서 활동해 왔다. 바센트는 지난해 예술의전당에서 열렸던 베르디 오페라 '오셀로'의 데스데모나 역으로 무대에 올라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이 외에도 베를린 예술대학교 성악 교수로 있는 베이스 알베르트 페센도르퍼, 2024년 대한민국 오페라 대상 신인상을 수상하고 전문 연주자로 활동중인 소프라노 박소영, 2023년 차이콥스키 국제음악콩쿠르에서 우승을 거머쥐며 가장 주목받은 신인으로 등장한 손지훈, 1997년 BBC 카디프 싱어 오브 더 월드 대회에서 가곡 부문 우승을 차지하며 이름을 알린 바리톤 크리스토퍼 몰트먼, 한국인 바리톤 최초로 세계 3대 오페라하우스인 런던 코벤트 가든 극장에서 데뷔한 바리톤 이동환이 함께 출연, 수준 높은 무대를 선사한다.



베토벤과 함께하는 사유의 시간

Preview Lecture: 베토벤 탐구

클래식부산에서는 본격적인 개관 페스티벌 개최에 앞서 관객들이 공연 프로그램을 보다 깊이 있게 즐길 수 있도록 특별강연 'Preview Lecture: 베토벤 탐구'를 진행한다. 국내 대표 클래식 음악 강연 기관인 '풍월당'과의 협업으로 열리는 이번 강연에서는 음악적 통찰력을 지닌 각계각층

의 클래식 분야 강사들이 출연, 개관 페스티벌 프로그램의 주요 주제인 '베토벤' 음악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강연의 시작을 알리는 5월 23일, 24일은 풍월당 대표인 박종호가 베토벤의 유일한 오페라 작품인 '피델리오'를 두고 인류애와 진실한 부부애에 대한 통찰을 다루며 5월 30일, 31일에는 풍월당 이사 나성인이 교향곡 '운명', '전원', 현악 사중주로 베토벤을 관통하는 메시지인 '인간



베토벤: 고통을 넘어 환희로'의 이야기를 풀어낸다. 6월 7일에는 조선일보 문화전문기자 김성현이 20세기 현대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합창'을 주제로, 영화 '불멸의 연인', '카핑 베토벤' 등을 통해 그의 드라마틱한 삶을 살펴본다. 6월 13일에는 개관 페스티벌 '황제 그리고 오르간'에서 연주되는 생상스 교향곡 제3번 '오르간'에

대해 부천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김선아의 강연이 이어지며, 강연 마지막 날인 14일에는 음악 칼럼니스트인 김문경이 베토벤 중기의 걸작인 피아노 소타나 제23번 '열정'과 베토벤이 남긴 마지막 피아노 협주곡인 제5번 '황제'를 중심으로 베토벤의 감정 세계와 피아노 언어의 미학을 섬세하게 풀어낸다.

- 문의: 클래식부산 공연기획팀
(051-640-8888, classicbusan.busan.go.kr)

부산시립교향악단 제621회 정기연주회

DSCH

20세기 러시아를 대표하는 작곡가 쇼스타코비치 서거 50주년을 맞아 부산시립교향악단이 그의 작품세계를 조명하는 무대를 연다.

6월 19일 열리는 제621회 정기연주회에서는 홍석원 예술감독이 지휘하고 2022년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첼로 부문 한국인 최초 우승자인 최하영의 협연으로, 쇼스타코비치 '첼로 협주곡 제1번'과 '교향곡 제10번'을 연주한다.

쇼스타코비치는 1906년에 태어나 1975년까지 살았던, 현대와 가까운 작곡가이다. 평생 국가의 통제와 억압 속에서 작품을 썼지만 그의 삶과 작품은 예술이 어떻게 저항의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자신의 이름 철자를 독어식 음정 표기로 적용한 'DSCH' 모티브는 개인적 정체성과 내적 반항을 담은 상징으로, 그의 여러 작품에 등장하며 독재에 대한 은유적 저항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번 무대의 첫 곡인 '첼로 협주곡 제1번' 역시 'DSCH' 모티브가 1악장에서 활용된 곡으로, 쇼스타코비치 특유의 풍자와 냉소가 깃들어 있다. 첼로 협연을 맡은 최하영은 독일 빌레펠트 태생으로, 영국 퍼셀 음악학교를 거쳐 독일 크론베르크 아카데미에서 학사 및 석사, 그리고 전문과정을 졸업했으며 독일 베를린 예술대에서 석사과정을 마친 후 스페인 소피아 왕립음악원에서 최고연주자과정을 밟고 있다. 2011년 13세의 나이에 출전한 오스트리아 브람스 국제 콩쿠르에서 최연소 1위를 수상했으며 2018년 폴란드 크시슈토프 펜데레츠키 국제 첼로 콩쿠르에서 우승하고 크론베르크 첼로 마스터클래스에서 '탄트그라프 폰 헤센상'과 '라이다 웅거러 음악상'을 수상했다. '강렬하고 화려한 연주를 선보이는 대담한 첼리스트'라는 호평을 받으며, 최근에는 뉴욕 카네기홀 리사이틀홀, LA 필하모닉, 도이치 심포니 오케스트라, 유러피언 유니언 유스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벨기에 안트워프 심포니 오케스트라, 미국 볼티모어 심포니 오케스트라, 콜로라도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영국 위그모어홀 리사이틀홀 데뷔 등이 예정되어 있다.

20세기 음악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작품 중 하나인 '교향곡 제10번'은 1953년 독재자 스탈린이 사망하고 몇 달 후 발표된 작품으로, 스탈린 시대의 압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예술적 표현을 시도한 첫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세 번째 악장에서는 그의 음악적 서명이기도 한 'DSCH'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면서 단순한 음악적 성취를 넘어 예술을 통한 인간 정신의 승리를 보여주는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휘 홍석원



첼로 최하영



6월 19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합창단 유명지휘자 초청연주회 전쟁과 평화 그리고 희망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5주년을 맞아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고 이 땅의 평화와 희망찬 미래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마련된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가 호국보훈의 달인 6월 20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지휘 성상철



부산시립합창단

특히 이번 무대는 부산시립합창단이 부산 또는 세계에서 활동중인 지휘자를 초청, 부산 관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신선한 울림을 선사하는 ‘유명지휘자 초청연주회’로, 이번 무대에서는 청중들과의 행복한 소통을 최고의 미덕으로 생각하는 지휘자 성상철이 객원지휘자로 무대에 선다.

부산시립합창단 단원으로 활동하기도 한 성상철 지휘자는 김해시립합창단 창단 후 초대 지휘자로 초빙받아 지금의 김해시립합창단으로 발전하는 초석을 다지기도 했다. 이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시카고에 소재한 아메리칸 콘서바토리에서 지휘와 성악으로 석사학위를 받은 후 귀국, 장로회신학대학교와 고신대학교에서 음악이론과 지휘를 가르쳤다. 제주시립합창단 제5대 상임지휘자로 취임한 후 제주 공연 문화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으며 성상철은 제주 CBS여성합창단을 창단 및 지휘하였고 김해시립합창단, 부산시립합창단, 목포시립합창단, 제주 콘서트 콰이어에서 객원으로 지휘했다. 이후 미국 시카고 한미장로교회 음악감독을 제의 받아 또다시 도미, 시카고 콘서트 콰이어, 시카고 여성합창단을 지휘하며 시카고 교회 음악협회 회장으로 한인사회 문화 예술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10여 년의 미국 생활을 뒤로하고 귀국한 성상철은 21세기 솔리스트 앙상블, 거제드림싱어즈, 모아합창단 등과 함께

국내외 무대에 섰으며 오페라 ‘사랑의 묘약’, ‘나부코’, ‘모세’ 등을 지휘하기도 했다. 이후 성상철은 늦은 나이에 광주대학교 대학원에서 연주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모아합창단 지휘자, 감리교신학대학교 평생교육원, 스티그마 아카데미 원장으로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1부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며’에서는 나폴레옹이 오스트리아를 침공할 것이라는 소식을 접한 하이든이 불안, 공포, 분노와 함께 평화에 대한 염원을 담아 작곡한 ‘전쟁 미사’를 들려준다. ‘전쟁 미사’는 특히 미사의 마지막 곡인 ‘Agnus Dei’에 등장하는 팀파니의 독주로 ‘북미사’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데, 팀파니 성형원, 첼로 장선아와 함께 소프라노 손은경, 알토 이유진, 테너 김웅태, 베이스 이강호가 솔로리스트로 협연한다. 2부에서는 ‘전쟁, 평화, 희망’이라는 3가지 테마로 구성된 메들리 곡을 들려준다.

6월 20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민회관 토크 콘서트

살롱 드 바이올린 KoN(콘)

최초라는 수식어가 늘 함께하는 독보적인 아티스트 KoN(콘)이 부산을 찾는다.

토크 콘서트 ‘살롱 드 바이올린’ 두 번째 무대로, 2월 대니 구에 이어 KoN(콘)만의 진솔한 이야기로 관객과 만난다.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작곡가, 뮤지컬 배우, 화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KoN(콘)은 서울대학교 기악과 및 동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한 후 바이올린 전공을 살려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오다 점차 영역을 넓혀 집시, 재즈, 탱고, 크로스오버, 현대음악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한국 최초의 집시 바이올리니스트로 집시 음악의 종주국인 헝가리에서 최초로 집시 음악 콘서트를 가졌으며, 그의 자작곡들은 드라마 ‘또 오해영’, ‘역도요정 김복주’ 등에 쓰이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KoN(콘)은 2011년부터는 뮤지컬 ‘모비딕’과 ‘폐암’의 주·조연을 맡으며 뮤지컬 배우로서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 바이올린 연주를 무대에서 직접 보여줄 수 있는 한국 최초의 액터 뮤지션(노래와 연주가 가능한 배우)으로 국내외를 오가며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2022년에 이어 2024년 뮤지컬 ‘파가니니’에서는 파가니니 역을 맡아 ‘파가니니의 재림’이라는 극찬과 함께 강렬한 무대를 선사했는데, 매번 공연마다 즉흥연주의 천재였던 파가니니를 오마주하는 의미로 선보인 즉흥연주는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과 박수를 받았다.

또한 KoN은 뉴욕 패션위크 런웨이에서 모델로 활약한 경험이 있으며, 국내에서도 다양한 패션쇼 및 디자이너들과 협업해 온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다. 2010년에는 직접 작곡, 연주, 프로듀싱한 데뷔앨범 ‘Nuevo Gypsy(누에보 집시)’를 발매한 후 지금까지 한국, 일본을 포함하여 정규앨범 5장, 싱글앨범 19장을 발매했으며, 올해로 데뷔 15주년을 맞아 새로운 앨범 작업과 단독 콘서트를 준비 중이다. ‘KoN’의 본명은 이일근으로, 활동명인 ‘KoN’은 ‘Korean on the Note(음표 위의 한국인)’의 약자로, 일본 활동 당시 본명을 발음하기 힘들어하는 현지인들이 이름의 마지막 글자를 ‘콘’으로 읽은 데서 처음 나왔으며 이름에 대한 의미는 나중에 붙인 것이라고 한다.

이번 토크콘서트에서는 KoN(콘)의 삶과 함께 해온 바이올린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와 더불어 바이올린 주법 시연, 장르별 연주 등 바이올린으로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경험을 종합선물세트처럼 맛볼 수 있다. 또한 뮤지컬 배우로서도 활약중인 KoN(콘)이 들려주는 ‘바이올린 연주와 함께하는 송 넘버들’도 생생한 라이브로 감상할 수 있다.



6월 20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R석 4만4천원, S석 3만3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30회 정기연주회

창작 위촉곡 시리즈 II

부산국악작곡가협회와 함께하는 바람이 머무는 시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올해부터 새롭게 마련하는 창작 위촉곡 시리즈 두 번째 무대가 6월 24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특히 이번 무대는 부산 지역 국악 작곡가들의 창작곡을 초연하는 무대로, 지역 작곡가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창작 국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국악관현악의 참신한 레퍼토리를 발굴하고자 마련됐다.

첫 곡인 상주 모심기 주제에 의한 ‘삶의 노래’는 KBS국악대상 작곡상(2022), 대한민국작곡상(2023)을 수상하고 ARKO한국창작음악제 작곡가(2017, 2021, 2024)로 선정된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이정호 교수의 창작곡으로, 경북 상주지역에 전해내려오는 일종의 노동요인 ‘상주 모심기 노래’의 선율을 주제로 현대적인 감성을 극대화하여 작곡한 곡이다.

이어지는 창작집단 MoR 작곡가, 한선하수성가락보존회 회원인 김명옥의 유산가 주제에 의한 국악관현악 ‘울향’과 퓨전시나위 예타래 대표, 민족음악교육연구소 대표로 있는 작곡가 조익래의 ‘엄마야 누나야’,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강사로 있는 이은경의 국악관현악과 소프라노를 위한 ‘사랑가’는 위촉 초연곡으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다채로운 무대를 만날 수 있다.

우선 ‘울향’은 경기잡가의 대표적인 노래인 ‘유산가’의 선율을 관현악으로 구성한 곡으로, 특히 작곡가 김명옥이 지난해 타계한故 황의중 교수를 추모하며 작곡한 곡이다. ‘엄마야 누나야’는 우리에게 친숙한 김소월 작시의 동요 ‘엄마야 누나야’ 선율을 국악의 특성에 맞게 엮은 변주곡이며, ‘사랑가’는 판소리 ‘춘향가’ 중 ‘사랑가’의 선율을 모티브로 국악관현악의 풍성한 울림과 소프라노의 섬세하고 다양한 음색이 어우러지는 곡이다.

마지막 무대로는 제2회(1978), 제7회(1984) 대한민국 작곡상을 수상하고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명예교수를 역임한 황의중 교수의 ‘풍·아·송(風·雅·頌)’으로, 이 곡은 혼성합창과 테너, 소프라노, 창 그리고 국악관현악이 함께하는 교성곡이다.

이번 무대는 이동훈 예술감독이 지휘하고 월간 ‘객석’ 편집장으로 있는 송현민의 사회로, 소프라노 박현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 박성희, 김해시립합창단이 함께 한다.



6월 24일 화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1층) 2만원, S석(2층) 1만원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당신은 지금 바비레타에 살고 있군요

세계여성공연예술축제와 함께 하는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당신은 지금 바비레타에 살고 있군요'가 6월 27일과 28일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에서 펼쳐진다.

2020년 프레 세계여성공연예술축제를 거쳐 이듬해부터 시작된 세계여성공연예술축제는 부산에서 시작된, 전국 최초의 세계여성공연예술축제로 동시대 여성들이 겪는 삶의 곁을 예술로 담아내며, 여성 예술가들의 창작을 중심으로 두고 세대와 문화를 아우르는 소통의 장을 만들어가고 있다. 올해 제5회 세계여성공연예술축제 초청작인 '당신은 지금 바비레타에 살고 있군요'는 중년 여성의 정열적이고 아름다운 순간을 찬미하며, 관객과 출연진이 함께 춤추고 노래하는 관객 참여형 커뮤니티 댄스 공연이다. 특히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물고, 예술과 삶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며, 참여자와 출연자가 함께 감정을 공유하고 치유하는 독특한 형식으로 꾸며진다.

'바비레타'는 러시아에서 늦여름에서 초가을에 이르는 계절을 뜻한다. 이 때의 날씨가 얼마나 화창하고 뜨겁고 화려한지 오히려 '진짜 여름보다 더 아름답다'하여 젊었을 때보다 더 정열적이고 아름다운 중년여성에게 붙여진 이름이다. 그러기에 러시아에서 중년의 여성에게 '당신은 지금 바비레타에 살고 있군요'라고 하면 비록 젊지는 않지만 아주 화사하고 매력적인 여성이라는 최고의 극찬인 셈이다.

'당신은 지금 바비레타에 살고 있군요'는 지난 2012년 초연된 후 전국 100여 회 이상 공연을 이어오며 '커뮤니티



댄스의 시조새', '진정성의 진화'라는 찬사를 받아왔으며, 2021년에는 '한국춤비평가상' 특별상을 수상하며 예술성과 작품성을 동시에 인정받았다. 처음에는 누군가의 엄마, 딸, 아내로 살아왔던 중년여성들의 잃어버린 열정을 찾아주기 위해 시작된 프로젝트였으나 초연 이후 다양한 연령층의 관객들을 끌어모으며 현대인을 위한 치료 프로젝트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배우, 무용가, 음악가 등 다양한 장르의 중견 예술가들이 의기투합하여 결성한 프로젝트그룹 '춤추는 여자들'의 안무가 장은정, 최지연, 김혜숙, 그리고 드라마 '멜로가 체질', '오징어게임2' 등에서 깊은 연기를 보여준 배우 강애심이 무대에 올라, 각자의 경험과 예술적 감각을 녹여낸 진심 어린 이야기를 관객과 함께 나눈다. 특히 한여름의 열기를 지나 잠시 숨을 고르듯,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한 중년 여성들에게 스스로의 존재를 돌아보며 다시 '피어나는' 시간을 선물한다.

6월 27일 금요일 오후 8:00, 28일 토요일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36개월 이상 관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가족뮤지컬 수박 수영장

그림책을 펼치고 나온 따뜻한 상상력의 가족뮤지컬 ‘수박 수영장’이 7월 5일, 부산을 찾는다.

‘수박 수영장’은 베스트셀러 작가 안녕달이 2015년 출간한 후 지금까지 꾸준히 새로운 독자를 만나고 있는 동명의 스테디셀러가 원작으로, 뜨거운 여름날, 커다란 수박 안에 들어가 수영을 한다는 시원한 상상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이런 원작의 호방한 상상력에 섬세한 감동의 스토리를 더한 뮤지컬 ‘수박 수영장’은 2022년과 2023년 국내 가족뮤지컬 최다 관객, 최고 매출을 기록했고 지난해 열린 제8회 한국뮤지컬어워즈에서는 아동가족뮤지컬상에 노미네이트되어 작품성까지 인정받았다.

가족뮤지컬 ‘수박 수영장’은 바쁜 부모님을 도우려다 의도치 않게 사고뭉치가 되어버린 주인공 진희가 여름방학을 맞아 외가에 놀러 가게 된 이야기를 그린다. 오랜만에 만난 할아버지와는 말이 잘 통하지 않아 속상해하던 진희는 길을 잃은 막내 수박 씨앗을 만나 수박 수영장에 도착하고, 수박 수영장에서의 경험을 통해 가족과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느끼며 스스로를 빛나는 존재로 여기게 된다. 주인공 진희가 여행에서 만난 마을 사람들과 특히 할아버지를 통해서 가족과 이웃 모두에게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과정이 한 장 한 장의 그림책이 펼쳐지듯 ‘수박 수영장’ 무대를 통해 펼쳐진다.

사실 뮤지컬 ‘수박 수영장’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은 원작



에는 없다. 뮤지컬을 위해 새롭게 창조된 인물들로, 공연을 통해서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판타지와 등장인물들의 섬세한 감정선, 그리고 다채로운 무대효과가 합쳐져 원작 그림책의 감동은 배가 된다.

특히 잘 익은 거대 수박이 반으로 ‘썩’하고 갈라지면, 붉은색 수박 속으로 가득 찬 수영장이 무대 한가득 펼쳐진다. 여기에 수박 껍질로 만든 대형 미끄럼틀에 하늘을 나는 구름장수, 동글동글 수박 씨앗까지,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등장인물들과 뛰어놀다 보면 어느새 이야기 속으로 흠뻑 빠져들게 된다.

세대를 아우르는 따뜻한 이야기를 지닌 가족뮤지컬 ‘수박 수영장’은 유년 시절의 행복과 웃음을 가족 모두가 공유하며 새로운 추억을 하나 더 담아갈 수 있는 뜻깊은 무대이다.

7월 5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5만5천원, S석 3만3천원(24개월 이상 관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예술단 예술교육공연 '꿈꾸는 예술학교'가 선보이는 신작 프로그램

큰별쌤 최태성과 함께 하는 역사 속 우리음악 이야기
토크오페라 '헨젤과 그레텔'

2020년 출발한 부산시립예술단 예술교육공연 '꿈꾸는 예술학교'가
2025년 '큰별쌤 최태성과 함께 하는 역사 속 우리 음악 이야기'와 토크오페라 '헨젤과 그레텔'
2개의 신규 프로그램을 새롭게 선보이며 청소년은 물론 일반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큰별쌤 최태성과 함께 하는 역사 속 우리음악 이야기

7월 2일(수) 10:30, 14:00, 7월 3일(목) 10: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전석 1만5천원(정기회원 20% 할인) ※ 3일 일반관람 가능, 단체관람 별도문의



인기강사 큰별쌤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의 만남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큰별쌤 최태성과 함께 하는 역사 속 우리음악 이야기'는 지난해 '영도할매 마리오네트 인형와 함께 떠나는 영도의 국악사계'에 이은 신작으로, 우리 음악에 큰 업적을 남긴 왕을 중심으로 음악과 역사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강의와 해설을 맡은 최태성은 보는 이를 유쾌하게 만드는 특유의 에너지와 균형잡힌 역사관, 강의마다 몽클한 감동을 선사하는 한국사 강사로, tvN <별거벗은 한국사>, 채널S <다시 갈 지도>, EBS <최태성·서경석의 여행본색> 등 다양한 방송프로그램과 강연을 통해 사랑받고 있다.

세종, 세조, 성종 등 다양한 시대의 음악과 함께 역사 속 시간여행을 떠나는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지휘자 김경수의 지휘로, 이동훈 예술감독 작곡 '프롤로그'를 시작으로 신수제천, 종묘제례악, 판소리 흥보가 중 '화초장타령', 조원행 작곡 국악관현악 '쌍화점', 궁중정재 춘앵무, 최성환 작곡 '아리랑 환상곡' 등을 들려준다. 부산시립합창단 단원 김창돈과 부산시립무용단 단원 하현정이 특별출연한다.

특히 우리음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정악, 관현악 등 장르 안배를 통한 레퍼토리를 선정하였고 공연 중 평소 자주 만날 수 없었던 특경, 특종 등 국악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토코오페라 '헨젤과 그레텔'

7월 3일(목)-4일(금) 10:30, 14: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전석 2만원(단체관람 별도문의, 정기회원 20% 할인)



오페라를 쉽고 재미있게 만날 수 있는 부산시립예술단 예술교육프로그램 '토코오페라'가 2025년 신작 '헨젤과 그레텔'로 새롭게 찾아온다. 부산시립예술단 예술교육프로그램 '토코오페라'는 2022년 '우리아이 첫 오페라'를 콘셉트로 출발, 그동안 '세비야의 이발사'와 '마술피리'를 제작해 부산지역 청소년들에게 오페라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키며 매 공연마다 큰 화제를 모았다.

신작 '헨젤과 그레텔'은 엥겔베르트 훔퍼딩크가 작곡한 3막의 독일어 오페라이다. 그림 형제의 동화 '헨젤과 그레텔'을 바탕으로, 훔퍼딩크의 누이인 아델하이드 베테가 대본을 작성하였고 1893년 12월 23일 독일의 바이마르에서 초연되었다.

올해 무대는 2022년부터 '토코오페라' 연출과 해설로 오페라의 재미를 선사한 오페라 연출가 이의주가 다시 한번 연출을 맡고 객원지휘자 조용민이 지휘하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동화같은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로 청소년들을 위한 눈높이 오페라를 선보일 예정이다.

부산시립예술단은 지난 2월 부산지역 청년성악가들을 대상으로 오디션을 진행, 헨젤과 그레텔, 마녀, 엄마, 아빠 배역에 성악가 9명을 선발하고 지난 4월부터 본격적인 음악 연습에 들어갔다. 어린이가 주인공인 동화오페라인 만큼 올해는 공연예약 학

교 중 2곳을 선정, 성악가들이 직접 학생들을 지도해 어린이 합창을 무대에 올리는 특별 이벤트도 진행한다.

오디션을 통해 부산시립예술단 '토코오페라'와 함께 할 주인공은 헨젤에 소프라노 이수정과 정수정, 그레텔에 소프라노 권소라, 이에은이 출연하고 마녀는 테너 김준태와 소프라노 강태경이 선정되어 각기 다른 매력을 선사할 예정이다. 엄마 게르트루트는 메조소프라노 손혜은과 전하라, 아빠 페터는 바리톤 최모세가 선발되었다. 출연자들의 평균연령은 35세이다.

객원지휘자로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과 첫 만남을 갖는 조용민은 독일 트로싱엔 국립음악대학원, 독일 함부르크 브람스 시립음악원 Konzertexamen을 졸업하고 헝가리 부다페스트 국제지휘자 콩쿠르에서 1위 입상한 바 있다.

연출가 이의주는 오페라라는 생소한 장르를 접하게 될 학생들을 위해 극 중 대사는 한국어로, 아리아는 원어인 독일어로 노래하고 관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무대 영상과 감각적인 자막을 함께 띄우면서 해설로 오페라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또한 1막과 2막 사이 추첨을 통해 오페라 가수처럼 분장해 보는 분장 체험 시간을 갖고 라이브 중계를 진행하면서 참가자들에게 특별한 재미를 선사한다.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사업팀 607-3111, 3113

큰 ★별★샘 최태성과 함께 하는 역사 속 우리음악 이야기

보는 이를 유쾌하게 만드는 특유의 에너지와
균형잡힌 역사관, 탁월한 스토리텔링으로 감동을 선사하는
한국사 강사 최태성과 함께 하는 특별한 음악이야기



2025. 7. 2. 수 10:30, 14:00 7. 3. 목 10: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지휘 김경수(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지휘자)
특별출연 부산시립합창단 김창돈, 부산시립무용단 하현정

입장료 | 균일 15,000원(정기회원 20% 할인) 예매 | www.bscc.or.kr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051-607-6000(ARS 1번), 051-607-3111, 3113

국내 정상급 제작진이 선사하는
동화같은 오페라

부산시립예술단 특별기획 **트크오페라**

헨젤과 그레텔

2025. 7. 3. 목 ~ 7. 4. 금 10:30, 14: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지휘 조용민

연출·해설 이의주

연주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헨젤 소프라노 이수정, 정수정 그레텔 소프라노 권소라, 이예은
마녀 테너 김준태, 소프라노 강태경 엄마 메조소프라노 손혜은, 전하라
아빠 바리톤 최모세 요정 김은정
어린이합창 성남초등학교, 초읍초등학교 풀빛합창단

음악코치 권수빈 기술감독 박재현
무대·영상디자인 길고은 의상디자인 한승수 조명디자인 김민재
분장디자인 구유진 영상중계·제작 아트 포레스트
조연출 전하라 조연출보 오창석 자막 김경희

입장료 | 균일 20,000원(정기회원 20% 할인) 예매 | www.bscc.or.kr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051-607-6000(ARS 1번), 051-607-3111, 3113

춤의 물결, 부산에서 세계로

제21회 부산국제무용제

The 21st Busan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BIDF



일 시 6월 4일(수)-8일(일)

장 소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해운대해변 특설무대,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예술문화회관,
광안리해변, 부산시민공원, 수영민속예술관 놀이마당 등

문 의 (사)부산국제무용제 조직위원회 868-7881, bidf_c@naver.com

아름다운 부산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전 세계 춤의 향연 '제21회 부산국제무용제(The 21st Busan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BIDF)'가 6월 5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축제의 막을 올린다.

부산국제무용제는 2005년 제1회 부산국제해변무용제를 시작한 이래 지난 20여 년간 세계적인 무용축제로 성장해오며 춤이 있어 더욱 특별한 도시 부산을 알려왔다. 특히 지난해 2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던 부산국제무용제는 세계적 단체를 부산 단체 및 예술가들과 연결하고 창·제작을 지원함으로써 국제 예술플랫폼으로서의 부산 도시브랜드 제고에 기여하고 부산지역 내 춤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춤 애호가층을 확대함으로써 '춤의 고장' 부산의 명성을 되살리고자 노력해오고 있다.

올해는 헝가리, 프랑스,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일본, 캐나다, 필리핀, 한국 등 전 세계 10개국, 15개국 아티스트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30여 개 작품이 무대에 오른다. 특히 개막식이 열리는 6월 5일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는 특별초청공연으로 현대 발레극 '카르미나 부라나'가 펼쳐진다.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헝가리 세계드현대발레단(SCDC, Szegedi Kortárs Balett)의 '카르미나 부라나'는 칼 오르프(Carl Orff)의 음악과 세계적 안무가 타마스 유



헝가리 세계드 컨템포러리 발레단

로닉스(Tamás Juronics)의 연출이 결합된 무대로, 그동안 유럽과 미국, 멕시코, 중동 등 전 세계 500회 이상 공연되며 예술성과 대중성을 인정받은 작품이다. 특히 이번 부산 공연이 아시아에서는 초연으로, 짧고 고된 삶을 살아갈 운명의 젊은 여인이 사랑이라는 뜻밖의 선물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꿈꾸는 서사를 통해 인간 존재의 본질과 삶의 덧없음을 아름답고도 강렬하게 그려낸다. 여기에 웅장한 무대 세트와 독창적인 의상, 강렬하고 직설적인 움직임이 극적인 요소를 더욱 돋보이게 하면서 관객들을 장엄하면서도 아름다운 운명의 대서사 속으로 빠져들게 한다. 단순한 공연을 넘어 관객의 심장을 울리는 강렬한 예술적 체험으로 남은 이번 무대는 세계적 예술 단체



부산국제무용제와 프랑스 에르베 쿠비 컴퍼니



탱고라이프



하시아구라 무용단



프로젝트 에스



최은희와 춤패배김새



창무희

의 정점에 선 세계드현대발레단이 전하는 장대한 서사와 무대미학을 직접 마주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카르미나 부라나’는 개막 축하공연 외에도 6일과 7일 오후 3시,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두차례 더 무대에 오른다.

올해 해외초청작으로는 부산국제무용제와 프랑스 에르베 쿠비 컴퍼니의 공동 창작 프로젝트인 ‘아무 상관 없어(No Matter)’를 비롯하여 이퀼리브리오 디나미코 댄스 컴퍼니(이탈리아)의 ‘봄의 제전, 귀한의 의식’, 탱고라이프(아르헨티나)의 ‘아르헨티나 탱고’, 댄스 앙상블 싱가포르(싱가포르) ‘난양의 색깔’, 댄의 댄스 스튜디오 솔로(인도네시아) ‘누산타라의 영혼’, ‘푸푸 감부’, ‘자가드 지와’, 하시아구라 무용단(일본) ‘위대한 파도, 타마수다레 메들리’, 토니 총과 RNTF 공동체(캐나다) ‘늑대들’ 등 10여개 작품이 선보인다. 특히 ‘아무 상관 없어’는 2024-2025년 부산시와 프랑스 칸시 간의 긴밀한 협력 아래 프랑스 안무가 에르베 쿠비와 한국 무용수들이 양 지역에서 아티스트 레지던시, 리허설, 쇼케이스 등 다양한 예술 교류를 통해 완성되었다. 이번 부산국제무용제에서 첫 선을 보인 후 11월 열리는 칸 무용 페스티벌에서 세계 초연될 예정이다.

국내 초청작으로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시나브로가슴에 ‘앵거(ANGER)’, 시스템 온 퍼블릭 아이 ‘당신은 나보다 더 강해야만 합니다(You should be stronger than me)’, 프로젝트 에스 ‘빌리지(Village)’, 최호정 댄스 프로젝트 ‘PEAK 2.0’과 김용걸댄스시어터 ‘바람(The Wind)’, 최은희와 춤패배김새 ‘하얀섬(White Island)’, 김숙자 춤 보존회 ‘부정놀이춤’, 창무희 ‘숨’, ‘푸리’가 무대에 오른다.

- 6월 4일(수) 오후 7:00, 5일(목) 오전 10:00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예술문화회관
춤과 떠나는 세계여행
- 6월 5일(목) 오후 6:3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개막식
- 6월 5일(목) 오후 7:30, 6일(금)-7일(토) 오후 3: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특별초청공연] 헝가리 세계드 컨템포러리 발레단 ‘카르미나 부라나’
- 6월 6일(금) 오후 6:00 해운대해변 특설무대
[공식초청프로그램] 창무희, 댄의 댄스 스튜디오 솔로, 하시아구라 무용단, 칸 로젤라하이라워 주니어 발레단, 시나브로 가슴에, 토니 총과 RNTF 공동체, 에르베쿠비컴퍼니, 프로젝트 에스, 김용걸댄스시어터, 탱고라이프, 댄스 앙상블 싱가포르, 필리핀
- 6월 7일(토) 오전 11:00 광안리해변
[BIDF 거리홍보공연] 하시아구라 무용단, 토니 총과 RNTF 공동체, 댄의 댄스 스튜디오 솔로
- 6월 7일(토) 오후 6:00 해운대해변 특설무대
[공식초청프로그램] 하시아구라 무용단, 김숙자 춤 보존회, 댄의 댄스 스튜디오 솔로, 김용걸댄스시어터, 최은희와 춤패배김새, 시스템 온 퍼블릭 아이, 탱고라이프, 이퀼리브리오 디나미코 댄스 컴퍼니, 댄스 앙상블 싱가포르, 토니 총과 RNTF 공동체, 최호정 댄스프로젝트X부산대학교, 필리핀
- 6월 8일(일) 오후 7: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한-프랑스 공동제작 현대무용 ‘아무 상관 없어(No Matter)’

한달동안 펼쳐지는 음악의 향연

2025 부산 원먼스 페스티벌

우리 동네 문화살롱 페스타 5th

일 시 6월 1일(일)-30일(월)
장 소 부산지역 30곳 소공연장
전 석 1만원
문의 (사)부산소공연장연합회
557-3369, <http://bsaha.or.kr>



소공연장에서 한 달간 펼쳐지는 릴레이 콘서트 ‘2025 부산 원먼스 페스티벌’가 부산의 초여름을 다채로운 음악으로 물들인다.

이번 ‘2025 부산 원먼스 페스티벌’은 지난 2022년, (사)부산소공연장연합회가 문화예술로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한 ‘우리동네 문화살롱 페스타’ 무대로, 부산의 15개 구·군 소공연장에서 한달간 릴레이로 매일 공연이 펼쳐진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상·하반기 두차례 페스티벌을 개최함으로써 지역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돕고 시민들이 보다 가까이서 예술을 접하는 한편, 예술가와 시민이 스스럼없이 만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확대해왔다. 올해 ‘2025 부산 원먼스 페스티벌’은 6월과 11월, 40여 곳의 소공연장에서, 70여 개의 공연팀, 330여 명의 예술인이 참여하여 부산 각 지역의 공간과 예술인 그리고 시민들을 잇는 일상 속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6월 한달간 열리는 이번 ‘우리 동네 문화살롱 페스타’ 다섯 번째 무대에서는 공간별 특색을 반영한 각 참여 소공연장들의 기획공연이 무대에 오른다. 이번 상반기에 참여하는 소공연장으로는 오션컬처팩토리(강서구), 음악공간길, 금정아트홀, BFG음악홀(금정구), 더 락, 뮤지카오스,

박물관카페 알라딘, 오페라바움, 유정1995(기장군), 스페이스 수정, 포포 스튜디오(동구), 스페이스 움(동래구), 마루아트홀, 전포와일드클럽, 콘체르트보눔, 필슈파스(부산진구), 무사이, 하프데이즈(북구), 게네랄파우제, 문화주소 동방(서구), 광안리남매, 재즈프레소(수영구), 무지크바움(연제구), 아트센트 아지트, 아포지테라스(영도구), BOF아트홀(중구), 나눌락, 나무의자, 비바아첼 챔버홀, 센텀아트홀(해운대구)로, 클래식부터 크

로스오버, 퓨전국악, 재즈, 밴드, 포크 등 다양한 장르의 무대가 펼쳐진다. 11월에 열리는 여섯 번째 페스티벌에서는 이들 공간 외에도 금사락(금정구), 가람아트홀(남구), 공간523(사상구), 담쟁이(사하구), 기타고라스, 리얼 라이즈, 아프리카(수영구), 살롱 드 부산 1023(중구)이 참여한다. 한편, (사)부산소공연장연합회는 본격적인 공연에 앞서 ‘2025 부산 원먼스 페스티벌’의 시작을 알리는 ‘프롬나드 콘서트’를 5월 31일 부산근현대역사관 본관 야외마당에서 가지며 축제의 서막을 열었다.

부산의 신진예술가들을 발굴하는 ‘부산 라이징스타 콘테스트’ 역시 올해 개최된다. ‘부산 라이징스타 콘테스트’는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창단 3년 이내의 팀(구성원 중 부산시민을 포함)을 대상으로, 성악, 기악, 크로스오버, (퓨전)국악 등 순수음악과 재즈, 인디, 대중음악 등 대중음악 2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된다. 8월 4일부터 9월 29일까지 신청받으며, 1차 서류 및 동영상 심사를 통해 선정된 팀은

10월 18일 KT&G 상상마당 부산에서 공개오디션을 통해 분야별로 대상 및 최우수, 장려상 등 총 6개팀을 선발한다.

한편, 지난 2020년 12월, 가칭 부산소공연장 네크워크라는 명칭으로 첫 발을 내딛은 (사)부산소공연장연합회는 민간운영체의 소공연장 대표들을 중심으로, 그동안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위해 지역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돕고

시민들에게 문화향유 기반을 제공해, 사회적 관계성 회복을 위한 커뮤니티 매개공간으로서 지역문화 활성화에 앞장서왔다. 현재 류무룡 대표가 있는 콘체르트보눔을 비롯하여 게네랄파우제, 나눌락, 무사이, 스페이스 움, 음악당 라온, 오션컬처팩토리, 필슈파스, 비비아첼 챔버홀, BOF아트홀, 스페이스 수정, 마루아트홀 등 12곳의 공연장이 회원 소공연장으로 참여하고 있다.

1일 (일) 오후 6:00

포포 스튜디오

Let's be together

보컬리스트 겸 기타리스트인 불타(BULTA), 쿠나(KUNA), 스모킹 리(SMOKING LEE) 등 다양한 음악적 색깔을 가진 아티스트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음악을 존중하고 즐기는 무대, 블루스 기타 연주와 더불어 매력적인 보컬로 관객들에게 특별한 기억을 선사한다.



4일 (수) 오후 7:30

문화주소 동방

정자경 명창의 아리랑 여행 '우리것은 억수로 좋은 것이여!'

'소리를 선율에 담는다'는 뜻을 지닌 국악퓨전 앙상블 소선:담과 대표 정자경이 함께하는 국악가요 무대.

• 피아노/김영준 • 바이올린/정다혜



7일 (토) 오후 5:00

무사이

국악&재즈 공연 '결의 결따라'

다양한 '소릿결'을 통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음악을 함께 만들어 가며, 음악적 여정을 통해 '기승전결'의 의미를 담고자 모인 음악그룹 결의 무대. 다양한 장르의 편곡과 더불어 자작곡을 통해 즉흥적인 요소와 독특한 음색으로 매력적인 음악을 선사한다.



• 피리/황지원 • 피아노/장세연
• 해금/백진주 • 드럼/고명석
• 베이스/박주민

2일 (월) 오후 7:00

오페라바움

초록향기 콘서트 '아빠하고 나하고'

제2회 대전일보사 주최 전국 클래식기타 콩쿠르 대상 수상자인 고훈진과 고정현 부녀가 함께 하는 클래식 기타 듀오 무대.



5일 (목) 오후 8:30

재즈프레스

조윤성 듀오

스탠다드 재즈부터 팝, 가요까지 넓은 스펙트럼을 아우르는 재즈보컬리스트 위나와 세계적인 재즈피아니스트 조윤성이 만드는 환상적인 재즈와 팝의 향연. 리드미컬한 그루브와 몰입도 높은 라이브로 관객들을 재즈의 세계로 안내한다.



8일 (일) 오후 3:00

광안리남매

바람 속의 Jazz in 광안리

재즈 보컬리스트 선정을 주축으로 구성된 재즈 밴드 '선정 Quartet'의 무대. 전통 재즈 스탠다드를 기반으로 재즈의 즉흥적 요소를 뮤지션들의 훌륭한 테크닉과 호소력 있는 연주로 들려준다.



• 보컬/선정 • 피아노/김대규
• 베이스/박주민 • 드럼/고명석

3일 (화) 오후 5:30

아트센터

제10회 아지트 콘서트 '라루체의 사계, 네 가지 색깔의 음악'

소프라노 김보민, 박보희, 테너 김경민, 신대희로 구성된 팝클래식 라루체의 무대. 깊이 있는 음악적 해석과 풍성한 감성으로 한국 가곡부터 이탈리아, 독일 오페라 아리아, 뮤지컬 넘버까지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선사한다.



• 피아노/김아영

6일 (금) 오후 7:00

전포와일드클럽

브로드웨이 인 전포

감성을 나누고 소소한 위로를 건네는 음악으로 여러분의 하루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드릴 '은하수커피클럽'의 특별한 뮤지컬 갈라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관객에게 가깝게 다가간다.



• 보컬/박준수, 최지혜, 신세봉

9일 (월) 오후 8:00

뮤지크바움

살롱 바로크

Salon Baroque

시대 연주의 정확한 연구와 연주를 통해 지역



사회를 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고음악 단체로 성장해온 바로크양상을 동백의 무대로 바흐, 헨델 등 바로크 음악의 진수를 들려준다.

- 소프라노/이민정 • 카운터테너/김대경
- 테너/최원갑 • 베이스/박순기

10일 (화) 오후 6:00 게네랄파우제

Russian Quartet Night

바이올리니스트 최진영, 윤하은, 첼리스트 이유진, 비올리스트 이정우

로 구성된 듀 하모니(Du Harmony)의 무대. 러시아의 대표적인 작곡가 라흐마니노프와 보로딘의 현악사중주를 통해 강렬하고 세련된 러시아의 클래식 음악으로 관객들에게 들려준다.



11일 (수) 오후 6:30 유정1995

기억의 흔적

퍼커셔니스트 이영훈과 플루티스트 황미리, 피아니스트 김재준으로 구성된 아티스타의 무대. 우리 마음 속에 남아 있는 기억의 조각들을 음악으로 되돌아보는 시간으로, 영화 속 사랑의 순간들을 음악으로 되살리며, 감동과 여운을 전한다.



12일 (목) 오후 7:00 포레스트3002 야외 잔디밭 *우천시 오션컬처백토리

우리가 사랑한 영화 속 재즈: La La Land

피아니스트 강혜인과 보컬 정세미, 베이스

트 심규환, 드러머 홍영호, 색소포니스트 손태호로 구성된 강혜인퀸텟의 무대. 재즈부터 라틴, 팝, 월드뮤직까지 다양한 장르로 활동하며 음악적 스펙트럼을 쌓아온 강혜인퀸텟은 이번 무대에서 'La La Land'라는 타이틀로 특별한 재즈무대를 선사한다.

- 스페셜 게스트/댄서 김기준, 김수현



13일 (금) 오후 7:30 나놀락

월드 뮤직 밴드 파이프라인 '사랑, Love, Amour'

다양한 장르에 열려 있는 보컬 허유진과 기타, 피아노, 플루트 등을 여러 장르로 소화하는 멀티악기 연주자 김선훈, 자연의 소리까지 표현하는 퍼커셔니스트 김은호, 그리고 해금 연주자 강민정이 월드뮤직, 재즈, 크로스오버 등 다양한 장르의 무대로 관객들에게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14일 (토) 오후 6:00 마루아트홀

Rusty But Lusty 'Blues night'

Side Guitar와 즉흥적인 연주스타일을 기반으로 한 차별화된 사운드가 특징인 블루스 밴드 '김대승 밴드'의 무대로, 펑크음악과 독특한 스타일로 다양한 록밴드의 무대를 선보인다.

- 보컬, 기타/김대승 • 베이스/안건식
- 드럼/지유정



15일 (일) 오후 6:00 금정아트홀

부산플루트파르테 'Flute on Screen'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공연과 프로젝트로 통해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를 이끌고 있는 부산플루트파르테의 무대로, 친숙하지만 깊이 있는 음악으로 공감하며 플루트만이 가진 맑고 투명한 울림을 관객과 함께 나눈다.

- 연주/곽문정, 김성식, 신승민, 김보경



16일 (월) 오후 7:30 음악공간 길

부산동래국악단 '동래줄풍류'

전통기악, 성악, 춤 분야의 청년예술가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역 전통



예술의 계승과 창작에 힘쓰고 있는 부산동래국악단의 무대. 가야금 명인 강태흥으로부터 전해오는 민간줄풍류를 단아한 느낌을 주는 동래줄풍류를 들려준다.

- 가야금/최경철 • 저대/안창섭
- 거문고/김현경 • 가야금병창/김혜민
- 타악/정규락

17일 (화) 오후 7:30 필슈파스

루미너스 색소폰앙상블 '힐링 콘서트'

'어둠에서 빛나는'이라는 뜻으로, 지친 일상 속 사람들에게 한줄기 빛이 되고 싶다는 의미로 이름붙인 루미너스 색소폰앙상블의 무대.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영화 OST를 주제로 특별한 클래식 무대를 선보인다.

- 연주/이기봉, 박성주, 김수혁, 이민규



18일 (수) 오후 7:00 센텀아트홀

One(완:즐거움) Concert

'여러 악기가 모여 하나의 소리를 낸다'라는 의미를 지닌 앙상블 원잇의 무대.

- 바이올린/서혜은, 강소연
- 비올라/나윤채 • 첼로/윤주연
- 피아노/이아나



19일 (목) 오후 7:30 BOF아트홀

바로크에서 현대까지, 리코더의 비밀을 풀다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리코더라는 악기를 통해 관객과 소통하는 리코디스트 김정완의 무대. 일상 속에서 친숙하게 들을 수 있는 클래식 음악을 중심으로, 리코더의 새로운 매력을 전달할 수 있는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 리코더/김정완 • 피아노/김수윤
- 특별출연/이정일(기타)



20일 (금) 오후 7:30

아포지테라스

**로맨틱 클래식
Romantic Classic**

초여름 밤 낭만적인 분위기 속에서 향기로운 커피와 함께 즐기는 클래식 무대. '연결에서 창조로(From Connection to Creation)'라는 슬로건 아래 클래식과 우리를 연결하고자 모인 '지금 클래식'이 다채로운 무대로 관객과 만난다.

- 바이올린/심해수, 정진영
- 첼로/김하늘 • 비올라/양승호
- 피아노/박지연



21일 (토) 오후 5:00

콘서트보능

아로새기타

유쾌한 진행과 함께 다양한 연령층의 관객과 호흡하는 한국의 팝페라 듀엣 '휴(HUE)'와 매력적인 소리의 해금과 리드미컬한 퍼커션, 특색있는 피아노 소리로 사랑받고 있는 김은호 트리오의 무대.

- 휴(HUE)/김지현, 류무룡
- 김은호 트리오/퍼커션 김은호, 피아노 강매라, 해금 강민정



22일 (일) 오후 7:00

하프 데이즈

SLEEP TIGHT

보컬리스트이자 기타리스트 헤이 유니즌, 넌 내 꿈, 제이산&윤지가 선사하는 특별한 무대.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는 감정들을 숨기고 숨겨 음악에 담고, 감성적인 목소리로 듣는 이의 몰입을 자아내는 싱어송라이터들이 서정적인 포크와 강렬한 록으로 색다른 위로를 선사한다.



23일 (월) 오후 7:30

BFG음악홀

**Cordes et Souffle:
현과 숨결**

두 개의 현(기타, 감바)과 두 개의 숨(테너, 플루트)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하모니로 깊은 감동을 선사하는 BFG음악홀의 무대.



루트)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하모니로 깊은 감동을 선사하는 BFG음악홀의 무대.

- 테너/김정일 • 기타/김현지
- 플루트/권나영
- 기타, 비올라 디 감바/박정현

24일 (화) 오후 7:30

스페이스 수정

Refreshing Summer Pieces

악보에 충실하고 정확한 해석과 다양한 음악적 색채를 통해 세련된 연주를 들려주고 있는 힐앤힐스 뮤직 앙상블의 무대. 반복되는 일상에 지친 관객들에게 음악을 통한 힐링과 치유의 시간을 제공한다.

- 피아노/곽수현 • 바이올린/김상희
- 첼로/심지현



25일 (수) 오전 11:00

박물관카페 알라딘

초여름에 떠나는 빈 여행

요한 슈트라우스 2세 탄생 200주년을 맞아 프로젝트 아우르다와 떠나는 빈 음악여행.

- 피아노/김은희, 주은정 • 비올라/남정은



26일 (목) 오후 7:00

뮤지카코스

**깊어가는 초록,
첼로의 울림**

섬세한 감정과 뛰어난 음악적 해석력으로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이며, 깊이 있는 음악을 통해 많은 관객들에게 울림과 감동을 주는 첼리스트 양옥진과 피아니스트 박민선의 무대.



27일 (금) 오후 7:30

스페이스 음

메츠클라와 탱고에 빠지다

클래식과 재즈 전공자들이 만나 열정적인 탱고



고음악을 새롭게 선보이고 있는 5인조 오리엔탈 탱고음악팀 메츠클라의 무대로, 지금까지 경험한 적 없는 탱고음악과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선사한다.

- 피아노/윤혜빈 • 바리톤/김경한
- 클래식기타/고정현 • 색소포/이기봉
- 콘트라베이스/한도경

28일 (토) 오후 7:00

비바아첼 챔버홀

**2025 VIP 실내악
페스티벌**

정기 연주회와 지역 사회를 위한 음악 나눔 활동을 통해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에 기여하고 차세대 음악 인재들에게 무대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음악 문화의 지속적인 발전에 위해 노력해온 비바아첼 챔버홀의 실내악 페스티벌.

- 바이올린/김덕우, 이신규, 이진, 시명윤, 장은아
- 비올라/조우태 • 첼로/조명환
- 피아노/정은정



29일 (일) 오후 5:00

더 락

**양선호 밴드 '김광석
다시 그리기'**

영원한 가객 김광석의 음악을 통해 따뜻한 기억과 그리움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양선호 밴드의 '김광석 다시 그리기'.

- 노래, 기타/양선호 • 피아노, 기타/김동욱
- 퍼커션/최순안



30일 (월) 오후 7:00

나무의자

**마음버스 타고
음악여행**

어쿠스틱한 사운드를 바탕으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노래를 만들고 있는 어쿠스틱 밴드 마음버스의 무대로, 따뜻한 멜로디와 진솔한 가사로 관객들에게 위로와 공감을 전한다.

- 보컬, 기타/차은결, 최근호
- 보컬/이경은 • 퍼커션/이영훈



시대와 장르, 세대와 감정을 잇다 금정 클래식 위크 2nd. 이음

일 시 6월 26일(목)-28일(토)

장 소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은빛샘홀

입장료 R석 4만원, S석 2만원(단, '어린이를 위하여'는 전석 3만원)

문의 금정문화회관 519-5661

금정문화회관의 새로운 음악축제 '금정 클래식 위크' 두 번째 무대가 6월 26일부터 사흘간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과 은빛샘홀에서 펼쳐진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선보이는 '금정 클래식 위크'는 올해 '이음'이라는 주제로, 서로 다른 시대와 장르, 세대와 감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주는 다섯 개의 프로그램을 통해 관객들에게 따뜻한 울림을 전하고, 음악을 통해 마음을 잇는 즐거운 무대를 선사한다.

올해 음악제 역시 지난해에 이어 작곡가 손일훈이 음악감독을 맡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자신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세련된 감각으로 음악 활동 중인 손일훈은 작곡가뿐만 아니라 음악감독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음악감독 손일훈

개막공연 '꿈, Rêverie'

6월 26일(목) 오후 7:30 금빛누리홀

개막공연 '꿈, Rêverie'에서는 세계적인 재즈피아니스트 조윤성과 콘트라베이스리스트 전창민, 드러머 신동진으로 구성된 조윤성 트리오가 카운터테너 이동규와 함께 바로크와 재즈의 색다른 만남을 선보인다. '파리넬리의 환생'이라는 최고의 찬사를 받으며 카운터테너에 대한 선입견을 바꿔놓은 이동규는 가느다란 현의 울림처럼 섬세하면서도 유려한 감성 표현과 역동적인 창법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여기에 엄청난 에너지로 관객을 압도하는 클라리네티스트 김우연, 그리고 '금정 클래식 위크' 음악감독이자 작곡가인 손일훈이 게스트로 참여하여 드뷔시와 라벨, 포레, 퍼셀, 메시앙, 손일훈 등 프렌치 클래식부터 영화음악, 현대음악까지 그 어디서도 들어본 적 없는 특별한 무대를 만든다.



피아노 조윤성



테너 이동규 © Sangwook Lee

어린이를 위하여 '오, 해피데이'

6월 27일(금) 오전 10:30 은빛샘홀

지난해 '금정 클래식 위크'에서도 어린이와 가족 관객의 많은 호평을 받았던 인기 시리즈 '어린이를 위하여'는 올해도 변함없이 관객들을 찾는다. '어린이를 위하여'는 평소 공연장을 찾기 힘든 영유아 세대를 포함하여 전 연령의 관객들이 객석에 앉아 자유롭게 음악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아이들의 마음에 클래식이 라는 마법을 심어주는 키즈 클래식 팀 '르 뽀띠 앙상블'이 '오, 해피데이'라는 주제로 무대를 꾸민다. 바이올리니스트 최지희, 첼리스트 이호찬, 피아니스트 김혜빈으로 구성된 르 뽀띠 앙상블은 그동안 재미있는 해설과 상

상 가득한 무대를 통해 아이들을 클래식 세계로 이끌어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 등 익숙한 멜로디의 연주와 더불어 소프라노 이명윤과 함께 자주 흥얼거리던 노래를 클래식으로 만날 수 있다.

별난별곡

6월 27일(금) 오후 7:30 금빛누리홀

전 세계를 무대로 노래하는 '아시아의 종달새' 소프라노 임선혜와 클래식의 경계를 허물며 유머와 감동을 전하는 피아니스트 주형기가 이번 '별난별곡'을 통해 처음 호흡을 맞춘다. 임선혜는 고음악부터 20세기 음악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를 구사하는 세계 정상급 성악



소프라노 임선혜

가로, 특히 '고음악의 디바'로 불리며 고음악 최고의 소프라노로 명성을 쌓고 있다. 작곡과 편곡, 지휘 등 다방면에 재주가 많은 주형기는 우리에게 러시아 출신 바이올리니스트 알렉세이 이구데스만과 함께하는 코믹 클래식 듀오 '이구데스만과 주(igudesman & joo)' 공연으로 유명하는데, 클래식 음악과 코믹극을 퓨전한 이들의 공연은 유튜브를 통해 큰 주목을 받으면서 현재는 전 세계를 돌며 투어활동을 가지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우리나라 고전 가곡부터 동시대 작곡가들의 신작, 그리고 클래식과 재즈, 뮤지컬, 현대음악의 경계를 넘어 시대를 잇는 풍성한 프로그램까지 더해지면서 익숙하면서도 새롭고, 유쾌하면서도 따뜻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노래의 여정이 펼쳐진다.

순수의 음악

6월 28일(토) 오전 11:00 금빛누리홀

제2차 세계대전의 전운과 스탈린 체제의 압박 속에서도 아름다운 그 자체를 담아낸 쇼스타코비치의 '피아노 오중주', 그리고 길어지고 있는 전쟁과 앞으로의 미래가 불확실한 오늘날, 일상의 감정과 사유를 조용히 건네는 다니엘 린데만의 자작곡. 이 둘은 서로 다른 시대의 음악이지만 혼란스러운 시기 속에 작곡된 순수한 음악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번 무대 '순수의

음악'은 부산을 중심으로 한국과 독일을 오가며 활동 중인 트리오 헤르만과 동료 음악가들의 열정적인 연주, 그리고 방송인이자 피아니스트로 활동 중인 독일 청년 다니엘 린데만의 연주와 해설을 들을 수 있는 특별한 공연이다.



피아노 다니엘 린데만

바이올리니스트 임정은, 첼리스트 안수빈, 피아니스트 조민현으로 구성된 트리오 헤르만은 독일 데트몰트의 상징적인 건축물인 헤르만 동상(Hermannsdenkmal)에서 이름을 따온 피아노 트리오로, 동상이 지닌 의미처럼 음악적 뿌리와 배움을 소중히 여기며 꾸준한 연주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에게 TV예능프로그램 '비정상회담'으로 친숙한 다니엘 린데만은 2017년 첫 자작곡 'Esperance'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꾸준히 음반을 발매해 왔으며 무대 위에서 연주하며 관객과 활발히 소통해 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트리오 헤르만과 바이올리니스트 시명운, 비올리스트 황여진, 그리고 다니엘 린데만이 피아니스트로 참여, 환상적인 앙상블을 선사한다.

현 위의 다리

6월 28일(토) 오후 5:00 금빛누리홀

2025 금정 클래식 위크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무대로,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의 자랑스러운 연주자들이 금정 클래식 위크 오케스트라(악장 이재훈)와 호흡을 맞춘다. 당대 유럽 최고의 인기곡이었던 비발디 '두 대의 첼로를 위한 협주곡', '기타를 위한 협주곡', '네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은 첼리스트 이호찬, 이금빈과 기타리스트 김진세, 그리고 바이올리니스트 이재형, 이희명, 이경민, 임정은의 협연으로 만난다. 바흐의 'G선상의 아리아'와 호흡을 잇는 손일훈의 '오르막길'은 원래 비올라 다 감바를 위한 합주곡으로 작곡되었는데, 이번 무대에서는 비올리스트 이성진이 연주한다. 마지막 무대는 현악사중주를 현악오케스트라 버전으로 바꾼 보헤미안 작곡가 드 보르자크의 '아메리칸'으로, 이를 통해 고전과 현대, 유럽과 아메리카, 그리고 지금 한국까지 시공간을 건너는 '현 위의 다리'가 펼쳐진다.

독창적 공간의 상실과 약화한 상징 그리고 가능성

부산시립무용단 제91회 정기공연
<남풍-다시 만난 숨>

글 이상현 춤 비평가

지난 5월 9일, 10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 부산시립무용단 제91회 정기 공연 <남풍-다시 만난 숨>이 올랐다. 이 작품은 2019년 11월 제80회 정기 공연으로 올랐던 <南風-South Breeze>를 재구성한 작품이다. 두 공연을 비교해 살펴보면 이번 공연이 보여주는 차별성이 분명히 드러난다. 모든 존재의 기원인 '숨'이 삶의 역사에서 상처가 생겨 위태로워졌고, 치유를 통해 다시 만나는 세계를 꿈꾼다는 모티브는 두 공연이 같다. 구성의 기본 틀도 유지하였는데, '다시'라는 단서를 붙여 전작의 전작이 바탕이지만 단순한

재연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

전작의 특징은 공간 운용이었다. 무대 양옆을 열고 객석을 올려 객석과 무대의 공간 구분을 흐리게 만들었다. 이러한 방식이 기존 무대 공간이 가지고 있는 배타성을 무너트려 무대에서 벌어지는 작품의 주제를 관객과 내밀하게 나누는 장점이 있었다. 반면, 관객 입장에서는 작품을 관망하는 권리를 빼앗겼고, 모든 시각이 안무자의 의도 속에 포획되었다는 한계도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장단점은 그동안 부산시립무용단 공연에서 겪을 수 없었던 경험이어서 결론적으로 파격적인 시도라고 평가 받았다. 이번 공연에서 무대와 객석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분리했다. 무대 측면 다리 막을 흰 직사각박스로 처리했고, 바닥도 큰 사각으로 한정 지어놓았다. 이는 절제와 담백한 느낌을 주는데, 영상 투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디자인으로도 볼 수 있다. 이처럼 전작에 비해 시각과 감각 면에서 새로운 경험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관객은 작품의 서사와 연출, 안무를 중점적으로 보게 된다. <남풍-다시 만난 숨>은 추상적 주제에 어떤 이야기를 담으려 한 것으로 보였다. 이미지가 서사를 압도했던 전작에 비해 이미지가 약화했기 때문에 이야깃거리가 필요했을 것이다. 이 부분이 '다시'의 중요한 지점인데, 문제가 생겼다. 서사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키워드만 나열한 것처럼 모호했다. 무용 작품이 즐거움을 세세하게 담는 경우가 없다고 해도 각 장이 전환하면서 연결되는 개연성을 관객이 인지할 수는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약했다. 더구나 잦은 암전 때문에 각 장 사이의 단절감이 더하였다.

<남풍-다시 만난 숨>은 상징의 일관성 면에서 전작과 비교된다. 숨과 바람이 서로를 보충하며 상징성을 높인 전작과 달리 이번 공연에서 숨의 의미는 출연자가 숨을 불어넣는 직접적인 행위로 표현하였다. 이 표현으로 숨의 의미가 관객에게 쉽게 전달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 쉬운 전달이 좋은 것만이 아니고, 상징성에 한계를 갖게 하는 면도 있다. ‘날려 보낼게, 너에게 닿기를’처럼 숨이 인간 사이에 나누는 소통의 의미를 담기도 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그 자체로 모든 존재의 기원’이라고도 밝힌 숨의 깊은 상징 의미를 순식간에 축소해 버리는 상황이 생긴다. 이런 부분은 작품 안에서 상징의 일관성을 흔드는 요인이 된다. 상징성이 강한 주제를 끌고 가면서 상징 의미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주제를 온전히 전달하기 힘들다. 상징성의 일관성이 흔들린다는 의심은 작품 전개에서도 나타난다. 작품에서 숨은 빛, 바람, 소리로도 상징하는데, 이처럼 상징 요소가 많아지면, 동어반복이 생긴다. 관객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상징을 해석하는 데 지칠 우려가 있다. 각 장면의 배치와 전환도 혼란스럽다. 생명의 시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은 장면과 우주로 뻗치는 분위기, 아담과 이브를 연상하게 하는 장면 등이 의미의 경중을 구분하기 어렵게 나열했다. 작품을 구성하는 장면들은 의미의 무게가 각각 다르다. 이런 차이를 잘 이용하면 관객은 작품 흐름에서 리듬을 느끼게 된다. 이 리듬 안에서 긴장과 이완이 자연스럽게 생기는데, <남풍-다시 만난 숨>에서는 리듬은 덜하고 이미지와 서사가 뒤섞여 혼란스러워졌다. 정리하자면 먼저, 완결된 전작을 해체해 재

구성하면서 중요한 요소였던 독창적 공간이 허물어졌다. 다음으로 독창적 공간이 허물어지면서 상징성의 힘이 약화했다. 결국 독창적 공간의 상실과 약화된 상징으로 인해 전작에서 보여주었던 파격적인 미감과 담백하고 세련된 상징 활용이 약해진 것이다.

그렇다면 <남풍-다시 만난 숨>의 미학은 무엇일까. 가능성의 미학이다. 이정운 감독은 줄곧 브랜드화할 수 있는 작품 창작을 주장하면서 노력해 왔다. 그동안 작품들이 그 노력의 일환이었는데, 이정운 감독의 다른 작품보다 이 작품에서 브랜드화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보통 브랜드화 한 작품은 구성과 내용을 규격화해 언제 어디서 공연해도 크게 다르지 않게 하지만, 큰 틀을 유지한 채 변화를 주는 것도 또 다른 방식이 될 수 있다. 기원으로써 숨, 소통으로써 숨 같은 식으로 ‘숨’이라는 주제에 단서를 붙여 재구성한다면 작품마다 강조할 부분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남풍-다시 만난 숨>은 완성도 높은 작품을 해체해서 재구성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 준 것과 동시에 작품에 잠재한 브랜드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던 공연이기도 하다.

시립무용단이 부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비유적으로 ‘광장 한가운데 앉아 있다.’라고 할 수 있다. 무엇을 하든지 시민과 예술계의 관심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는 뜻이다. 관객은 시립무용단의 작품을 보고 부산 무용이 현재 보여 줄 수 있는 최대치가 어느 수준인지 가늠하기도 한다. 부산 무용의 거의 모든 요소가 집중됐기 때문에 잘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잘한다는 의미는 대중성과 예술성 그리고 새로운 시도 사이를 균형 있게 오간다는 말이다. 이번 공연에 대한 관객의 기대가 만만치 않았다. 100회 공연을 코앞에 둔 시점에 시립무용단의 예술적 역량과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싶어서이다. 그런 기대에 대한 반응은 다양해서 언급하지 않더라도, 90회, 91회 정기 공연을 기존 레파토리를 재구성한 작품으로 잇달아 선택한 기획이 과연 최선인지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 대중성, 예술성, 새로운 시도 중 무엇을 지향했는지 말이다.

부산문화회관

신소미 첼로 독주회

일 시 | 6월 3일 화요일 오후 7:30 **첼버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신소미 010-8826-8371



▼▼
 섬세한 올림과 사색의 결로 음악 속 이야기를 엮어가는 첼리스트 신소미 독주회.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및 동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조선일보 신인음악인으로 선정되며 주목받은 신소미는 부산신포니에타, 양주시립교향악단, UKO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을 비롯하여 대관령국제음악제 장학생 실내악 연주, 서울스프링 실내악축제 프린지 페스티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등 다양한 페스티벌에서 그만의 음악적 색채를 드러냈으며 미국 아스펜 뮤직 페스티벌 참가를 통해 국제적인 음악교류의 경험을 쌓기도 했다. 신소미는 현재 부산대학교 박사과정에 재학하며 연주자로서의 깊이와 시야를 확장해가고 있다.

- 피아노/강형은

J Choir 제3회 정기연주회

일 시 | 6월 6일 금요일 오후 5:00 **첼버홀**
 입장료 | 전석 2만원(5세 이상 관람)
 문 의 | 아트락 010-5468-4658



▼▼
 나주시립합창단 예술감독이자 부산국제합창제 예술위원장으로 있는 지휘자 전진을 중심으로 2020년 창단된 제이 콰이어(J Choir) 정기연주회.

1부에서는 인간 내면의 고난과 갈등,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되는 평안과 구원의 메시지를 섬세하고 정교하게 풀어낸 바흐의 모테트 'Jesu, meine Freude' 전곡으로 마련된다. 2부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감성과 정서를 담은 한국 창작합창곡들을 만날 수 있는 무대로, 자연과 삶의 그리움,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곡과 고요하지만 단단한 내면의 여정을 섬세한 시적 언어와 감각적인 선율로 풀어낸 곡을 들려준다.

- 지휘/전진 • 피아노/이경미
- 오르간/아렌트 호르스펠트
- 비올라 다 감바/강효정

제1250회 MBC목요음악회 **친친탱고와 함께하는 새로운 물결**

일 시 | 6월 5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청소년 5천원
 문 의 | (사)문화도시네트워크 790-1494



▼▼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해온 대한민국 대표 탱고 밴드 '친친탱고(CHINCHIN TANGO)'의 무대로 마련되는 제1250회 MBC목요음악회.

올해로 결성 5주년을 맞은 친친탱고는 그동안 춤을 위한 음악에서 벗어나 듣고 즐기는 음악으로 한 단계 발전시킨 작곡가 피아졸라의 수많은 명곡과 친친탱고의 자작곡을 통해 탱고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데 힘써왔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전통 탱고의 클래식 넘버와 함께 친친탱고의 오리지널 곡들, 그리고 바다의 서사에서 영감을 받은 신작들을 통해 관객들에게 '부산에서 시작된 새로운 탱고'를 들려준다.

- 작곡, 반도네온/김종완
- 피아노/이안나 • 바이올린/강소연
- 퍼쿠션/이영훈

뮤지컬 **달 사베트**

일 시 | 6월 7일-8일 토-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30 **대극장**
 입장료 | 1층 6만6천원, 2층 4만4천원(예매시 40% 할인)
 문 의 | (주)썸크브릿지 1533-7857



▼▼
 2020년 아동문학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추모상'을 수상한 백희나 작가의 그림책을 원작으로 한 뮤지컬 '달 사베트'.

'아주 무더운 여름날 밤, 달이 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기발한 상상에서 출발한 이번 작품은 백희나 작가 특유의 섬세하고 따뜻한 시선을 담은 원작의 감성을 그대로 무대 위로 옮겨 나눴다. 배려, 환경의 소중함을 전한다.

특히 옥토끼들의 사라진 집을 관객이 찾을 수 있게 돕는 참여형 공연으로, 아이들의 기발한 상상력을 자극하면서 마치 무대에서 움직이는 그림책을 보는 듯한 감성을 두드린다.

안정과 번영, 평화를 바라며

유문경-배정행 작곡 발표회

일 시 | 6월 5일 목요일 오후 7:00 **첼버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배대우 010-2038-5216



▼▼
 신학교육기관인 미국 커넬 대학교로부터 음악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받는 성악가이자 지휘자 배정행과 그의 부인 유문경이 함께 마련하는 작곡 발표회.

오랜 세월 성악가로 활동하며 독창회, 오라토리오, 오페라 등 2,000여 회가 넘는 무대에 서온 배정행은 부산신학대학교 교수, 부산시민오페라단 단장,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수석지휘자로 있으며 수많은 제자들을 양성해왔다. 유문경은 미국 웨이스 신학대학원 석사, 커넬대학교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동안 시 창작 및 작곡 활동에 힘써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배정행 선생의 애제자로 명예박사 학위를 함께 수여받는 피아니스트 문상인, 소프라노 강정원, 조아라, 드보라 중창단이 출연, 부부의 창작곡을 들려준다.

김미연-김미진 피아노 듀오 리사이틀

일 시 | 6월 7일 토요일 오후 5:00 **첼버홀**
 입장료 | 전석 1만원(현장구매)
 문 의 | 김미진 010-9390-4271



▼▼
 동아대학교 음악학과 출신의 피아니스트 김미연과 김미진의 두번째 피아노 듀오 리사이틀.

슈베르트의 '포핸즈(four hands)' 작품으로만 구성된 이번 무대는 부산 MBC 아나운서 정경진의 해설로 진행되며, 슈베르트의 작품을 통해 그의 인생, 사랑, 슬픔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다.

프로그램

슈베르트/오리지널 주제에 의한 8개의 변주곡 작품 35 D. 813

슈베르트/판타지 작품 103 D. 940

슈베르트/인생의 폭풍 작품 144 D.947

슈베르트/그랜드 론도 작품 107 D. 951

이윤지 피아노 리사이틀 건반 위의 스펙트럼

일 시 | 6월 8일 일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 장 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아트뱅크코레아 442-1941



▼▼
섬세하고 진정성 있는 연주로 깊은 감동을 선사하는 피아니스트 이윤지 독주회.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도독, 하노버 및 뮌스터 국립음대에서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이윤지는 국내외 콩쿠르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한편, 다양한 무대에서 활발한 연주 활동을 펼치며 “민기 힘들 정도의 비르투오조적인 연주”라는 극찬을 받은 바 있다.

풍부한 음악적 경험과 깊이 있는 해석으로 청중과 소통하는 이윤지는 이번 무대에서 하이든, 라흐마니노프, 아담스, 히나스테라 등 다양한 나라의 작곡가 작품들로 그녀만의 섬세하고 열정적인 연주를 선사할 예정이다.

부산예술고등학교 제37회 국악정기연주

일 시 | 6월 10일 화요일 오후 7:00 **중극장**
입 장 료 | 무료
문 의 | 부산예술고등학교 음악교육부 514-1232



▼▼
우리나라 예술 문화의 주역이 될 창의적 예술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부산

산예술고등학교가 그동안 뛰어난 기량을 선보이기 위해 마련하는 국악 정기연주회.

차세대 음악계를 이끌어 갈 국악 전공자들이 정악 합주에서부터 가야금 독주, 실내악, 가야금 협주, 관현악 합주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인다.

프로그램

정악 합주 ‘천년만세’

이건용/25현 가야금을 위한 변주곡 ‘한오백년’

박영란/최옥산류 가야금산조 협주곡 ‘바람’(부산 초연)

최성환/관현악 합주 ‘아리랑’

강상구/관현악 합주 ‘우리아리랑’ 등

- 정악합주 지도/정세희
- 관현악합주 지휘/백규진

부산예술고등학교 제37회 음악정기연주

일 시 | 6월 12일 목요일 오후 7:00 **대극장**
입 장 료 | 무료
문 의 | 부산예술고등학교 음악교육부 514-1232



▼▼
우리나라 예술 문화의 주역이 될 창의적 예술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부

산예술고등학교가 그동안 뛰어난 기량을 선보이기 위해 마련하는 음악 정기연주회.

차세대 음악계를 이끌어 갈 음악 전공자들이 관현악 연주에서부터 합창, 기악 및 성악 솔로, 협연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인다.

프로그램

프로코피예프/피아노 소나타 6번 작품 82

지혜정/담쟁이

벨리니/오페라 ‘몽유병의 여인’ 중 ‘아, 믿을 수 없어라...아, 끝난게 아니었어’

시벨리우스/바이올린 협주곡 라단조 작품 47

베토벤/교향곡 제9번 ‘합창’ 중 ‘환희의 송가’ 등

- 관현악지휘/오창록
- 합창지휘/김일두

낭만주의 거장 차이코프스키&라흐마니노프

일 시 | 6월 14일 토요일 오후 4:00 **대극장**
입 장 료 | VIP석 11만원, R석 9만원, S석 6만원, A석 4만원
문 의 | (주)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02-6292-9366



▼▼
‘낭만’의 사조를 담은 작곡가의 유명 작품을 한데 모아 들려주는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의 대표 레퍼토리 ‘낭만주의 거장’ 시리즈.

이번 무대에서는 격정과 서정의 만남,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과 피아노의, 피아노에 의한, 피아노를 위한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2번’, 격정과 우아함이 교차하는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3번’을 들려준다.

특히 테크닉과 풍부한 감성표현으로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러시아 피아니스트 일리야 라쉬코프스키와 볼프르트 멤버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양정윤이 협연자로 무대에 선다.

- 지휘/최영선

2025 한국가곡 대축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일 시 | 6월 15일 일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 장 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문 의 | KNN방송교향악단
850-9568, 010-7990-9568



▼▼
KNN방송교향악단이 마련하는 한국가곡의 향연 ‘2025 한국가곡 대축제’.

이번 무대에서는 특히 한국가곡 장르에서 섬세하고 감성적인 해석으로 많

은 사랑을 받고 있는 소프라노 이해원과 소프라노 최정원, 테너 이응광과 유립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한국가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소프라노 지오마르 칸토(Guimar Canto), 테너 호세 다리오 카노 디아즈(Jose Dario Cano)가 출연,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첫사랑’과 같은 최고의 명곡을 탄생시킨 K-ARTPOP의 선두주자 작곡가 김효근의 명곡들과 윤학준, 조혜영, 이원주, 김주원, 정한호 등 최근 신작 한국가곡의 붐을 일으키고 있는 작곡가들의 대표곡들을 들려준다.

- 지휘/서희태

세계적인 바리톤 고성현과 함께하는 오페라 산책

일 시 | 6월 15일 일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 장 료 | 일반 5만원, 학생 2만원
문 의 | KSH 오페라아카데미
010-9940-1201



▼▼
오랫동안 부산오페라아카데미로 오페라 교육과 인프라 구축에 큰 역할을 담당해온 KSH 오페라아카데미(오페라 감독 홍지혜) 정기연주회.

서울과 부산 오페라아카데미 합동 연주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서울과 부산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성악가들과 오페라 코치, 그리고 드라마틱 중국 테너가 출연, 오페라 ‘라보엠’, ‘맥베드’, ‘돈 조반니’, ‘삼손과 데릴라’, ‘루이스 밀러’, ‘시몬 보카네그라’, ‘나비부인’,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오셀로’ 등 다채로운 오페라 세계로 안내한다.

특히 세계적인 바리톤 고성현이 출연, 상세한 해설과 함께 오페라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눈다.

제15회 부산시 구·군 여성연합 합창페스티벌

일 시 | 6월 17일 화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 장 료 | 무료
문 의 | 부산시 여성연합합창단 연합회장
안지혜 010-3882-0228



부산 구·군에서 활동하는 여성합창단들이 합창으로 하나 되는 '제15회 부산시 구·군 여성연합합창페스티벌'.

출연

부산시 여성연합합창단, 기장 해송 여성합창단, 남구립 오륙도 여성합창단, 사상 구립여성합창단, 강서구 여성합창단, 서구 구립여성합창단, 부산진구립 피오레 여성합창단, 동래구 옥샘여성합창단, 북구 구립여성합창단, 중구 참솔 구립여성합창단, 영도구 구립여성합창단, 사하구 장미 여성합창단, 금정구 구립여성합창단, 수영구 여성합창단, 연제구 여성합창단, 해운대 구립여성합창단

판여는 소리 3

말소리 행네나고! 걸음걸이 꽃만 피소!

일 시 | 6월 18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 장 료 | 무료
문 의 | 영남성주굿소리보존회
010-2596-6740



영남성주굿소리보존회 대표이자 현재 국가무형유산 진주삼천포농악 전승교육사로 있는 조갑용 선생의 '판여는 소리'.

조갑용 선생은 서울국립국악원 수석, 경기도립국악단 악장을 역임한 후 영남성주굿소리의 근원인 부산에 내려와서 영남 특유의 공작은 소리와 농악, 사물놀이를 전승, 보급하며 영남지역의 소리를 널리 알리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조갑용 대표의 기품있는 아쟁연주와 더불어 대금병주, 그리고 그의 평생 동반인 이부산 선생과 함께 연륜과 감동이 있는 무대를 선사한다.

닥터스 심포닉 밴드 제22회 정기연주회

일 시 | 6월 19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 장 료 | 무료(선착순 입장)
문 의 | 닥터스 심포닉 밴드 010-9458-9258



1999년 부산, 경남지역의 사들과 음악 전공자들이 주축이 되어 창단한 닥터스 심포닉 밴드 정기연주회.

닥터스 심포닉 밴드는 2002년 창단연주회를 시

작으로 매년 정기연주회와 부산시 의사회, MBC 목요일음악회, 서울 코엑스 대한의사협회 100주년 초청공연, 각종 지역축제 등 다양한 무대에서 관객과 소통해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20세기를 대표하는 미국의 작곡가인 로이 앤더슨의 '나팔수의 휴일'을 비롯하여 팝송 및 라틴음악, 영화 OST, 가요 등 우리 귀에 친숙한 프로그램으로 흥겨운 무대를 꾸민다.

• 단장/조성락 • 지휘/정홍기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오페라 여행

오페라 A to Z

일 시 | 6월 20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 장 료 | VIP 7만원,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문 의 | 부산문화 1600-1803



올해로 설립 30주년을 맞는 공연기획사 '부산문화'가 30주년 기념무대로 마련한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오페라 여행'.

'오페라 A to Z'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국내 최고 실력의 성악가들이 모차르트, 푸치니, 베르디, 비제의 인기있는 오페라 아리아를 노래하며, 특히 전문 해설자가 영상과 함께 오페라의 스토리를 소개하면서 청중들이 오페라를 더욱 쉽게 이해하고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

- 지휘/이동신 • 해설/김성민
- 소프라노/김유섬, 박은주, 박현진, 김소율
- 테너/김충희, 김준연
- 바리톤/이광근, 문정현
- 연주/아르떼오케스트라

부산장로성가단 제20회 정기연주회 여정

일 시 | 6월 21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 장 료 | 무료
문 의 | 아트락 010-5468-4658



올해로 창단 20주년을 맞은 부산장로성가단 정기연주회 '여정'.

지난 1986년 교단과 교파를 초월, 장로 36명이 모여 결성한 부산장로성가단은 이듬해 창단기념공연을 가진 후 그동안 정기연주회와 해외 연주, 국가 조찬 기도회를 비롯한 교회 방문 찬양, 군부대, 방송국, 대학 등 다양한 기관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노래해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2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여정을 되돌아보며 올림과 감동이 있는 무대를 선사한다.

- 지휘/손동현
- 반주/이주화

한국예술가곡협회 제3회 정기연주회

우리 가곡의 향기

일 시 | 6월 21일 토요일 오후 4:00 챔버홀
입 장 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이지무소오페라단 010-9550-4649



창단 3주년을 맞이한 한국예술가곡협회가 대표적인 한국가곡 작곡가 4인의 작품들로 꾸미는 특별한 무대 '우리 가곡의 향기'.

김동진, 이수인, 황덕식, 윤학준의 대표적인 작품을 회원 성악가들의 연주로 멋진 무대를 선사한다.

프로그램

김동진/목련화, 수선화, 신아리랑, 가고파
황덕식/황홀한 기다림, 애모, 흔적
이수인/내 마음의 강물, 고향의 노래
윤학준/마중, 별, 잔향, 나하나 꽃피어

- 소프라노/이은미, 최화숙, 한인숙, 이수진, 박해미, 이동애, 정애린

- 테너/조성흥, 윤석
- 바리톤/이석영 • 베이스/손욱, 김태형
- 피아노/최성근, 이현아

제22회 부산울산원음합창단 정기연주회 이 마음 이 정성을 바치오리니

일 시 | 6월 22일 일요일 오후 3:00 대극장
입 장 료 | 무료
문 의 | 부산울산원음합창단 245-0717



원불교를 세상에 알리는 문화사절단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부산울산원음합창단 정기연주회. 부산울산원음합창단은 1973년 창단 후 5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을 이어온 합창단으로, 세계합창올림픽대회에서 두 차례 은상을 획득한 실력파이기도 하다.

이번 무대에서는 성가 및 가곡, 민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객과 만난다.

- 지도교무/한도은
- 단장/류현호
- 지휘/이은정
- 피아노/조은지
- 트레이너/곽동민

소프라노 김미정 독창회

일 시 | 6월 24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 장 료 | 전석 2만원(단체 및 학생 50% 할인)
문 의 | 브릴란떼 오페라먼트 508-0459, 010-9345-0459



독보적인 음색과 섬세한 표현력으로 깊이 있는 음악을 선보이는 소프라노 김미정 독창회.

부산대학교를 졸업하고 도미,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과 베르첼리 비오프 아카데미에서 수학한 김미정은 에르바 국제성악콩쿠르에서 1위 및 최고의 목소리상을 수상하는 등 다수 국제콩쿠르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실력파 성악가이다.

김미정은 브릴란떼 오페라먼트의 단장으로서 지역 오페라 활성화와 클래식 공연 발전에도 힘써 오고 있다. 국내외 가곡 및 오페라 아리아로 진행되는 1부 무대에 이어 2부에서는 테너 홍정표와 함께 도니제티의 오페라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갈라공연을 선보인다.

- 피아노/이수진
- 플루트/김지문
- 클라리넷/박미현

DÓNÓ 제3회 정기연주회

멘델스존에서 메노티까지 100년

일 시 | 6월 24일 화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 장 료 | 초대
문 의 | DÓNÓ 010-4484-8812



소프라노 이승은, 피아니스트 김현정, 첼리스트 정혜주로 구성된 DÓNÓ의 세 번째 정기연주회.

이승은은 부산대학교와 한양대학교 대학원, 뉴욕주립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오페라 주역 및 오라토리오 독창자로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김현정은 연세대학교와 독일 프라이부르크 국립음대, 만하임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현재 한국리스트협회, 부산피아노노유협회, 독일가곡연구회 회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혜주는 부산대학교와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도담양상블원, S'hello Trio 단원, UKO 오케스트라 수석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낭만파 시대 작곡가인 멘델스존부터 현대음악작가 메노티까지 구노, 바버, 쇼스타코비치 등 동시대 작곡가들의 곡을 들려준다.

부산하모니합창단 제21회 정기연주회

새로운 도전

일 시 | 6월 25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 장 료 | 초대
문 의 | 부산하모니합창단 610-1304
jaejunguri@naver.com



부산을 대표하는 민간 혼성 합창단인 부산하모니합창단이 성년을 지나 새로운 20년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한 특별한 무대.

2003년 창단한 부산하모니합창단은 지난 20년 동안 정기연주회를 비롯 미국, 이탈리아, 독일 등 해외 연주와 국내외 합창제, 초청연주회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민간합창단으로는 최초로 외국인 객원지휘자를 초청, 필리핀 합창계의 '마이더스 손'이라 불리는 지휘자 애나 타비타 피케로(Anna Tabita Piquero)와 함께 합창음악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경험할 수 있으며, 2025 하모니창작합창 작곡공모 당선작을 상임지휘자 김강규의 지휘로 만날 수 있다.

- 피아노/김민선

박정희 피아노 리사이틀

일 시 | 6월 26일 목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 장 료 | 전석 3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아트뱅크코레아 442-1941



명확한 해석과 음악적 균형으로 강력한 마력을 뽐내며 끊임없는 열정을 보여주고 있는 피아니스트 박정희 독주회.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도미, 보스턴 뉴잉글랜드 음악원에서 석사학위(MM)와 Graduate Diploma, 론지 음악원에서 Artist Diploma, 보스턴 대학교에서 박사학위(DMA)를 취득한 박정희는 2012년 금호아트홀에서의 독주회를 시작으로 매년 다양한 레퍼토리로 서울과 부산에서 연주 활동을 가져오고 있다.

현재는 연주 활동과 더불어 연재공동체라디오 우리FM 106.3MHz '클래식여행' 방송진행자로도 활동하면서 동아대학교 교수로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홀튼심포니오케스트라 제3회 정기연주회

운명을 넘어, 한결을 더

일 시 | 6월 27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 장 료 | R석 5만원, S석 3만원
문 의 | 홀튼심포니오케스트라 010-7232-9832



실력 있는 젊은 부산 출신 음악가 50여 명과 일반인 연주자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홀튼심포니오케스트라 세 번째 정기연주회.

홀튼심포니오케스트라는 부산예술고 음악부장 김태하 지휘자, 악장 조무종, 사무국장 이민경을 중심으로, 그동안 '더 가까이 음악'이라는 모토처럼 오케스트라와 합창음악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1부 '운명의 흐름'에서는 갈란테의 '제네시스', 베토벤 '교향곡 제5번' 등을 통해 운명을 극복하는 인간 정신을 표현하고, 2부 '기억과 희망'에서는 홀튼피아노와 함께 감성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며 작곡가 김호근, 윤학준, 그리고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으로 무대를 마무리한다.

2025 부산 VIP 실내악 페스티벌 I

Baroque to Romance

일 시 | 6월 27일 금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3만원(학생 30% 할인)
문의 | 비바아첼 070-7537-1248



음악을 사랑하는 부산의 젊고 실력있는 음악인들이 중심이 되어 2024년 11월 창단한 비바아첼 인터내셔널 필하모닉(Vivaacell International Philharmonic:VIP)이 마련하는 실내악 페스티벌 ‘2025 부산 VIP 실내악 페스티벌’.

‘Baroque to Romance’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바로크 시대의 정제된 아름다움부터 낭만주의의 풍부한 감성에 이르기까지 시대를 넘나드는 음악의 여정을 담아낸다.

- 음악감독/김덕우(중앙대 교수)
- 바이올린/이진 • 피아노/정은정
- 비올라/이신규 • 첼로/조형준

부산시민회관

가족뮤지컬 슈퍼윙스 초능력 곤충 대소동

일 시 | 6월 7일-8일 토-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30 **소극장**
입장료 | 전석 5만원
(24개월 이상 관람, 예매시 할인)
문의 | (주)더화랑이엔티 1800-6567



슈퍼윙스와 곤충 친구들이 함께하는 가족뮤지컬 ‘슈퍼윙스-초능력 곤충 대소동’.

슈퍼윙스의 9번째 시즌 공연으로, 기존 슈퍼윙스 세계관에 초능력을 더한 곤충 캐릭터들이 등장, 판타지와 유머, 모험이 어우러진 더욱 업그레이드된 무대가 펼쳐진다.

곤충 왕국에서 열리는 전설적인 대회 ‘최강 곤충 선발전’. 뛰어난 능력을 가진 곤충들이 참가하여 아름다움, 힘, 그리고 협동심을 겨루는데, 이때 슈퍼젤리와 골든보이가 등장하면서 슈퍼윙스의 가장 짜릿한 미션이 시작된다.

플루티스트 정승찬 제10회 LAST CONCERT

일 시 | 6월 28일 토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의 | 아트락 010-5468-4658



(사)아르스챔버오케스트라 플루트 수석 및 객원 지휘자, 채움오케스트라 음악감독으로 있는 플루티스트 정승찬 독주회.

고신대학교 기악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도음, 부르겐란트 주립음대아비엔나 시립음대를 졸업한 정승찬은 그동안 독주회 및 기획연주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으며, 고신대학교 초빙교수로 후진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플루티스트로서의 마지막 독주회이기도 한 이번 무대에서는 그간의 음악적 여정을 되돌아보는 다양한 곡들과 함께 제자들과의 합동무대 등 색다른 무대를 선사한다.

우주 매직쇼

일 시 | 6월 14일 토요일 오후 2:00, 4:30,
15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소극장
입장료 | 전석 5만원
(24개월 이상 관람, 예매시 할인)
문의 | 우주아트 070-4202-2200



아이들이 상상하던 우주 여행을 마술로 풀어낸 환상의 무대, 마술사 현철용의 ‘우주매직쇼’.

마술과 우주과학이 융합된 이번 무대는 달토끼, 외계인, 날 마스트롱 등 상상 속 캐릭터들을 찾아 떠나는 이야기형 마술쇼로, 신비롭고 감성적인 무대를 선사한다.

세계마술올림픽 은메달 수상 경력을 지닌 마술사 현철용은 세계 12개국 초청, 5000회 이상의 공연을 통해 실력을 인정받은 명실상부 최고의 마술사로, 특히 레이저 퍼포먼스와 대형 마술 등 화려한 무대장치와 함께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교육적이고도 감동적인 공연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2025 Project: Tchaikovsky

일 시 | 6월 29일 일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의 | 단장 오민성 010-4725-7714



클래식 음악 애호가 및 부산, 경남지역의 여러 단체에서 꾸준히 활동 중인 비전공자들로 결성된 Project X Orchestra in Busan의 무대.

부산 아마추어에서 한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레퍼토리를 도전하기 위해 모인 프로젝트 오케스트라로, 아마추어 오케스트라에서는 난이도 및 규모 문제로 쉽게 접하고 연주할 수 없던 곡들을 실현함으로, 부산, 경남지역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발전의 주춧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KNN교향악단 부지휘자 박진이 지휘하고, 순수 국내파 K-Classic 선두주자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의 협연으로, 러시아가 낳은 가장 위대한 작곡가 차이콥스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 지휘/박진 • 협연/신지아

지브리&디즈니 OST 콘서트

일 시 | 6월 15일 일요일 오후 4:00 **대극장**
입장료 | VIP 1만원, R석 9만원, S석 6만원,
A석 4만원
문의 | (주)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02-6292-9366



‘스튜디오 지브리’와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 명작들의 사운드트랙을 풀편성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할 수 있는 ‘지브리&디즈니 OST 콘서트’.

지휘자 최영선이 이끄는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가 연주하고 뮤지컬 ‘팬텀’의 여주인공 ‘크리스틴’ 역으로 화려하게 데뷔한 후 최근 ‘미스트롯 3’에 출연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뮤지컬배우 김수와 색소폰리스트 조세형이 출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고전의 명작부터 최신 인기작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다.

- 지휘/최영선
- 뮤지컬배우/김수 • 색소폰/조세형
- 연주/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음악

제501회 가람초청음악회

재즈 콘서트 Hot Jazz Swing

일 시 | 6월 1일 일요일 오후 6:00 가람아트홀
입 장 료 | 전석 2만원
문 의 | 가람아트홀 010-8697-3325



재즈 스탠다드의 깊이를 탐구하고 전하는 Busan Standard Jazz Ensemble의 재즈 콘서트 'Hot Jazz Swing'.

Busan Standard Jazz Ensemble은 스윙의 리듬, 감미로운 멜로디, 자유로운 즉흥 연주가 어우러지는 앙상블로, 그동안 재즈의 황금기를 대표하는 명곡들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 다양한 편성으로 관객과 소통해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스윙, 비밥, 보사노바 등 다양한 스타일의 재즈를 감상할 수 있다.

- 음악감독 및 반주/타경주
- 피아노/최예찬, 박예주, 김선율, 박현진
- 보컬/이지윤 • 기타/박찬호
- 베이스/박경윤 • 드럼/정승구

6월 금정수요음악회

일 시 | 매주 수요일 오후 7:30(7월 공연없음)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 장 료 | 전석 1만원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4



4일(제891회) 앙상블 구도의 유쾌한 장난 부산, 경남 출신의 청년 예술가들이 모인 앙상블로, 현악 4중주(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와 목관 5중주(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호른)로 구성된 9중주 팀인 앙상블 구도의 무대.

점점 좁아지고 있는 정통 클래식 앙상블 구도만의 해석과 음악으로 청중과 만나기 위해 마련한 이번 무대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틸 오일 렌슈피켈의 유쾌한 장난(노넬 편곡)'을 비롯하여 다채로운 곡을 들려준다.

- 바이올린/이명환, 김지윤
- 비올라/권나영 • 첼로/심여라
- 콘트라베이스/박예송 • 플루트/박한나
- 오보에/이현수 • 클라리넷/차호철
- 바순/김영두 • 호른/조성현

정혜민 더블베이스 독주회

일 시 | 6월 3일 화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 장 료 | 초대
문 의 | 정혜민 010-2905-1711



울산남구구립교향악단 단원이자 울산챔버오케스트라 수석단원으로 있는 더블베이스리스트 정혜민 독주회.

울산대학교 관현악과와 동의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한 정혜민은 울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단원으로 음악적 경험을 쌓았으며, USP챔버오케스트라,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선사인오케스트라 단원으로도 활동하며 음악적 역량을 강화했다. 정혜민은 현재 동의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부산여자대학교에 출강하며 후학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슈베르트의 작품 중에서도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아르페지오 소나타'와 헝가리 태생의 현대음악 작곡가 빌모시 몬탁의 '더블베이스 소나타'를 들려준다.

- 피아노/정은정

한정민 피아노 독주회

일 시 | 6월 6일 금요일 오후 5: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문 의 | 한정민 010-9566-0608



한양대학교 피아노과와 프랑스 파리 에콜 노르말 석사,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한국리스트협회 부산경남지부 예술

감독, 임원으로 있는 피아니스트 한정민 독주회. 한정민은 그동안 예술의전당, 해운대문화회관, 금정문화회관에서 다수 독주회를 가졌으며 한국리스트협회, 한국피아노학회 경남지부,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부산음악협회 정기연주회 및 초청연주회 등 다양한 무대에서 관객과 만나왔다. 현재는 경북대학교에 출강하며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프로그램

브람스/판타지 작품 116

쇼팽/판타지 작품 49

리스트/단테를 읽고-환상곡품 소나타.

우리가 사랑한 한국 드라마 OST 에피소드 1

일 시 | 6월 7일 토요일 오후 5:0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 장 료 | 전석 3만5천원
문 의 | 스테이지 M 0507-1338-4810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은 국내 드라마 인기 OST를 클래식 앙상블의 연주로 만날 수 있는 '우리가 사랑한 한국 드라마 OST 에피소드 1'.

감동적인 스토리 만큼이나 대중들의 큰 사랑을 받은 인기 드라마 OST 플레이스트를 선별, 어쿠스틱 악기의 깊고 풍성한 라이브 연주를 통해 가지지 않은 드라마의 여운을 음악으로 되살린다.

프로그램

키스 먼저 할까요? 선재업고 튀어, 별에서 온 그대, 사내맞선, 눈물의 여왕, 슬기로운 의사생활, 신사와 아가씨, 이태원 클라쓰, 최고의 사랑, 멜로가 체질

- 해설, 퍼커션/이상준 • 바이올린/이유진
- 첼로/박성근 • 피아노/김민주



18일(제892회) Quartet BCMS 정기연주회 'Dear Schubert' 부산체임버뮤직소사이어티(BCMS)의 리더와 수석으로 구성된 현악4중주

Quartet BCMS의 무대.

슈베르트의 '현악 4중주 제12번 작품 703'을 비롯해 다채로운 곡으로 현악 앙상블의 매력을 전해준다.

- 바이올린/김동욱, 조혜운
- 비올라/최영식 • 첼로/홍승아



25일(제893회) 지성호 바이올린 독주회 울산시립교향악단 악장이자 코리아나 챔버뮤직 소사이어티 멤버로 활동 중인 바이올리니스트 지성호 독주회.

이번 무대에서는 바흐의 솔로 파르티타 제2번 중 '사촌느'를 비롯하여 사라사테, 이자이, 생상의 곡을 들려준다.

- 피아노/김상희

해운대 비긴어게인

메츠클라&서빛나(전자바이올린)

일 시 | 6월 7일 토요일 오후 4:00

해운대문화회관 야외광장

입 장 료 | 선착순 무료

문 의 |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해운대문화회관 야외광장에서 펼쳐지는 야외 콘서트 '해운대 비긴어게인'.

정통 클래식 연주자들과 재즈 뮤지션들로 구성된 메츠클라와 전자바이올리니스트 서빛나가 출연, 시민들을 위한 열린 음악회로 꾸며진다.

바리톤 김경한(리더), 색소포니스트 이기봉, 클래식기타리스트 고정현, 피아니스트 윤혜빈, 베이스리스트 한도경으로 구성된 메츠클라(Mezcla)는 스페인어로 '혼합'을 뜻하는 말로, 탕고음악의 친숙함 속에서 리믹스를 통해 듣고 보는 즐거움을 선사해오고 있다.

전자바이올리니스트 서빛나는 그동안 다양한 축제 및 행사에 출연하며 음악을 통해 시민과 소통해오고 있다.

도서관 옆 음악당 두 번째 이야기

색채가 없는 노르웨이 숲

일 시 | 6월 12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 장 료 | 전석 1만원

문 의 | 문화유목집단동행 010-2026-8280



책과 음악의 특별한 만남 '도서관 옆 음악당' 두 번째 이야기.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본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노르웨이의 숲'과 '색채가 없는 다자키 쓰쿠루와 그가 순례를 떠난 해'를 중심으로 음악을 너무도 사랑한 무라카미 하루키의 책과 음악을 문화유목민 정두환의 시각으로 새롭게 해석하여 들려준다. 특히 이번 이야기는 바이올리니스트 이현우, 첼리스트 조명환, 피아니스트 정성혜의 연주가 함께 한다.

- 이야기/정두환(문화유목민)
- 바이올린/이현우 • 첼로/조명환
- 피아노/정성혜

을숙도문화회관 예술공감

일 시 | 6월 10일(화), 24일(화) 오후 7:3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 장 료 | 전석 1만원(예매시 20% 할인)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1~4

▼▼

우수한 지역 예술인을 발굴하여 공연 기회를 제공하는 2025 을숙도문화회관 예술공감.



10일(제68회) 바람이 머무는 날

한국가곡 및 세계 현대합창, 가요 등 관객들에게 따뜻한 음식과 아름다운 하모니를 들려주는 더하모니어스앙상블의 무대.

• 지휘/이정철

24일(제69회) 음악, 설레게 하는...



K-POP, 드라마 OST 등 감동과 위로를 전해주는 아름다운 곡들을 피아노 5중주의 연주와 해설로 감상할 수 있는 부산메트로폴리탄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무대.

2025 동래문화회관 목요상설음악회

아트살롱

일 시 | 6월 12일(목), 26일(목) 오후 7:3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입 장 료 | 무료

문 의 | 동래문화회관 550-6611



동래문화회관이 올 한해 지역의 우수한 예술인들과 실력있는 신진공연팀의 발굴을 위해 마련한 2025 동래문화회관 목요상설음악회 '아트살롱'.

12일(목) 부산동래국악단 '새벽 바람의 노래 II' 부산지역에서 활동하는 전통기악, 전통성악, 전통춤 분야의 청년예술가들로 구성된 부산동래국악단의 무대.

26일(목) 부산독일가곡연구회 '슈베르트의 모 든 것~! 슈비두바~'

슈베르트 가곡으로 꾸며지는 이번 무대는 다소 지루할 수도 있는 시와 음악의 향연을 재치있는 해설로 풀어가며 관객과 소통한다.

영도문화예술회관 수요상설공연 onStage

리듬사이트 안녕, 클래식? 나는 탭댄스야!

일 시 | 6월 11일 수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절영홀

입 장 료 | 일반 1만원(5세 이상 관람)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

탭댄스 전문 공연단체인 리듬사이트의 관객 참여형 공연 '안녕, 클래식? 나는 탭댄스야!'.

이번 무대는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교 친구들도 즐길 수 있는 무대로, 아이들의 정서발달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클래식'과 창의력과 리듬감을 길러주는 '탭댄스'를 접목하여 교육적이면서도 관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다.

1부 '안녕 클래식?', 2부 '나는 탭댄스야!', 3부 '안녕 클래식? 나는 탭댄스야!'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는 해설자의 교육적이면서도 흥미로운 설명과 함께 아이들이 직접 탭슈즈를 신고 탭댄스를 배워보는 등 관객들이 탭댄스에 대해 이해하고 함께 즐길 수 있다.

을숙도문화회관 제24회 라이징뮤지션 콘서트

배달의 쿠폰 추억의 음악을 신속 배달

일 시 | 6월 12일 목요일 오후 7:3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 장 료 | 전석 1만원(예매시 20% 할인)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1~4



바쁜 일상 속 수준높은 음악으로 '심'을 제공해온 '과르티트 드 콤마'와 함께하는 을숙도문화회관 라이징 뮤지션 콘서트.

2013년 현악4중주단으로 창단한 후 지금은 드럼, 오보에, 소리꾼 편성으로 확대된 과르티트 드 콤마는 그동안 영화음악, 드라마 OST, 대중가요 등 귀에 익은 다양한 레퍼토리와 편성으로 관객의 공감을 이끌어내며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추억을 되새기며 깊은 감성에 젖을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객과 만난다.

오페라페 콘서트 시즌2

오페라와 떠나는 인문여행

오페라 사랑의 묘약

일 시 | 6월 12일 목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 장 료 | R석 2만원, S석 1만원

문 의 |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콘서트 가이드 김성민과 함께 떠나는 오페라페 콘서트 시즌 두 번째 무대 '오페라와 떠나는 인문여행'. '오페라페'는 오페라 (Opera)와 예술(Arte)

의 합성어로, 두터운 마니아층을 보유한 해운대 문화회관만의 콘텐츠다.

이번 무대에서는 오늘날 가장 사랑받는 오페라 중 하나인 도니체티의 오페라 '사랑의 묘약'의 주요 아리아와 함께 상세한 해설로 인문학이 있는 오페라 속으로 음악여행을 떠난다.

- 콘서트 가이드/김성민
- 소프라노/소은경
- 테너/현동현
- 바리톤/최득규, 홍제만
- 피아노/김현서

아리랑이 진도복을 만나다2

일 시 | 6월 17일 화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문 의 | (사)아리랑보존회 부산지회

010-8581-9111, 010-2023-9110



아직 전해지지 않은 우리 고유의 아리랑을 발굴하고 역사 속의 아리랑을 연구하며 한민족의 삶과 애환이 담긴 아리랑을 널리 알리기 위해 설립된 (사)

아리랑보존회 부산지회(대표 서영숙)가 마련하는 특별한 무대.

(사)아리랑보존회 김영임 이사장의 대표곡 '회심곡'을 비롯해 해주아리랑, 밀양아리랑, 강원도아리랑 등 전국의 다양한 아리랑과 민요, 그리고 산조춤과 학춤, 진도복놀이(박관용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객과 만난다.

- 예술기획감독/서영숙
- 진도복감독/송해경(동래복소리 대표)
- 사회/김익현(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 이사장)
- 18현가야금/김철진

Klavierkonzert
mit lieber Freunden

일 시 | 6월 13일 금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문 의 | 박정난 뮤직솔레 음악원 010-2395-1103



피아노를 사랑하는 연주자들이 펼치는 무대로, 피아노 솔로에서부터 피아노 듀오, 클라리넷 독주까지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진다.

프로그램

드뷔시/네손을 위한 작은 모음곡 1, 4악장
쇼팽/스케르초 제2번 내림나장조 작품 31
크로머/클라리넷 협주곡 내림마장조 작품 36 1악장

스비리도프/네손을 위한 눈보라
쇼팽/왈츠 제10번 작품 69

- 연주/이유정, 하은정, 박정난, 정누리, 이원영, 박재영, 백찬미, 임하연

울속도문화회관 제15회 스페셜아티스트

마당극 울속도 愛 난리 Good

일 시 | 6월 17일 화요일 오후 7:30

울속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 장 료 | 1층 1만원, 2층 5천원(예매시 20% 할인)

문 의 | 울속도문화회관 220-5811~4



특별한 아티스트와의 만남으로 마련된 울속도문화회관 스페셜 아티스트.

이번 무대에서는 지난 1998년 설립된 후 오랜 시간 꾸준히 활동해온 퓨전 국악단 '망개'와 만난다.

첫째 마당 '만난 Day', 둘째 마당 'Jazz 한국', 셋째 마당 '신난 Day', 넷째 마당 '아름답 day' 등 제목만 들어도 관객들의 호기심을 끄는 이번 무대에서는 인기드라마 OST, Jazz와 국악의 콜라보, 퓨전국악과 B-boy의 매칭, 그리고 국악기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창작곡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한바탕 '난리'의 무대가 펼쳐진다.

장주에 챔버 리사이틀

일 시 | 6월 15일 일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 장 료 | 초대

문 의 | 장주에 010-5823-8565



풍부한 음색과 깊이있는 음악을 연주하는 바수니스트 장주에 리사이틀.

경북대학교 음악학과를 졸업하고 전문 연주자로써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장주에는 KNN방송교향악단 부수석, 아르떼오케스트라 수석 단원으로 활발한 음악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는 인지대학교 대학원 석·박사 통합과정에서 재학 중이며, 연주와 학문을 병행하며 바수 연주자로서의 음악적 역량을 더욱 넓히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전문연주자들과 함께 앙상블 무대를 선보인다.

- 바이올린/공귀주
- 비올라/김명복
- 첼로/이슬
- 오보에/이현수
- 클라리넷/백동훈
- 혼/강민주
- 피아노/함주연

그 열두 번째 이야기 '다부동의 기적'

향수

일 시 | 6월 18일 수요일 오후 5:0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문 의 | 부산가야금병창보존회 010-3589-6878



부산가야금병창보존회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마련한 특별한 무대.

'다부동의 기적'은 한국전쟁 당시 18일의 격전지에서 1만여 명의 용사가 잠들었던 다부동 전투 이야기를 예술로 승화시킨 작품이다.

특히 이번 무대는 국악과 국가안보를 대중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역사와 국악을 접목시킨 작품으로, 우리 민족의 정서를 잘 표현한 전통음악과 아픈 역사 이야기를 우리가락에 담음으로써 지난날의 아픈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는 뜻깊은 무대이다.

- 사회/박진희
- 출연/김현주, 최미선, 이미숙, 엄영진, 최서윤, 이병주, 안형수, 이상민 외

해운대문화회관 특별기획

해운(海雲)의 풍류(風流)

일 시 | 6월 17일(화), 19일(목) 오후 7:30, 21일(토) 오후 5: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 장 료 | R석(1층) 2만원, S석(2층) 1만원
문 의 | 해운대문화회관(051-749-7651)



해운대문화회관이 국악의 신명을 전하기 위해 특별히 기획한 국악 페스티벌 '해운(海雲)의 풍류(風流)'. 저마다의 개성 넘치는 무대로 관객들에게 가깝게 다가가고 있는 국악밴드 날라리와 쟁이, 밴드 날다, 가ैया 등 세 팀이 출연, 국악의 멋과 신명을 선사한다.

17일(화) Fusion Flow with 날라리와 쟁이 국악을 기반으로 한 퓨전 국악 밴드이자 태평소(날라리)와 아쟁(쟁이)을 중심으로 보다 신선하고 새로운 레퍼토리로 관객과 만나고 있는 '날라리와 쟁이'의 무대.

프로그램

인트로, 뱃놀이 블루스, 스무스하게, 보허자, 바람따라, 홀로아리랑, 홀리데이, 술래가 돈다

류근화의 대금

숨 VII 지음지기 (知音知己)

일 시 | 6월 20일 금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입 장 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아트플랫폼 유연 010-4947-4237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국악학과 교수로 있는 대금주자 류근화의 무대.

류근화는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수석, 한국예술종합학교 겸임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대금정악연구회 및 대금창작음악연구회 회장, KNU대금양상 및 대풍류악회 예술감독, 악회 '금만고' 동인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국악과 양악의 경계를 넘나들며 활발하게 활동해온 작곡가 김대성의 곡으로 꾸며진다.

- 대금/류근화 • 피아노/김명현
- 18현가야금/김철진

19일(목) 심청날다

우리에게 친숙한 민요를 신나는 밴드 음악으로 재해석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무대, 퓨전 국악밴드 '밴드 날다'의 무대. 오단해, 서진실 두 소리꾼이 선사하는 귀에 쏙 박히는 강렬한 판소리를 토대로,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

프로그램

꽤지나 칭칭, 둥둥둥 내딸, 소녀 심청, 중 올라간다, 심청 날다, 화초타령, 눈을 뜨고, 옹헤아

21일(토) GAIA Gala Concert

국악을 중심으로 다양성과 조화를 추구하며, 전통의 깊이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내고 있는 퓨전 프로젝트 가ैया의 무대. 가ैया는 완성도 높은 음악과 창의적인 시도를 통해 국악의 다채로운 매력을 관객과 함께 나누며, 감동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프로그램

동쪽으로 가는 여행자, Camellia 연화(蓮花), 강강, Spain, 한 폭의 바다, 애재(哀哉), 한량가, In-joy
• 대금, 소금/손한별(음악감독)
• 협연/명창 박성희

금정의 소리

일 시 | 6월 20일 금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문 의 | 금정구 생활문화연합회 사무국 010-9935-1478



금정구 생활문화연합회가 마련하는 특별한 무대 '금정의 소리'.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 민속놀이로 한해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지신밟기'를 비롯하여 우리민요와 살풀이, 그리고 지금은 사라져가고 있는 상여소리 재현 무대인 금정의 소리를 선보인다.

특히 고인의 넋을 달래고 극락세계로 천도하는 상여소리를 재현한 금정의 소리는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 가고자 소리꾼의 전통 예술로 만든 무대로, 평소에는 쉽게 만날 수 없는 무대이다.

프로그램

지신밟기, 액막이타령, 민요 '한오백년' '회심곡', 살풀이, 금정의 상여소리, 상여소리 마지막 달구지
• 명인/김홍재 • 소리꾼/여병준

2025 우크라이나 유니온 챔버 오케스트라 초청 음악회

일 시 | 6월 19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 장 료 | 전석 1만원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1~4



자포리자, 도네츠크, 리비우, 체르니우치, 하리키우, 크멜리니츠크, 이바노프란키브스크, 체르니우치 필하모니 등 우크라이나 교향악단의 수석 주자와 키이우 국립교향악단 악장, 단원들로 구성된 우크라이나 유니온 챔버 오케스트라 초청음악회. 2022년부터 대한민국-우크라이나 국제교류음악제 예술감독으로 있는 지휘자 김현국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현재 우크라이나 국립교향악단 솔리스트로 있는 올렉산드라 진첸코를 비롯하여 피아니스트 황성훈, 테너 김준연, 반도네오니스트 김종완과 바이올리니스트 정진경과 손혜림, 비올리스트 강수이, 첼리스트 김혜지로 구성된 에델현악사중단이 출연, 다채로운 곡을 들려준다.
• 해설/김영근 • 상임지휘/김현국

부산반주연구회 특별연주회

피아노로 듣는 오페라와 발레

일 시 | 6월 20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 장 료 | 전석 2만원
문 의 | 부산반주연구회 010-8852-4480



반주학위를 가진, 반주전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산반주연구회 회원들이 마련하는 특별한 무대 '피아노로 듣는 오페라와 발레'.

이번 무대에서는 음악코치의 관점에서 오케스트레이션의 분석과 다양한 악기들의 다층적인 음색의 표현 등 폭넓은 음악적 해석을 통해 주옥같은 오페라 서곡과 모음곡, 발레음악 등을 듀오 연주로 관객들에게 들려준다.

- 연주/박미은, 김주리, 심정은, 한혜진, 공소현, 김아영, 전보라

울속도문화회관 제35회 굿모닝콘서트

Reading Summer

일 시 | 6월 20일 금요일 오전 11:00

울속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 장 료 | 전석 1만5천원

(커피 포함, 예매시 20% 할인)

문 의 | 울속도문화회관 220-5811~4



자연 속 정원에 자리 잡은 울속도문화회관에서 모닝커피와 함께 공연을 즐기는 굿모닝콘서트, 로운아트 컴퍼니의 'Reading Summer'.

‘듣는 음악’에서 ‘읽고, 해석하고, 경험하는 음악’이 콘셉트로, 한 편의 공연이 곧 한 권의 매거진처럼 구성되어 다양한 음악 장르와 이야기를 에디터가 해설하며 관객에게 전달한다.

이름처럼 이로운 전달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 창립된 ‘로운아트 컴퍼니’는 사회와 예술을 잇고 후학을 양성하여 새로운 연결고리를 이어나가는 것이 목표로, 클래식 전공자와 실용음악 전공자가 콜라보하여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연주를 시도해오고 있다.

심정운 피아노 독주회

Abschied 작별

일 시 | 6월 22일 일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 장 료 | 초대

문 의 | 심정운 010-7103-7312



오스트리아 빈 시립음대학·석사, 독일 드레스덴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한세대학교, 부산예중·고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심정운 독주회.

‘Abschied(작별)’이라는 부제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 첫 곡으로 연주되는 슈만의 ‘Abschied’에서는 작별이 독일에서 매일 쓰이는 인사 ‘Auf Wiedersehen(또 만나요)’처럼 표현되며, 쇼팽의 ‘발라드 제3번’은 요정과 젊은 남자의 파괴적 작별을 소재로 하고 있다. 라벨의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에서는 작별의 또다른 모습일 수도 있는 어린 공주에 대한 추모를 담고 있으며, 베토벤의 마지막 피아노 소나타 제32번은 작별의 끝에는 또다른 시작이 기다리고 있음을 그려낸다.

제2회 김나영 가야금 독주회 잇고

일 시 | 6월 22일 일요일 오후 5:0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입 장 료 | 초대

문 의 | 기획 심진예 010-8668-5179



국가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산조 및 병창(김죽파류) 전수자로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가야금주자 김나영의 두 번째 독주회.

산조와 산조에 뿌리를 두고 이루어진 민속악을 이어오고, 이어가는 과정을 담아보고자 ‘잇고’라는 타이틀로 열리는 이번 무대는 부산에서의 첫 독주회로, 현시대 예인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현재의 민속악을 이어 과거·현재·미래를 연결하는 가고 역할로 프로그램을 구성, 산조의 전승 및 계승과 저변 확대에 뜻을 두었다.

- 사회/이영섭(영남대 교수)
- 아쟁/윤서경(국립국악원 민속악단)
- 거문고/이재하(국립국악원 민속악단)
- 장구/신원섭(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조윤희 서도소리

그리움의 소리, 서도에 물들다

일 시 | 6월 22일 일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 장 료 | 초대

문 의 | (사)향두계놀이 보존회 부산지회
010-2889-0349

평안남도 무형유산 향두계놀이 이수자이자 국가 무형유산 경기소리 전수자, 국가무형유산 서도소리 전수자로 있으며 (사)향두계놀이 보존회 부산지회장, 조윤희 경서도소리(시김새) 연구소 대표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소리꾼 조윤희의 서도소리.

이번 무대에서는 서도소리의 대표적 좌창 중 하나인 ‘초한가’를 시작으로 다양한 경서도 민요로 꾸며지는 1부 무대에 이어 2부에서는 농사와 관련된 전형적인 양식을 갖춘 ‘향두계놀이’, 그리고 3부에서는 국악실내악 ‘푸리’(이준호 곡)와 부산의 지명과 전설을 아리랑 가락에 담아 만든 창작곡 ‘해운대 아리랑, 태종대 아리랑(이상균 작사, 작곡)’ 초연무대를 선보인다.

금정문화회관 11시 브런치 콘서트

테마와 바리에이션

일 시 | 6월 24일 화요일 오전 11: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 장 료 | 전석 2만원(커피 포함)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1~4



작수 달, 마지막 주 화요일 열리는 고품격 브런치 공연, 금정문화회관 11시 브런치 콘서트.

지난 2012년부터 열어나온 11시 브런치 콘서트는

커피 한 잔의 여유와 함께 즐기는 일상 속 음악회로,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6월에는 음악적 통일성 속에서 다양성을 구현해내는 가장 오래된 방식인 ‘변주’를 주제로 설정, 다양한 변주곡을 선보인다.

바이올리니스트 정진희, 첼리스트 정광준, 피아니스트 진영선이 함께하며, 월간 객석 편집장인 송현민의 섬세하면서도 유쾌한 해설로 진행된다.

해운대문화회관 특별기획

모차르트 레퀴엠

일 시 | 6월 24일 화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 장 료 | R석 2만원, S석 1만원

문 의 |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해운대문화회관이 마련한 특별한 무대 ‘모차르트 레퀴엠’.

‘레퀴엠’은 가톨릭 장례미사를 위한 음악으로 시작

되어 서양음악사의 중요한 장르로 발전한 작품으로, 대표적 걸작으로 사랑받는 모차르트의 ‘레퀴엠’은 그의 마지막 작품이자 미완성으로 남아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김강규 지휘자가 지휘하는 부산지휘자합창단의 연주로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부산지휘자합창단은 부산시립합창단 수석 지휘자를 역임한 김강규와 작곡가 백현주가 뜻을 모아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합창지휘자들과 솔리스트를 중심으로 결성한 합창단이다.

2025 영화의전당 마티네 6월

삼현정의 11시 영화음악콘서트 **지구의 눈물**

일 시 | 6월 25일 수요일 오전 11: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 장 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재)영화의전당 780-6060



새롭게 리뉴얼된 부산가톨릭센터 소극장 ‘공간 101.1’ 상설공연으로 마련되는 ‘로사앤 아미치 (Rosa & Amici)’.

이번 무대는 소프라노 윤장미가 기획, 진행하는 예술가들의 음악 토크 콘서트 시리즈로, 매월 수준높은 음악과 대화를 통해 관객과의 새로운 예술적 소통을 시도한다. 5월에는 개그맨 전유성과 함께 러시아 옴스크 뮤직 페스티벌에서 만난 인연으로 결성된 쓰리 소프라노 윤장미, 전영미, 김경은이 출연, 각기 다른 분야의 예술과 이야기 어우러지는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연극

뮤지컬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일 시 | 3월 7일(금)-8월 31일(일) 수-금요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2:00, 5:00,
일요일 오후 2:00(월-화요일 공연없음)

KNN시어터

입 장 료 | 전석 6만원

(KNN시어터 카카오톡 친구추가 4만원)

문 의 | 극단 지우 664-8400



2022년 1월 종이책으로

출간되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국내에서 만 30만 권 넘게 판매된 황보름 작가의 동명 소설을 뮤지컬로 제작한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2024년 CJ문화재단 스테이지업으로 선정된 작품으로, 어떤 사건을 계기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휴남동에 서점을 오픈한 주인공 ‘영주’가 단골 손님들과 함께 고민과 위로를 나누며 용기를 얻는 이웃들의 연대기를 보여준다.

특히 원작을 제대로 살린 드라마와 귀에 쏙히는 가사, 아름다운 음악으로 초연부터 관객몰이에 성공하며 대학로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바 있다.

제14회 부산사람 이태석 기념 음악회

일 시 | 7월 2일 화요일 오후 7:30

부산콘서트홀 콘서트홀

입 장 료 | 초대(신청자에 한해 추천 후 개별공지)

문 의 | (사)부산사람이태석기념사업회
637-0125

‘한국의 슈바이처’라 불리며 의술과 음악으로 인류

애를 실천했던 이태석 신부의 고귀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매년 마련하는 ‘제14회 부산사람 이태석 기념음악회’.

이태석 신부는 대한민국의 의사이자 가톨릭 살레시오회의 수도자 겸 성직자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수단(현 남수단) 톤즈(Tonj)에 선교사제로 파견되어 구호, 의료, 교육, 사목활동에 힘써오다 지난 2010년 대장암으로 선종했다.

특히 올해는 새로 건립된 부산 최초의 클래식 전용홀인 부산콘서트홀에서 음악회가 펼쳐진다. 예술인들의 재능기부 참여로 이뤄지는 이번 음악회에서는 국립부경대학교 석좌교수이자 부산심포

니오케스트라 예술감독으로 있는 오충근과 부산 심포니오케스트라가 연주하고 소프라노 황신영, 바리톤 안세범의 협연으로 베르디 오페라 서곡과 전주곡, 아리아로 관객과 만난다.

특히 2부에서는 파이프오르간이 있는 부산콘서트홀의 특징을 살려 길망의 ‘오르간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교향곡 제1번을 오르가니스트 신동일의 협연으로 부산 초연한다.

프로그램

베르디/오페라 ‘운명의 힘’ 서곡

베르디/오페라 ‘리골레토’ 전주곡

베르디/오페라 ‘리골레토’ 중 ‘그리는 이름이어’

베르디/오페라 ‘리골레토’ 중 ‘신하들아’

베르디/오페라 ‘리골레토’ 중 ‘말해봐, 우리뿐이야’

길망/오르간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교향곡 제1번

라단조 작곡42 *부산초연

- 예술감독, 지휘/오충근
- 오르간/신동일
- 소프라노/황신영 • 바리톤/안세범
- 연주/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연극 **늘근도독이야기**

일 시 | 3월 13일(목)-6월 15일(일) 평일
오후 7:00, 주말·공휴일 오후 2:30,
5:00(매주 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2관

입 장 료 | 전석 4만원(예매시 할인, 12세 이상 관람)

문 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부조리한 세상에 날리는 사이다 돌직구로 남녀노소 불문하고 사랑받은 스테디셀러극 ‘늘근도독이야기’.

대통령 취임 특사로 감옥에서 풀려난 두 늙은 도둑은 노후 대책을 위해 마지막 한탕을 꿈꾸며 어느 부잣집에 잠입하지만 하필 그곳이 ‘그분’의 미술관. 엄청난 부와 권위를 자랑하는 ‘그분’의 미술관에는 세계적인 미술품들이 소장되어 있지만 작품의 가치를 모르는 두 늙은 도둑은 오직 금고만을 노리다가 결국 조사실로 끌려가는데...

‘늘근도독이야기’는 지난 1989년 초연 당시 파격적인 정치풍자, 신랄한 시사코미디로 큰 호응을 얻은 후 매 시즌마다 당대의 화두를 반영한 풍자와 거침없는 애드립으로 크게 사랑받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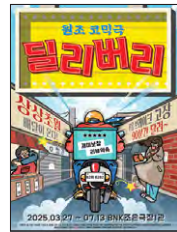
원조 코믹극 **딜리버리**

일 시 | 3월 27일(목)-7월 13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공휴일 오후 3:00,
6:00(매주 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입 장 료 | 전석 4만원(예매시 할인)

문 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무엇이든 배달해 주는 신개념 딜리버리 서비스를 배경으로, 상상도 못 할 다양한 배달 의뢰를 통해 벌어지는 해프닝을 그린 코믹 연극 ‘딜리버리’.

평범하지 않은 배달 의뢰로 무엇이든 배달해주는 딜리버리의 하루는 오늘도 바쁘다. 하지만 이견 시작에 불과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극한의 배달들이 연이어 접수되는데... ‘딜리버리’에서는 위험천만, 사건사고, 우여곡절의 총집합 의뢰들이 옴니버스 형식으로 전개되면서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직장상사와 부하직원의 트러블, 연인과의 싸움, 부모님과 자식의 다툼으로 인한 오해와 분란을 이해와 용서의 과정을 통해 진심 어린 이야기로 풀어낸다

뮤지컬 **이상한 과자가게 전천당 4** 정체불명의 손님

일 시 | 6월 7일-8일 토-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30
KBS부산홀
입 장 료 | R석 7만원, S석 6만원(24개월 이상 관람)
문 의 | ㈜아우라이엔에스 1577-9881



일본 작가 히로시마 레이코의 동명의 인기 소설을 원작으로 한 뮤지컬 '이상한 과자가게 전천당' 네 번째 시즌.

소원을 들어주는 과자를 파는 미스터리한 과자 가게 전천당과 그곳을 찾아온 사람들의 마법 같은 이야기를 그린 '이상한 과자가게 전천당'은 삶의 다양한 갈림길에서 인간의 선택과 운명에 관한 이야기를 독창적으로 풀어낸 작품으로, 등장인물을 통해 인생의 의미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되새겨볼 수 있다. 특히 기존 어린이 뮤지컬에서는 쉽게 볼 수 없었던 화려한 무대와 의상, 감성적인 음악으로 관객들에게 놀라운 경험과 즐거움을 선사한다.

부산발레시어터 캔템포러리 프로젝트

더블 빌

일 시 | 6월 27일 금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
입 장 료 | 전석 1만원(12세 이상 관람)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부산발레시어터의 창작발레 작품들을 한 무대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공연 '더블 빌'.

이번 무대에서는 1983년생 친구 사이기도 한 부산발레시어터 정성복 단장과 안무감독 류장현 안무가의 창작 작품이 공연된다.

정성복 단장의 'Concerto for Bodies'는 바흐의 '2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에 맞춰 창작된 작품으로, 두 대의 바이올린의 선율이 교차하면서 만들어지는 조화로운 음악을 무용수들의 몸을 통해 시각화한다. 류장현 안무가의 'Holy Protocol'은 전통과 규율의 폭력성, 그리고 그 위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몸의 주체성을 탐색하는 작품이다.

뮤지컬 **지킬앤하이드**

일 시 | 6월 8일 일요일 오후 2:00, 7:00,
10일-13일 화-금요일 오후 7:30,
14일-15일 토-일요일 오후 4:00
드림씨어터
입 장 료 | VIP석 17만원, R석 14만원
S석 11만원, A석 8만원(14세 이상 관람)
문 의 | ㈜에스제이이엔티 1599-2005



2004년 국내 초연 이후 최초 '전회 매진, 전회 기립박수'를 기록하며 관객을 사로잡아온 뮤지컬 '지킬앤하이드' 20주년 기념 무대.

1997년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처음 무대에 오른 뒤 인간 내면의 선과 악이라는 주제를 감미로운 음악으로 풀어낸 '지킬앤하이드'는 특히 우리나라 정서에 맞게 재해석, 확장하여 만든 '논레플리카' 뮤지컬로, 미국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두며 지난 2006년에는 일본에까지 우리나라 버전으로 '수출'하기도 했다.

이번 부산 무대에서는 지킬/하이드 역으로 신성록, 최재림, 김성철이 출연, 극단적인 두 인격을 오가는 열연을 무대에서 펼친다.

영상

영도문화예술회관 SAC on Screen

영상으로 만나는 보컬 마스터 시리즈- 베이스 연광철

일 시 | 6월 18일 수요일 오후 7:00
영도문화예술회관 절영홀
입 장 료 | 무료(전체 관람가, 사전예매 필수)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영도문화예술회관이 마련하는 'SAC on Screen' 6월 상영회.

이번 상영회에서는 예술의전당이 지난해 진행한 '보컬 마스터 시리즈' 중 베이스 연광철 편을 만날 수 있다. '보컬 마스터 시리즈'는 세계적 명성을 자랑하는 성악 거장들의 리사이틀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오페라 음악의 감동을 선사하고 미래의 음악인들에게는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베를린 국립오페라극장으로부터 궁정가수 칭호를 받으며 세계 무대에서 활약해온 베이스 연광철은 이번 무대에서 홍석원 지휘자가 지휘하는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함께 모차르트, 베르디, 바그너의 곡들로 성악의 깊이를 보여준다.

무용

창작발레 **레미제라블**

일 시 | 6월 21일 토요일 오후 4:0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입 장 료 | 전석 2만원
문 의 | 동래문화회관 550-6611



우리에게는 뮤지컬, 영화로 친숙한 빅토르 위고의 고전을 창작발레로 제작한 댄스시어터샤하르의 '레미제라블'.

인간적인 휴머니즘을 주제로, 아름다운 몸의 언어로 새롭게 쓰여진 이번 작품은 원작의 이야기를 충실하게 전하면서도 극의 시간 순서를 뒤바꾸고, 과거와 현재를 교차시켜 원작에 신선함을 불어넣었다.

제2회 서울예술상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지난 2020년 초연된 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방방곡곡문화공감의 일환으로 전국 곳곳의 공연장에서 관객들과 만났으며 올해는 (재)예술경영지원센터 20256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으로 선정됐다.

콘서트

허용별 콘서트: 보컬 전쟁 시즌 2

The War of Vocalists II

일 시 | 6월 14일 토요일 오후 2:00, 6:30
KBS부산홀
입 장 료 | VIP석 14만3천원, R석 12만1천원
S석 11만원
문 의 | ㈜전공이엔티 1522-2061

이승환 4집 'HUMAN' 발매 30주년 콘서트

일 시 | 6월 21일 토요일 오후 6:00
벡스코 오디토리움
입 장 료 | R석 15만4천원, S석 14만3천원
A석 13만2천원
문 의 | ㈜창라이프 010-5322-6304

2025 N.Flying LIVE&CON4 : FULL CIRCLE in Busan

일 시 | 7월 5일 토요일 오후 4:00
KBS부산홀
입 장 료 | R석 13만2천원, S석 12만1천원
문 의 | 컬처팩토리 1544-1555

행사

6월 오페라바움

해설이 있는 클래식 & 오페라 감상회

일 시 | 매주 월요일·금요일 오후 2:00, 토요일 오후 2:00, 7:00, 일요일 오전 10:00
오페라바움

입 장 료 | 전석 2만5천원

문 의 | 오페라바움 실장 010-4205-1039



▼▼
국내 최대 수준의 오페라, 콘서트 영상물을 구비하고 있는 오페라바움의 해설이 있는 클래식 & 오페라 감상회.

6월에는 매주 월요일 후기 낭만주의와 존 윌리엄스의 영화음악을, 금요일에는 베르디 오페라를 비롯한 명작 오페라를,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직장인을 위한 특별편성으로 오페라바움 대표 심성섭의 사전해설과 감상 후 참여자의 자유토론, 감상소감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

오페라/베르디 '일 트로바토레'(6일~7일), 베르디 '운명의 힘'(13일~14일), 베토벤 '피델리오'(20일~21일), 몬테베르디 '오르페오'(27일~28일)

6월 아카데미 시네바움

일 시 | 매주 월요일 오후 7:00, 5일(목)-19일(목) 오후 2:00, 26일(목) 오후 5:00
시네바움

문 의 | 시네바움 010-2774-3455(문자예약)

▼▼

5일(목), 19일(목) 오후 2:00
중국어로 낭독하는 당시 삼백수

9일(월) 오후 7:00 미니멀 뮤직
• 강사/김보현(작곡가)

16일(월) 오후 7:00 우정의 사상사:
자유와 평등의 연대
• 강사/박홍규(영남대 명예교수)

23일(월) 오후 7:00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스완의 사랑
• 강사/이왕주(부산대 명예교수)

마르셀 프루스트의 음악, 정원, 그리고 꽃
• 강사/함정임 (동아대 한국어문학과 교수)



26일(목) 오후 5:00 하이쿠 산책
30일(월) 오후 7:00 물음: 상호
감염의 미학
• 강사/유운성(영화평론가)

콘서트/말러 교향곡 제9번(2일, 7일), 말러 교향곡 제10번 '대지의 노래'(9일, 14일),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알프스 교향곡'(16일, 21일), 존 윌리엄스의 영화음악(23일, 28일)

김옥균의 클래식음악아카데미

세계의 클래식 명곡연주회 해설감상회

일 시 | 매주 목요일 오전 11:00

대연동 다송 뮤직 아트홀

입 장 료 | 1개월 5만원

문 의 | 김옥균 010-6367-0149



▼▼
MBC부산문화방송 'FM 가정음악실', '별이 빛나는 밤에' 등 음악프로그램을 연출한 MBC PD이자 현재 클래식음악해설가, 시인, 음악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옥균의 해설로 진행되는 '클래식 음악 아카데미' 불면증, 우울증 치료에 뛰어난 클래식 음악감상과 함께 알기 쉬운 서양음악사 특강, 가곡 발표회, 국내외 최신 클래식 연주회 실황 등을 대형

세계음악과 노래여행

일 시 | 매주 금요일 오전 10:50

해운대문화회관 3층 회의실

입 장 료 | 12만원, 1회 청강비 2만원
(현장강의 9회, 음악회 1회)

문 의 | 박진영 010-3642-6436(문자 문의)



▼▼
뮤직가이드 박진영과 함께 떠나는 세계음악과 노래여행.
각 나라를 대표하는 클래식 작곡가의 작품을 위주로, 유명 연주자의 연주를 영상과 함께 해설을 진행하고 있다. 영상수업 후에는 각 나라의 민요, 가곡, 뮤지컬, 클래식, 가요 등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배울 수 있으며, '세-음-어 중창단' 활동 또한 가능하다.

5월부터 석 달간 진행되는 2025년 2분기 강좌에서는 드보르자크, 리스트, 쇼팽 등 체코, 헝가리, 폴란드 등 동유럽을 대표하는 작곡가들의 음악세계를 살펴본다.

박진영은 부산가톨릭대학교 음악교육원 외래교수로 있으며 현재 해운대문화회관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다.

스크린을 통해 감상할 수 있다. 클래식 입문자 환영.

프로그램

6월의 음악가 '마리타 아르헤리치' 연주-슈만 피아노협주곡, 베토벤 코랄 판타지
뉴에이지 작곡가 '유키 구라모토' 생애와 음악
레너드 번스타인 뮤지컬 영화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요한 스트라우스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 '예술가의 생애 왈츠'

베토벤 교향곡 제7번, 현악4중주 제15번
추억의 명곡연 다시 보기 '3Tenor 미국공연'
오보에 악기음악 특집-헨델, 시마로자, 모차르트 협주곡

클래식음악 인문학강좌

Beethoven愛 美치다

일 시 | 5월 13일(화)-7월 8일(화) 매주 화요일
오전 10:00 동래구 평생학습관

입 장 료 | 무료(20명 선착순, 동래구청 평생교육과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문 의 | 동래구 평생학습관 550-4467

▼▼

• 강사/김옥균(시인, 음악평론가, 전 MBC PD)

2025 부산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예감(藝感); 예술로 감성을 전하다

일 시 | 6월 11일 수요일 오후 7:0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16일(월)-22일(일) 부산예술회관 전시장

입 장 료 | 무료

문 의 | 부산예술회관 631-1377



▼▼
11일(수) 오후 7:00
부산시민원드오케스트라 '감성 더한 즐거운 음악회'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Think of Me', '에델바이스' 등 클래식부터 뮤지컬, 대중가요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무대.

• 지휘/배일환

16일(월)-22일(일) 시선회 '꿈은 이루어진다'
3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세대의 부산 여류작가 33인이 참여, '희망', '노력', '꿈'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삶의 감정을 화폭에 담아낸다.

전시

이토 준지 호러하우스

일 시 | 2024년 12월 14일(토)-6월 8일(일)
DUEX 부산
입 장 료 | 일반 2만5천원, 청소년 1만9천원
(만 14세 이상 관람, 평일예매시 10% 할인)
문 의 | ㈜덕스앤덱스 02-2261-1393

2025년 금정문화회관 한·일 수교 60주년 기념
팝아트 특별교류전

Korea x Japan 'POP-Brid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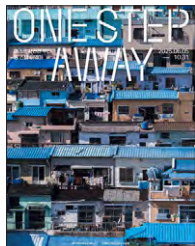
일 시 | 4월 10일(목)-6월 22일(일)
금정문화회관 금샘미술관
입 장 료 | 무료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57



한·일 수교 6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과 일본의 젊은 팝아티스트
의 작품을 통해 예술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팝아트 특별교류전.

이경준 사진전

일 시 | 6월 5일(목)-7월 31일(목)
KT&G 상상마당 부산 갤러리
입 장 료 | 1인 1만8천원(6/4일까지 예매시 9천9백원)
문 의 | ㈜미디어엔아트 02-501-9544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본
도시의 일상을 통해 일
상 속 심표를 건넌 이
경준 작가의 첫 국내 투
어 전시.

서울에서 뜨거운 반
응을 얻은 뉴욕 시리즈를
중심으로 작가 활동 초기에 담아낸 부산의 풍경과
2024년 파리에서 완성한 신작까지 18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BNK부산은행 어린이 미술대회
수상작 전시

일 시 | 6월 11일(수)-6월 14일(토)
BNK부산은행갤러리
문 의 | BNK부산은행갤러리 246-8975

부산현대미술관 다원예술 초록 전을

일 시 | 4월 12일(토)-6월 15일(일)
부산현대미술관 전시실 5
문 의 | 부산현대미술관 220-7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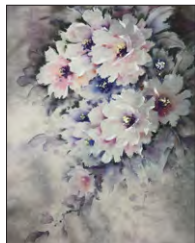
동시대 미술의 가능성과 역할
을 탐색하는 부산현대미술관
의 새로운 시도.
이번 전시는 다원예술의 다양
성에 주목하여 설치, 영상, 퍼
포먼스, 사운드아트 등이 결합된 다채로운 작업
을 함께 소개한다.

LOOP Lab Busan 연계 전시
박물관, 미디어 아트를 만나다

일 시 | 4월 23일(수)-6월 29일(일)
부산박물관 부산관 기증전시실
문 의 | 부산박물관 610-7111

(사)대한민국명인회 부산지회
제12회 전통문화 향토명품 전시회

일 시 | 6월 19일(목)-6월 22일(일)
BNK부산은행갤러리
문 의 | BNK부산은행갤러리 246-8975



전통 기술과 예술의 계
승, 발전을 위해 활동하
는 (사)대한민국명인회
부산지회의 12번째 전
통문화 향토명품 전시회
로, 우리 전통인인 화해,
한지를 꼬아 만드는 지
승공예, 나전칠기, 전통한복 등 부산지회 소속 명
인들이 한평생 갖고 닦은 예술작품이 공개된다.

(사)한국의류기술진흥협회 부산지부 제7회 전시회
디저트(dessert)

일 시 | 6월 24일(화)-6월 29일(일)
BNK부산은행갤러리
문 의 | BNK부산은행갤러리 246-8975

김시현 초대 개인전 사랑, 결이 스미다

일 시 | 5월 19일(월)-6월 21일(토)
갤러리한스
문 의 | 갤러리한스 784-0233

전통 보자기를 현대적 회화로 풀어내는 김시현
작가 초대전.
김시현 작가는 초·중등 미술 교과서에도 소개된
예술가로, 전통문화의 아름다움과 그 현대적 학
장을 대중에게 알렸다.

김경희 현대조각보전 반짝이는 전통

일 시 | 5월 30일(금)-6월 5일(목)
BNK부산은행갤러리
문 의 | BNK부산은행갤러리 246-8975

전통에 대한 깊은 인식을 바탕으로, 현대 섬유 예
술로서의 확장을 모색하며 조각보를 재해석, 대
중의 일상 속으로 스며드는 반짝이는 전통의 새
로운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는 김경희 작가의 현
대조각보전.

영도문화예술회관 기획전시
장영준 초대展 Hyper-Medium
Codex

일 시 | 6월 20일(금)-7월 12일(토)
영도문화예술회관 선유갤러리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끊임없이 복제되고 갱
신되는 이미지의 바다
위를 떠다니며 그 표현
을 관찰하고 기록해온
장영준 작가 초대전.
전시 기간 중 총 4회의
전시연계 체험 교육 '흐
르는 돌'이 진행되는데, 참여자들은 추억 물품을
가져와 해당 물품이 들어간 '흐르는 돌'을 스스로
제작하고 소장할 수 있다.

- 관람시간/오전 10:00-오후 6:00
※ 매주 일요일 및 공휴일 휴관
- 전시체험교육/6월 20일(금), 6월 21일(토),
7월 11일(금), 7월 12일(토)
오후 2:00
- ※ 사전신청 홈페이지 참조

전지적 관객 시점 · 오늘도 공연장에 갑니다

배우들의 힘

연극 '랑데부'

글 김미강 금정구 동부곡로

연극 <랑데부>는 배우 2명과 조명, 음악으로만 채워지는 담백한 작품이다. 그렇기에 특히 배우의 역할이 큰데, 박성웅과 이수경이라는 스타 캐스팅이 여기에 적절했다. “서로 가장 다른 둘의 만남... 그들의 마음속 로켓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라는 추상적인 시놉시스에도 이 연극을 찾게 만드는 힘이 바로 배우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배우 수가 적은 연극이 으레 사용하는 일인다역이 거의 없이, 두 배우가 맡은 각 캐릭터가 작품을 끌어나가는 힘도 돋보인다. 말맛이 살아있는 긴 독백과 리듬감 있는 대화가 작품을 흥미롭게 채우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어딘가 허전한 ‘공백’이 느껴진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무대 세트 체인지나 소품 활용, 일인다역이 없는 심플함, 그리고 단 2명의 배우만을 올려놓기에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은 다소 큰 극장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부산을 거쳐 서울에서 공연되는 이 작품은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으로 이어진다.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의 관람석은 총 783석,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은 241석이다. 어쩌면 서울에서는 이 공백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이 작은 아쉬움을 상쇄할 정도로 작품의 담백함과 배우들의 열연이 좋았다.

천상의 음악, 감동의 무대

부산시립교향악단 제619회 정기연주회 ‘파라디소’

글 박성신 금정구 금단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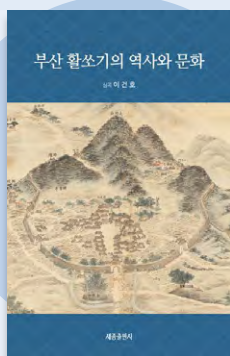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제619회 정기연주회 ‘파라디소’는 단순한 클래식 공연을 넘어, 제목 그대로 천상의 음악을 체험한 듯한 특별한 무대였다고 말하고 싶다. 첫곡으로 박재홍 피아니스트가 협연한 버르토크 ‘피아노 협주곡 제3번’이 연주되었는데, 기존 버르토크 특유의 리듬감과 타악기적인 스타일을 박재홍 피아니스트만의 섬세하고 부드러운 터치로 해석해, 곡의 서정성과 깊이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주었다. 피아노 음 하나하나에 감정이 실려 있었고, 흐름도 매끄러운 연주의 여운이 오랫동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이어진 말러 ‘교향곡 제4번’에서는 소프라노 박미자가 등장해 무대를 장식했는데, 그녀의 맑고도 힘 있는 음성이 무대를 압도하며 천상의 세계를 눈앞에 펼쳐 보이



는 듯한 인상을 주며 오롯이 음악에 몰입하게 만드는 매력을 발휘했다.

지휘자 홍석원의 섬세한 해석과 부산시립교향악단의 흐트러짐 없는 균형 잡힌 사운드는 이번 공연이 단순한 연주회를 넘어 하나의 완성도 높은 예술 작품이라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다. 클래식 음악이 지닌 감정의 깊이와 표현의 다양성을 모두 체험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으로 앞으로도 풍성한 구성과 완성도 높은 무대를 자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NEW BOOK



부산 활쏘기의 역사와 문화

이건호 지음
세종출판사 / 2만 5천 원

1987년 부산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전통 활쏘기를 처음 만난 이견호 저자는 1997년 타지에서 근무하던 중 본격적으로 활쏘기를 배우게 되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활쏘기는 저자의 삶에서 중요한 일부이다. 2006년 다시 부산으로 돌아오니, 네 곳의 활터가 자리하고 있어 활쏘기를 계속 수련하고 있다. 쇠미산 아래에 있는 활터 '사직장'에서 활쏘기를 하면서 간혹 이런 생각을 했다. "부산의 활터는 언제부터 있었으며, 그 원형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활쏘기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일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 책은 지난 4년간 연구한 부산 활쏘기의 역사 중 특히 18세기 이후의 사정(射亭, 활터)을 중심으로 조사한 자료와 현장 답사 내용을 정리한 결과물이다. 시대에 따라 활쏘기는 다양한 의미를 지니며 변화해 왔다. 조선시대에는 군사 훈련과 무과 시험의 필수 요소였으며, 일제강점기에는 전통을 지키려는 공동체 문화로 기능했다. 광복 이후에는 현대 스포츠로 정착하면서도 전통 계승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저자는 답사를 통해 부산 곳곳의 활터 유적지를 직접 찾아가 확인하면서 활쏘기가 지역 공동체의 중요한 문화적 요소였음을 전해준다.



내가 사랑한 예술가들

마이클 페피엇 지음 / 정미나 옮김
디자인하우스 / 2만 5천 원

세계적인 미술사가이자 전기 작가, 큐레이터이며 현대미술 분야 최고 권위자로 평가받는 마이클 페피엇은 60여 년간 현대 예술가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교류하며 그들의 삶과 작업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한 책들로 주목을 받아 왔다. 이 책은 저자가 추앙했던 27인 예술가들과의 심층적인 인터뷰를 바탕으로 예술 정신에 대해 화가의 솔직한 목소리를 들려준다. 반 고흐, 베이컨, 자코메티, 호안 미로, 앙리 미쇼 등. 평론가로서 화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그는 심층적인 인터뷰를 바탕으로 예술 정신에 대해 화가의 솔직한 목소리를 들려준다. 이뿐 아니라 작업 과정을 엿볼 수 있는 화실 풍경, 카페에서 나눈 담소로 알게 된 개인적인 생각들, 인상 깊은 예술가의 매력, 지인의 입을 통해 듣는 예술가의 성격 등 일반적으로 알기 어려운 내밀한 이야기들로 예술가의 삶을 다채롭게 구성한다. 예술가들이 어떻게 사회와 문화의 변화에 영향을 받았는지, 그러다 어떻게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발전시켰는지, 예술을 통해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저자의 개인사와 맞물리는 예술가들의 삶과 작품에서 인간의 다양성과 당시의 사회상도 발견할 수 있다.



빛과 실

한강 지음
문학과지성사 / 1만 5천 원

“역사적 트라우마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렬하고 시적인 산문”이라는 선정 이유와 함께 2024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한강의 신작. 노벨문학상 수상 강연문 ‘빛과 실’이 책의 첫 장을 연다. 다음은 강연문 마지막 부분의 글이다. “필멸하는 존재로서 따뜻한 피가 흐르는 몸을 가진 내가 느끼는 그 생생한 감각들을 전류처럼 문장들에 풀어놓으려 하고, 그 전류가 읽는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느낄 때면 놀라고 감동한다. 언어가 우리를 잇는 실이라는 것을, 생명의 빛과 전류가 흐르는 그 실에 나의 질문들이 접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는 순간에.” 책의 제목에서 말하는 ‘빛’과 ‘실’의 의미를 이 글에서 찾을 수 있다. ‘시적인 산문’이란 한강의 언어가 ‘경계 없는 글쓰기’라는 형식과 만났을 때, 비로소 우리가 마주하게 된 세계는 생명의 경이와 눈 부신 빛으로 가득하다. 이 책에는 미발표 시와 산문, 그리고 작가가 자신의 온전한 최초의 집으로 ‘북향 방’과 ‘정원’을 얻고서 써낸 일기까지 총 열두 꼭지의 글이 실렸다. 한강 작가가 직접 찍은 사진 몇 장도 있다. 한강 작가의 시선이 머무는 공간, 그곳에 남겨둔 작가의 마음이 느껴진다.

(재)부산문화회관 기관 명칭 변경 공모

6월 10일까지 시민 참여형 공모로 진행



(재)부산문화회관(대표이사 차재근)이 기관 명칭 변경을 위한 시민 공모를 6월 10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회관 등 두 곳의 공연장과 부산시립예술단 7개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재)부산문화회관이 부산의 대표 공공 공연장으로서 두 극장을 아우르고 재단 및 시립예술단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연장의 지역성, 상징성을 담은 이름이면 된다.

접수된 명칭은 1차 내부 심사를 거친 후 대내외 투표 및 선호도 조사를 통해 7월 중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며, 최우수상 1명(100만 원), 우수상 2명(각 30만 원),

장려상 3명(각 20만 원)에게는 수상 금액 상당의 지역화폐(동백전)가 지급된다.

공모 신청은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 공지사항에서 공모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hh4242@bscc.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참여 방법 및 세부 사항은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부산문화회관, LG아트센터·부산동부경찰서와 업무협약 체결

(재)부산문화회관(대표이사 차재근)이 LG아트센터(센터장 이현정), 부산동부경찰서(서장 김경수)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재)부산문화회관은 지난 4월 24일, LG아트센터와 문화예술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국내 공연의 공동 제작, 해외 우수 작품의 공동 초청, 인적 자원 및 기획 역량 공유 등 다방면의 협력 체계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재)부산문화회관은 수준 높은 공연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부산시민들이 지속적으로 다양한 우수 작품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LG아트센터는 제작 및 대형 해외 초청작에 대한 지방 순회 및 유통 확대를 위한 안정적인 파트너십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양 기관간 상호보완적인 협력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부산문화회관은 그동안 LG아트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프랑스 프렐조카주 발레의 '프레스코화'(2019), 연극 '인형의 집-Part 2'(2019), 연극 '벚꽃동산'(2025) 등 세계적 수준의 공연을 부산 시민들에게 꾸준히 소개해왔다.

한편, (재)부산문화회관(대표이사 차재근)은 5월 15일, 부산동부경찰서와 범죄 및 사고 예방 홍보를 통한 '지역 사회 안전 기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에 따라 앞으로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로비에서는 공연 전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캠페인 영상을 송출한다.



June 2025

Busan Cultural Center NEWS



부산시립예술단 유튜브 콘텐츠 뮤직토크 <아지트> 시즌3 제작

6월 9일부터 총 6편 업로드

부산시립예술단이 2023년 첫선을 보인 뮤직토크 '아지트'가 시즌3 촬영을 마치고 6월 9일 부산시립예술단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다.

뮤직토크 '아지트'는 특별한 공간에서 펼쳐지는 부산시립예술단의 영상 콘텐츠로, 공연장에서만 만나온 부산시립예술단이 공연장을 벗어나 부산을 상징하는 특별한 공간에서 소그룹으로 연주하고 음악 이야기, 커피 이야기를 함께 나눈다. 진행을 맡은 YB 멤버 박태희 씨가 특별히 부산을 찾아 정감있는 토크와 더불어 부산시립예술단과 콜라보 무대를 선보인다.

제작 첫해는 커피도시 부산을 대표하는 부산지역 대표 카페 모모스, 블랙업, 코스피어의 바리스타와 부산시립예술단 연주팀이 음악과 어울리는 커피 이야기를 직접 전해준 바 있다. 지난해 제작된 시즌2에서는 카페 공간에서 벗어나 금고미술관, 구백제병원 등 부산의 근현대 역사가 담긴 공간으로 장소를 옮겨 부산시립교향악단과 국악관현악단, 합창단이 음악과 공간 이야기를 담은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지난 4월 22일부터 3일간 촬영을 진행한 시즌3는 '여행하고 싶은 부산'을 콘셉트로 부산 전역의 명소와 자연 친화적 분위기

를 조화롭게 연결한 플레이리스트를 선정, 부산시립예술단의 연주와 토크, 커피 이야기로 콘텐츠를 구성했다. 진행을 맡은 박태희는 YB의 최고 히트곡 '나는 나비'의 작사, 작곡자로, '아지트' 촬영을 통해 부산의 다양한 모습을 만날 수 있어 뮤직토크 '아지트' 콘텐츠에 애정이 각별하다. 이번 시즌3에서는 또 다른 자작곡을 직접 부르며 단원들과의 호흡을 맞추어 영상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준다.

뮤직토크 '아지트' 시즌3는 20~25분 분량으로 총 6편이 제작되고, 유튜브 시청자 댓글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 송출일정 및 출연진

6월 9일(월) 오후 7:00 먼스 커피바

합창단 '몽글몽글 감성 가득 우정 여행'

6월 16일(월) 오후 7:00 모모스 해운대 마린시티점

교향악단 현악5중주 '우리의 청춘은 파도를 타고'

6월 23일(월) 오후 7:00 임시수도기념관

합창단 '그리운 이름들을 위하여'

6월 30일(월) 오후 7:00 명란브랜드연구소

교향악단 목관5중주 '낯선 길을 혼자 걸으며 듣고 싶은 노래'

7월 7일(월) 오후 7:00 유정1995

국악관현악단 'K-뮤직이란 이런 것, 외국인도 좋아하는 국악'

7월 14일(월) 오후 7:00 도모헌

국악관현악단 '너와 자연에 누워 듣고 싶은 노래'

•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사업팀 051-607-3113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명칭 변경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은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회관을 아우르고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기 위해 명칭변경 공모를 진행합니다.



공모명

부산문화회관 명칭 변경 공모

공모자격

부산시민 누구나
※ 1인 1건 제출가능

공모내용

기관의 특성을 잘 표현하며 공공 공연장의
대표성을 나타낼 수 있는 상징적 명칭

결과발표

2025. 8월 중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연락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051-607-6015

접수기간

2025. 5. 12.(월) ~ 6. 10.(화) 18:00까지

시상금

-최우수상(1명) 100만원, 우수상(2명) 각 30만원,
장려상(3명) 각 20만원 ※ 동백전 지급
-공모 참여자 50명(추첨) 스타벅스 모바일 커피쿠폰 지급

접수방법

 이메일 제출

- 이메일 제출 : hh4242@bscc.or.kr
- 제출 : 공모신청서, 개인정보활용 및
저작권 위임·저작물 이용 허락 동의서
- 메일제목 '부산문화회관 명칭 공모'
※ 우편, 방문접수 불가



공고문 바로가기

유의사항

- 제출된 명칭 및 관련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수상작에 대한 저작권·소유권 및 상표권 등 일체의 권리는 (재)부산문화회관에 귀속됨.
- 제출된 명칭에 대해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 등록을 하지 않아야 함.
- 동일 명칭이 다수일 경우, 먼저 접수된 하나의 작품만 인정.
- 1인당 1건 제출 가능하며, 신청서상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기재 요구사항을 누락하거나 지정된 양식 이외의 서식 제출시 심사에서 제외함.
- 모든 참여자는 제출 명칭이 지적재산권 등 기타 제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제출 내용의 표절, 저작권 침해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 법적 분쟁 발생시 선정은 취소되며 상금은 회수될 수 있음.
- 심사결과에 따라 수상작이 없을 수 있음.
- 수상작으로 선정되더라도 향후 최종 기관명의로 채택되지 않을 수 있음.
-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재)부산문화회관 결정에 의하며, 공모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위의 모든 내용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2025년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인규단원 모집(2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에서는 부산 지역 청소년 문화예술 발전에 주역이 될
참신하고 유능한 신규단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 단원 모집 개요

- 응시 자격 : 노래에 소질이 있고 소년소녀합창단 활동에
적극적이고 성실히 임할 수 있는
부산시 거주 **초등학교 4학년 ~ 중학교 3학년**
(※ '25년 5월 학기 기준)
- 모집 인원 : 00명
- 모집 조건

공연출연 및 연습참여	✓ 주 3회 연습 참여 - 초등학교 ~ 중학교 : 화, 목(17:30~20:00), 토(10:00~12:30) ※ 내부사정에 따라 연습일정은 변동 가능 ✓ 공연 편성 시 공연 출연
혜택	✓ 연습 출석 시 : 간식 및 교통비(연주단원) 제공 ✓ 연주에 관련된 연주복 및 단체복 제공 ✓ 공연 활동 시 : 자원봉사 시간 부여 ✓ 우수단원 표창 ✓ 해외공연 참가 기회 부여 (우수단원 우선 참여) ✓ 외부공연 참여 시 소정의 공연수당 지급

♪ 일정 및 방법

• 전형일정

공고기간	접수기간	
2025. 5. 24.(토) ~6. 12.(목)	2025. 6. 13.(금)~6. 30.(월) (*18:00 마감)	
실기/면접 일시	전형장소	합격자발표
2025.7.5.(토) 13:00 ~ ※ 12:30까지 대기실 입실 완료	부산문화회관 소년소녀합창단 연습실	2025. 7. 8.(화) 15:00 (예정)

• 과제

구분	세부내용
실기 전형	자유곡 악보 제출(*응시원서와 함께 + 4P 이내 PDF파일) ※ 반주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에서 진행 ※ 당일 전형 시에 자유곡 악보를 출력해서 가지고 올 것
	공통 1. 발성 테스트 2. 애국가 1~4절 외워서 부르기 3. 음감 테스트 : 피아노로 치는 3~4개 연결음을 따라 부르기
면접전형	응시자 면접 : 자기소개 및 특기 소개 ※ 당일 전형 시에 부모님은 대기실에서 대기

※ 합격자 선정 기준

심사위원 (상), (중), (하) 평가하여 (하)를 받지 않은 응시자

♪ 원서 접수 및 유의사항

• 응시원서 접수방법

✓ 접수방법

- ① 해당 공고문 첨부파일 「응시원서」 다운로드 및 작성
- ② 2025.6.30.(월) 18시까지 e-mail 접수 : thjjang77@bscc.or.kr
- 첨부파일 및 메일 제목 : "2025 응시원서-홍길동(응시자 이름)"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
접수시간까지 확인된 메일만 접수인정

- ✓ 준비서류 : 응시원서 1부, 자유곡 악보(4p 이내) 1부
- 전자우편으로 응시원서 접수 후, 접수번호 개별 최신
- 전형당일 : 재학증명서(본인 확인용)

• 유의사항

- ✓ 신규단원 O/T : 2025.7.10.(목) 18시 30분 소년소녀합창단 연습실
- 최종 합격단원 및 단원 보호자 1명 동반
-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예술단운영팀 051-607-3131

BSCC

P R O G R A M

(재)부산문화회관·부산시립예술단 2025 공연프로그램 안내

예매 방법

온라인 예매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에서 24시간 예매 가능합니다.

전화예매 | 고객센터(Tel.051-607-6000)로 전화하시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매 가능합니다.

한국어 문의 | ARS 1번 **외국어 문의** | ARS 2번

티켓수령 | 관람 당일 공연장 로비 매표소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매 취소 및 변경

취소·변경 안내는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 또는 전화(051-607-6000)로 예매 취소나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매는 공연 전일 14시에 종료되며, 취소는 공연 전일 17시까지 가능합니다. 이후, 취소 및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취소내역은 홈페이지의 '마이 페이지'에서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수료 티켓환불규정에 따라 수수료가 일부 발생할 수 있으며, 공연 당일에는 취소, 변경,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구분	취소수수료	비고
공연 7일 전~2일 전까지	티켓 가격의 10% 공제 후 환불	예매 당일 취소 시,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단, 공연 당일 불가) ※ 예매/취소마감은 공연 전일 17시
공연 1일 전~취소마감 17시까지	티켓 가격의 20% 공제 후 환불	
취소마감 17시 이후부터 공연당일	취소 및 환불 불가	

※ 프로그램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매·문의 : 051)607-6000(ARS 1번)

2025. 7-12월

July - December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 **문화** 부산문화회관 / **시민** 부산시민회관

부산문화회관

부산 시민들을 위한 특별한 시리즈
**부산시향과 함께 걷다,
세계 클래식 음악 산책**

문화 | 중극장

전석 20,000원

북유럽 2025. 7. 24.(목) 7:30pm - 7. 25.(금) 11:00am | with 조성현
프랑스 2025. 8. 28.(목) 7:30pm - 8. 29.(금) 11:00am | with 브랜든 최
영국 2025. 10. 30.(목) 7:30pm - 10. 31.(금) 11:00am | with 황세희
• 지휘 | 홍석원, 백승현 • 연주 | 부산시립교향악단
※ 7세 이상 관람



부산 클래식의 저력, 음악적 드라마의 완성
**Sound of Busan:
브람스 교향곡 전곡 사이클**

문화 | 대극장

R석 30,000원 S석 20,000원

2025. 5. 29.(목) 7:30pm #3. 부산네오팔하모닉오케스트라 | 브람스 교향곡 제4번 외
• 지휘 | 홍성택 • 피아노 | 노윤화
2025. 7. 25.(금) 7:30pm #4.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 브람스 교향곡 제3번 외
• 지휘 | 윤상운 • 비올라 | 김남중 • 클라리넷 | 백동훈
※ 7세 이상 관람



독일 고전주의 전통의 정수

크리스티안 테츨라프 바이올린 리사이틀

문화 | 중극장 2025. 5. 2.(금) 7:30pm

R석 70,000원 S석 50,000원 A석 30,000원
※ 7세 이상 관람



서로 다른 음악적 깊이가 만나 빛어내는 우정의 선율
김영옥 & 김다솔 듀오 콘서트

문화 | 중극장 2025. 5. 3.(토) 5:00pm

R석 60,000원 S석 40,000원

• 바이올린 | 김영옥
• 피아노 | 김다솔
※ 7세 이상 관람



세상의 다양한 존재들에게 보내는 응원의 춤
국립현대무용단 <암! 암! 암!>

문화 | 중극장 2025. 6. 14.(토) - 6. 15.(일) 2:00pm

R석 20,000원 S석 10,000원

• 안무 | 박영욱, 이정주
※ 48개월 이상 관람(추천 연령 6세 이상)



무더위를 즐기는 기발한 상상력
가족뮤지컬 <수박 수영장>

문화 | 대극장 2025. 7. 5.(토) 11:00am, 2:00pm

R석 55,000원 S석 33,000원

• 연출 | 진영섭 • 원작 | 안영달 • 대본 | 윤희경
※ 24개월 이상 관람



마지의 세계로 떠나는 두 광대의 여정
**해외아동청소년예술축제
마임서커스 <글로브(Glob)>**

문화 | 중극장 2025. 7. 16.(수) 11:00am, 6:00pm

R석 30,000원 S석 20,000원

※ 36개월 이상 관람(추천 연령 6세 이상)



눈과 귀로 즐기는 환상적인 인터랙티브 음악 게임!
**해외아동청소년예술축제
멀티미디어퍼포먼스 <루멘스(Lumens)>**

문화 | 중극장 2025. 7. 19.(토) 11:00am, 2:00pm

R석 30,000원 S석 20,000원

※ 36개월 이상 관람



2025 신진청년예술인 인큐베이팅 및 경력개발 지원사업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

문화 | 대극장 2025. 7. 17.(목) - 18.(금) 7:30pm,

19.(토) 2:00pm, 7:30pm

R석 50,000원 S석 30,000원 A석 20,000원

• 연출, 재구성 | 김지용 • 원작 | W. 셰익스피어
※ 7세 이상 관람(초등학생은 보호자 동반 권장)



새로운 세상의 갈망, 민족의 혼을 되찾으려는 의지와 저항
뮤지컬 <독립군 아리랑>

문화 | 대극장 2025. 8. 17.(일) 3:00pm

R석 50,000원 S석 30,000원 A석 20,000원

※ 7세 이상 관람



파멸의 빌미는 무엇인가
경남도립극단 교류공연 연극 <빌미>

문화 | 중극장 2025. 8. 23.(토) 3:00pm

R석 30,000원 S석 20,000원

• 연출 | 최원석
※ 14세 이상 관람



<팬텀싱어4>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은 유일무이한 카운터테너
**카운터테너 이동규 <바로크로그>
with 조운성 & 성민제 & 고의석**

문화 | 대극장 2025. 9. 5.(금) 7:30pm

R석 50,000원 S석 30,000원 A석 20,000원

※ 7세 이상 관람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문 닫힌 동물원>

문화 | 중극장 2025. 9. 6.(토) 2:00pm

R석 50,000원 S석 30,000원 A석 20,000원

※ 24개월 이상 관람



고마워, 내 이야기 들어줘서

연극 <뽕아>

문화 | 중극장 2025. 11. 14.(금)-16.(일) 시간미정
R석 60,000원 S석 40,000원
• 극작 | 김은성 • 연출 | 김태형
※ 14세 이상 관람



현대무용의 혁신 그 자체

알렉산더 에크만의 <해머> 에테보리 오페라 댄스컴퍼니

문화 | 대극장 2025. 11. 21.(금) 7:30pm,
22.(토) 3:00pm
VIP 100,000원 R석 80,000원 S석 60,000원 A석 40,000원
• 예술감독 | Katrín Hall • 안무 | Alexander Ekman
※ 14세 이상 관람



부산 시민들이 만드는 꿈의 무대

<2025 제야음악회>

문화 | 대극장 2025. 12. 31.(수) 7:30pm
R석 30,000원 S석 20,000원 A석 10,000원
• 연주 | (재)부산문화회관 시민오케스트라
※ 7세 이상 관람



부산시민회관

도심 속 문화 쉼터

2025 시민트락축제

시민 | 야외광장 2025. 4. 11.(금), 4. 18.(금), 4. 25.(금), 5. 2.(금),
5. 9.(금) 12:10pm
무료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감성의 키가 한 뼘 자라나는 어린이를 위한 클래식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콘서트 <클래식 댄스! 댄스!>

시민 | 소극장 2025. 5. 3.(토) 3:00pm
R석 30,000원 S석 20,000원
※ 5세 이상 관람



정태춘&박은옥 콘서트

시민 | 대극장 2025. 5. 17.(토) 5:00pm
VIP석 121,000원 R석 99,000원 S석 88,000원
A석 66,000원
※ 7세 이상 관람



캐나다 대표 오케스트라와

대한민국 간판 피아니스트 손열음이 만들어내는 울림

캐나다 국립 아트센터 오케스트라 with 손열음

시민 | 대극장 2025. 5. 29.(목) 7:30pm
VIP석 150,000원 R석 130,000원 S석 90,000원 A석 50,000원
※ 7세 이상 관람



뮤지컬 '파가니니'의 주인공, '지붕 위의 바이올린' '모비딕' '폐임' 주역
살롱 드 바이올린 II <KoN(콘)>

시민 | 소극장 2025. 6. 20.(금) 7:30pm
R석 44,000원 S석 33,000원
※ 7세 이상 관람



2025년 제5회 세계여성공연예술축제 초청작

<당신은 지금 바비레타에 살고 있군요>

시민 | 소극장 2025. 6. 27.(금) 8:00pm
6. 28.(토) 3:00pm
R석 30,000원 S석 20,000원
• 출연 | 강애심, 장은정, 최지연, 김혜숙, 조민수
※ 36개월 이상 관람



세기를 넘어 관객을 매혹시키는 최고의 클래식 발레
**모스크바 라 클래식 발레단 월드투어
<백조의 호수>**

시민 | 대극장 2025. 7. 12.(토)-13.(일)
2:00pm, 6:30pm
VIP석 140,000원 R석 120,000원 S석 100,000원 A석 80,000원
※ 8세 이상 관람



주변부에 머물러 있는 물에 관한 의심과 질문
국립현대무용단 <내가 물에서 본 것>

시민 | 대극장 2025. 8. 30.(토) 2:00pm
R석 60,000원 S석 50,000원 A석 30,000원
• 안무 | 김보라
※ 7세 이상 관람



송승환이 만든 첫 번째 대형 가족뮤지컬

뮤지컬 <정글북>

시민 | 대극장 2025. 9. 6.(토) 11:00am, 2:00pm, 4:30pm,
9. 7.(일) 11:00am, 2:00pm
R석 77,000원 S석 55,000원
※ 24개월 이상 관람
※ 아동 단독 입장은 11세(초등학교 4학년)부터 가능



젊은이들의 아름다운 선율, 부산의 미래를 울린다!

2025 대학 교향악축제

시민 | 대극장 2025. 11. 26.(수)-30.(일)
평일 7:30pm, 주말 5:00pm
전석 10,000원
• 출연 | 경성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부산대학교, 인제대학교
※ 7세 이상 관람



2024년 서울미래연극제 초연, 작품상·연출상·연기상 수상

연극 <오하마백씨행장 완판본>

시민 | 소극장 2025. 11. 28.(금) 7:30pm,
29.(토) 2:00pm
R석 40,000원 S석 20,000원
• 연출, 출연 | 오치운
※ 14세 이상 관람



놓칠 수 없는 겨울 발레
국립발레단 <호두까기인형>

시민 | 대극장 2025. 12. 5.(금) 7:30pm,
6.(토) 2:00pm
VIP석 100,000원 R석 80,000원 S석 60,000원 A석 40,000원
※ 48개월 이상 관람



©Korean National Ballet

우리 크리스마스에 볼까요?

대니 구 윈터 콘서트 <HOME>

시민 | 대극장 2025. 12. 27.(토) 5:00pm
R석 80,000원 S석 60,000원 A석 40,000원
※ 7세 이상 관람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특별공연

※ **문화** 부산문화회관 / **시민** 부산시민회관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우리 아이 음악회

문화 | 중극장 2025. 5. 8.(목) 7:30pm
• 지휘 | 홍석원
• 샌드아트 | 노선이
• 내레이션 | 이혁우, 오희경



제620회 정기연주회
NEW WORLD

부산콘서트홀 2025. 5. 23.(금) 7:30pm
• 지휘 | 홍석원



기획음악회
미완성음악회

문화 | 대극장 2025. 6. 18.(수) 7:30pm
• 지휘 | 홍석원



제621회 정기연주회
DSCH

문화 | 대극장 2025. 6. 19.(목) 7:30pm
• 지휘 | 홍석원
• 첼로 | 최하영



부산시립합창단

제196회 정기연주회

어린이뮤지컬 <피노키오와 파란마녀>

문화 | 대극장 2025. 5. 3.(토) 11:00am, 3:00pm,
5. 4.(일) 5:00pm
• 지휘 | 이기선
• 연주 |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2310밴드



특별연주회

유명지휘자 초청연주회

<전쟁과 평화 그리고 희망>

문화 | 중극장 2025. 6. 20.(금) 7:30pm
• 객원지휘 | 성상철



제197회 정기연주회

2025 SUMMER FANTASY

문화 | 대극장 2025. 7. 24.(목) 7:30pm
• 지휘 | 이기선
• 출연 | 부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198회 정기연주회

광복80주년 기념음악회 <Song of Arirang>

문화 | 대극장 2025. 9. 18.(목) 7:30pm
• 지휘 | 이기선
• 합창 | 부산시립합창단, 대구시립합창단, 해운대소년소녀합창단
• 연주 | UKO



특별연주회

합창으로 하나되는 부산 <제36회 부산합창제>

문화 | 대극장 2025. 10. 28.(화)-10. 30.(목) 7:00pm
• 지휘 | 이기선, 임희준



제199회 정기연주회

송년 칸타타

문화 | 대극장 2025. 12. 4.(목) 7:30pm
• 지휘 | 이기선
• 연주 | UKO



부산시립무용단

제191회 정기공연

남풍

문화 | 대극장 2025. 5. 9.(금) 7:30pm,
5. 10.(토) 3:00pm
• 연출 | 이정윤



특별공연

이정윤의 댄스살롱

문화 | 중극장 2025. 7. 11.(금) 7:30pm, 7. 12.(토) 3:00pm
• 연출 | 이정윤



제192회 정기공연

해외 안무가 프로젝트(가제)

문화 | 대극장 2025. 11. 7.(금) 7:30pm, 11. 8.(토) 3:00pm

• 연출 | 이정운



특별공연

홀로홀출

문화 | 중극장 2025. 12. 5.(금) 7:30pm, 12. 6.(토) 3:00pm

• 예술감독 | 이정운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30회 정기연주회

New Composition Series II 부산국악작곡가협회와 함께하는 <초연의 밤>

문화 | 대극장 2025. 6. 24.(화) 7:30pm

• 지휘 | 이동훈



특별연주회

퇴근길 음악회, 국악 힐링 타임

문화 | 중극장 2025. 7. 22.(화) 7:30pm



광복 80주년 기념음악회

광복의 빛을 넘어

문화 | 대극장 2025. 8. 14.(목) 7:30pm



제231회 정기연주회

New Composition Series III 위대한 유산

문화 | 대극장 2025. 9. 30.(화) 7:30pm

• 지휘 | 이동훈



제232회 정기연주회

New Composition Series IV 부산 국악 작곡 콩쿠르

문화 | 중극장 2025. 10. 28.(화) 7:30pm

• 지휘 | 이동훈



특별연주회

제50회 청소년 협연의 밤 꿈과 감성이 있는 젊은 음악회

문화 | 중극장 2025. 11. 21.(금) 7:30pm



제233회 정기연주회

2025 송년음악회 부산-강릉 KTX 개통 기념 <이음> 국악 콘서트

문화 | 대극장 2025. 12. 18.(목) 7:30pm

• 지휘 | 이동훈



부산시립극단

특별공연

가족뮤지컬 <신데렐라>

문화 | 사랑채극장 2025. 6. 6.(금)-7. 6.(일)

주말 공휴일 10:30am, 2:00pm

• 작 | 김영하 • 작곡 | 이영재

• 연출 | 김지용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2025 솔로리스트들의 축제

문화 | 대극장 2025. 5. 13.(화) 7:30pm

• 지휘 | 백승현



특별연주회

유망주 음악회

문화 | 챔버홀 2025. 6. 14.(토) 5:00pm



제77회 정기연주회

문화 | 대극장 2025. 9. 16.(화)

• 지휘 | 백승현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66회 정기연주회

가족뮤지컬 <엄마, 같이 걸을까>

문화 | 대극장 2025. 5. 31.(토) 5:00pm

• 지휘 | 천경필



제167회 정기연주회

평화의 노래 Song of Peace

문화 | 대극장 2025. 9. 13.(토) 5:00pm

• 지휘 | 천경필



특별연주회

제36회 부산청소년합창제

문화 | 대극장 2025. 10. 31.(금)-11. 1.(토) 5:00pm

• 출연 | 부산시내 중·고등학교 합창단 및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제168회 정기연주회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꿈꾸며

문화 | 대극장 2025. 12. 13.(토) 5:00pm

• 지휘 | 천경필



지금 놓치면 없다! 누구보다 빠르게!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얼리버드 이벤트

4월 마감



얼리버드
(조기예매)
할인율
30%
4.30.(수)까지

가족 뮤지컬
수박 수영장

2025. 7. 5.(토) 11:00am 2:00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R석 55,000원 | S석 33,000원



얼리버드
(조기예매)
할인율
40%
4.30.(수)까지

해외아동청소년예술축제
마임서커스 글로브 (Glob)

2025. 7. 16.(수) 11:00am 6:00pm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얼리버드
(조기예매)
할인율
40%
4.30.(수)까지

해외아동청소년예술축제
멀티미디어퍼포먼스 루멘스 (Lumens)

2025. 7. 19.(토) 11:00am 2:00pm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얼리버드
(조기예매)
할인율
40%
4.30.(수)까지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문 닫힌 동물원

2025. 9. 6.(토) 2:00pm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R석 50,000원 | S석 30,000원 | A석 20,000원

5월 마감



얼리버드
(조기예매)
할인율
50%
5.31.(토)까지

국립현대무용단
내가 물에서 본 것

2025. 8. 30.(토) 2:00pm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 R석 60,000원 | S석 50,000원 | A석 30,000원



얼리버드
(조기예매)
할인율
50%
5.31.(토)까지

알렉산더 에크만의 **해마**
에테보리 오페라 댄스컴퍼니

2025. 11. 21.(금) 7:30pm
11. 22.(토) 3:00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VIP 100,000원 | R석 80,000원 | S석 60,000원
A석 40,000원

6월 마감



얼리버드
(조기예매)
할인율
40%
6. 8.(일)까지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

2025. 7. 17.(목) ~ 18.(금) 7:30pm
7. 19.(토) 2:00pm, 7:30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R석 50,000원 | S석 30,000원 | A석 20,000원



얼리버드
(조기예매)
할인율
60%
6.30.(월)까지

뮤지컬
독립군 아리랑

2025. 8. 17.(일) 3:00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R석 50,000원 | S석 30,000원 | A석 20,000원



얼리버드
(조기예매)
할인율
30%
6.30.(월)까지

경남도립극단 교류공연 연극
빌미

2025. 8. 23.(토) 3:00pm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얼리버드
(조기예매)
할인율
20%
6.30.(월)까지

카운터테너 이동규 바로크로그
with 조운성 & 성민재 & 고의석

2025. 9. 5.(금) 7:30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R석 50,000원 | S석 30,000원 | A석 20,000원



얼리버드
(조기예매)
할인율
30%
6.30.(월)까지

연극
오함마백시행장 완판본

2025. 11. 28.(금) 7:30pm
11. 29.(토) 2:00pm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 R석 40,000원 | S석 20,000원



얼리버드
(조기예매)
할인율
30%
6.30.(월)까지

2025 제야음악회

2025. 12. 31.(수) 7:30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 A석 10,000원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051-607-6000 (ARS 1번)

비즈니스 성공을 위해 함께 합니다

(재) 부산문화회관 법인회원 멤버십

법인회원을 위한 비즈니스 멤버십은 문화 혜택과 더불어 회관의 홍보 채널을 제공합니다.

한 장의 카드로 혜택을 모으고, 문화를 즐기고, 기쁨을 나눕니다.

기업의 품격을 높여줄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비즈니스 멤버십에 가입하세요.

**비즈니스
멤버십
주요
혜택****부담은 줄이고
문화는 풍성하게**

공연과 전시(20~50%), 아카데미 수강(10%), 회관 주차장(50%)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혜택과
홍보를 한 번에**회관의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을 이용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월간 <예술의초대>, 회관 내 DID, 회관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기업을 홍보하세요.**비즈니스
멤버십
등급별
혜택**

등급 (가입기간 1년)	루비 레드 (Ruby Red)	에메랄드 그린 (Emerald Green)	사파이어 블루 (Sapphire Blue)
연회비	5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공통혜택

공연 초대권 제공(등급별 상이) | 공연 및 전시 할인(20~50%) | 아카데미 수강료 할인 | 월간지 <예술의초대> 매월 발송 | 회원라운지 무료 이용(음료 및 다과 제공) | 주차요금 할인(50%) | 제휴업체 할인(사정상 변경, 조정될 수 있음) | 회원대상 초청 이벤트 실시(별도계획에 의함) | 법인회원 네임 플레이트 제작 및 비치(대극장 로비 벽면) | 법인회원 현판 제공(법인회원 기업 설치) | 초대권 제공(협의 공연) | 문화회관 주차장 정기이용 등록

등급별 추가 혜택

회관 홈페이지 배너 광고	3개월	2개월	1개월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초대> 광고	1회	-	-
회관 내 DID 법인 홍보	2개월	1개월	-
회관 공식 SNS 홍보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토리, 블로그)	3개월	2개월	1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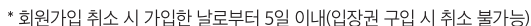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 가입 기간(1년)
- 월간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우송
- 공연정보(SMS) 제공(대관공연 제외)
- 부산문화회관 주차요금 50% 할인
- 정기회원 카드발급 우송(10일 이내)
- 선예매 서비스 제공(일부 공연 제외)
- 문화예술아카데미 수강료 10% 할인

*차량번호 등록 시 할인 적용(1대에 한하며, 신청 후 7일 이내 등록)

- 정기회원 전용 라운지 이용(대극장 3층/회원카드 제시 시/음료 등 제공/무료 및 일부공연 제외)
- 부산시내 외부 공연 및 대관공연 입장료 할인(주최 측 협의에 한함)

· **단체가입 할인**: 20명 이상(10%), 30명 이상 (20%), 50명 이상 (30%)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

부산시향과 함께 걷다, 세계 클래식 음악 산책

2025년 1월 23일(목) 오후 7:30, 24일(금) 오전 11:00 **종료**
3월 25일(화) 오후 7:30, 26일(수) 오전 11:00 **종료**
7월 24일(목) 오후 7:30, 25일(금) 오전 11:00
8월 28일(목) 오후 7:30, 29일(금) 오전 11:00
10월 30일(목) 오후 7:30, 31일(금) 오전 11: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30매)

잠비나이×미역수염 콘서트 **종료**

2025년 3월 15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40매)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콘서트

2025년 3월 15일(토) 오후 3:00 **종료**
5월 3일(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회차별 20매)

Sound of Busan: 브람스 교향곡 전곡 사이클 #2.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BSO) **종료**

2025년 4월 4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40매)

Sound of Busan: 브람스 교향곡 전곡 사이클 #3. 부산네오폐하모닉오케스트라 **종료**

2025년 5월 29일(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40매)

다양한 할인혜택으로 문화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제도는 높은 할인율과 초대권 증정 등 다양한 혜택으로 보다 많은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 가입하시면 지정 기획공연 중 관람권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람권 사용이 가능한 공연은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초대>나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통해 공지됩니다. 게재된 공연은 2025년 예약이 가능한 기획공연으로 공연예매 시작과 함께 온라인 또는 전화로 예약 가능하며 선착순 마감입니다.



국립현대무용단 코레오 커넥션 3
<압! 압! 압!>

2025년 6월 14일(토)-6월 15일(일) 오후 2: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40매)

관객참여형 감성치유 프로젝트
<당신은 지금 바바레따에 살고 있군요>

2025년 6월 27일(금) 오후 8:00, 28일(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회차별 20매)

가족뮤지컬 <수박수영장>

2025년 7월 5일(토) 오전 11:00, 오후 2: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회차별 20매)

어린이 해외공연축제 <글로브(Glob)>

2025년 7월 16일(수) 오전 11:00,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오후 7:30 40매)

2025 신진청년예술인 인큐베이팅 및 경력개발 지원사업
<로미오와 줄리엣>

2025년 7월 17일(목)-18일(금) 오후 7:30,
19일(토) 오후 2:00,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회차별 40매)

어린이 해외공연축제 <루멘스(Lumens)>

2025년 7월 19일(토) 오전 11:00, 오후 2: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40매)

Sound of Busan: 브람스 교향곡 전곡 사이클
#4.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2025년 7월 25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40매)

경남도립극단 순회공연 연극 <빌미>

2025년 8월 23일(토)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40매)

국립현대무용단 <내가 물에서 본 것>

2025년 8월 30일(토) 오후 2: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40매)

카운터테너 이동규 <바로크로그>
with 조윤성&성민제 종료

9월 5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40매)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문 닫힌 동물원>

2025년 9월 6일(토) 오후 2: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20매)

알렉산더 에크만의 <해머>
예테보리 오페라 댄스컴퍼니 종료

2025년 11월 21일(금) 오후 7:30, 22일(토)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회차별 30매)

연극 <오함마백씨행장 완판본>

2025년 11월 28일(금) 오후 7:30, 29일(토) 오후 2: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회차별 30매)

국립발레단 <호두까기인형> 종료

2025년 12월 5일(금) 오후 7:30, 6일(토) 오후 2: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회차별 20매)

대니 구 윈터 콘서트 <HOME> 종료

2025년 12월 27일(토) 오후 5: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20매)

2025 제야음악회

2025년 12월 31일(수)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40매)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051-607-6000

* 1인 1매에 한해 예약 가능하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공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회장 **도용복**
(주)사라토가 회장



명예회장 **최수기**
(주)휴넥트 회장



명예회장 **변원탄**
의료법인 양산병원 이사장

* 자문위원



권흥사
(주)반도건설



김창환
국제아트센터협동조합 이사장



김충석
(주)코팩스 회장



박정오
(주)삼정기업 회장



이근철
(주)삼정 이사장



이용흠
(주)일신설계 회장



이원우
한성테크(주) 회장



장문호
(주)천영스틸 대표이사



최삼섭
(주)대원플러스그룹 회장

* 부 회장



권정미
고신의료원
임상교수



김정기
(주)경동건설
대표이사



박정삼
백송건설
회장



박재복
지원건설(주)
회장



손명진
(전)바르게살기운동
부산광역시협의회 여성회장



임미정
(주)창창아이씨티
대표



조흥수
후소산기(주)
대표이사

임말섭 (주)미성하이텍

* 이사회원

강대일
강서룡
곽국민
권한상

웰딩시스템 대표
효승테크 대표이사
(주)파크랜드 대표이사
부경대학교 교수

김기호
김성우
김암우
김홍재

(주)이디에스 보안물류 대표이사
(재)해뜨락 요양병원 이사장
세무법인 중추 대표이사
(전)연제구의장

보람 있는 후원, 명예로운 모임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가입안내

GUIDE A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 기본 예우

-  후원회 전용 룸 이용
-  대극장 좌석 네이밍
-  예술의초대 소식지 발송
-  연(분기 또는 반기) 후원회원 대상 음악회 개최
-  후원 회원명단 게재 (후원회 홈페이지, 월간지 등)
-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무료 관람 제공 (동반 1인 포함 / 사전 신청자에 한함)
-  후원회 멤버십 카드 발급
-  회원패 증명
-  무료 주차 혜택 제공 (본인 차량에 한함)

■ 회원별 예우

구분	가입비	연회비 (익년도부터)	법인/ 개인	기획공연 및 전시 무료 초대		아카 데미	좌석 네이밍 (대극장)
				기획공연(연간)	전시		
부회 장	500 이상	200	법인/ 개인	- 기획공연 8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 (30~50%)	본인· 배우자 무료	본인· 배우자 무료	2개 좌석
이사 회원	300	100		- 기획공연 6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 (30~5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50% 할인	
일반 회원	100	50	개인	- 기획공연 4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 (3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10% 할인	1개 좌석

- ※ 법인회원은 300만원부터 가능하고, 후원회원 예우는 개인 및 법인의 대표와 배우자에 한함.
- ※ 공연(기획공연, 예술단공연) 무료초대는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하여야 하며, 조기매진 시 초대권 제공 불가함.
- ※ 일부 공연의 경우 공동주최 등의 사유로 예우사항(할인율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전시, 아카데미(1강좌에 한함)의 경우 반드시 사전 신청자에 한하며 내부 사정에 따라 예우사항 등은 조정될 수 있음.

가입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고객센터(607-6072)

※ 일반회원

김흥재 (주)식스데이 대표이사
류용주 삼신교통(주) 회장
서현석 한국고무산업 대표이사
손명찬 서원건설산업(주) 대표이사
신한춘 (주)금정화운 대표이사
윤철원 (주)정우 대표이사
이수영 (주)유한 대표이사
이은석 (주)엘제이이엔에스 대표이사
이진영 돌고래마취통증의학과의원 원장
임정덕 효원학술문화재단 이사장
장세비 우리은행 부산금융센터 및 부산영업 그룹장
정문흠 (주)태영버스 대표이사
정연택 디씨엘(주) 대표
정용환 서번산업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조기종 조기종치과의원 원장
황성환 부산제2항운병원 원장

강득용 (주)프리미엄 에셋 대표이사
계승균 부산대학교 교수
김 철 온종합병원 산부인과
김말순 인창요양병원 대표이사
김영수 세종월드건설 대표이사
김종부 다올테크 대표이사
김진홍 동우개발(주) 회장
김희규 효성의약품(주) 대표이사
도재철 (주)좋은세상 대표이사
문민우 명인제약
박성복
박성환 대동병원 이사장
박혜빈 세종기획 이사
박홍근 구포성심병원 이사장
성원기 삼강종합건설(주)
손혜경 손내과의원 원장
안금주 하나유치원 원장
안진우 경성대학교 교수
양은진 세무법인 인성
이경칠 세무법인 프로텍 세무사
이상수 통통샤인 정신건강의학과
이성임 엘가 대표
이수민 굿엔프랜드주식회사
이에리카정애 르네상스피부과 원장
이현숙 이현숙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임은자 (사)서부산경제발전연구원 원장
정명선 정민섭 산부인과 원장
정민섭 (전)국회의장
정의화 숙편한내과 원장
조성락 라이프온(주) 대표이사
조종래 주식회사 일신케미칼 사장
하정태
허혜영
한원우 법률사무소 담헌 변호사

※ 회원명 가나다순



부산시립합창단 유명지휘자 초청연주회
BUSAN METROPOLITAN CHORUS

전쟁과 평화 그리고 희망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F. J. Haydn 『Missa in Tempore Belli』
천득우 『전쟁/평화/희망의 노래』



객원지휘 성상철



부산시립합창단

2025. 6. 20 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주최  부산문화회관

주관 부산시립예술단

티켓 전석 10,000원

예매 www.bscc.or.kr

문의 051-607-6000 (ARS 1번)

<예술의초대>는 언제나 독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예술의초대>는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가입하시면
무료로 구독 가능합니다.

정기회원이 아닌 경우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회관을
비롯 금정문화회관, 영도문화예술회관, 을숙도문화회관,
해운대문화회관 등 구(區) 문화회관,
그리고 서면 영광도서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술의초대>에 공연·전시·행사 일정을 게재하려면 **전월 15일까지**

관련 내용 및 사진(포스터)을 **E-mail(book2580@bscc.or.kr)**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 단, 부산지역에서 열리는 공연·전시·행사에 한해 가능합니다.

<예술의초대>에서는 매월 유료 지면광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유료광고 게재를 원하시면
고객지원팀(607-6071)으로 문의 바랍니다.

(재)부산문화회관 뉴스레터 낱말퍼즐과 함께 다양한 문화예술 정보를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퍼즐풀기

- 참여기간 : 2025. 5. 25.(일)~6. 16.(월)
- 정답 및 당첨 발표 : 2025. 6. 25.(수)
- ※ 정답 및 당첨자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월간지 <예술의초대> 지면을 통해 발표됩니다.
- ※ 기프트콘은 기재하신 휴대전화번호로 발송됩니다.

2025년 5월호 낱말퍼즐 당첨자 명단

010-****-2597	010-****-7763	010-****-0743
010-****-6883	010-****-8485	

COUPON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입장권 20% 할인

부산광역시 중구 구덕로34번길 4
1588-2757

COUPON



공간 소극장

입장권 20% 할인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지하 242
(지하철 2호선 대연역사내)
051) 611-8518

COUPON



(부산송도) 베스트웨스턴 플러스호텔

예약방법 : 호텔 홈페이지 예약하기 ⇨
프로모션 코드입력 "CORMEM"
(<https://bwplusbusan.com/>)

부산광역시 서구 송도해변로 97
051) 977-8888

COUPON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 쿠폰 소지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예매 후 티켓 수령 시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COUPON



공간 소극장

- 쿠폰 소지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예매 후 티켓 수령 시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COUP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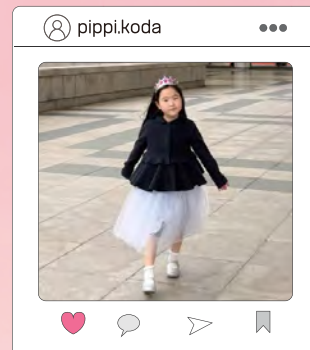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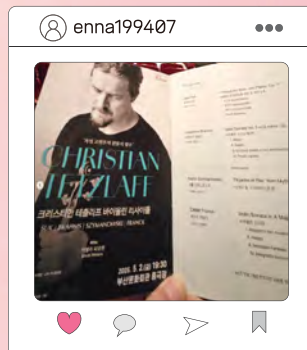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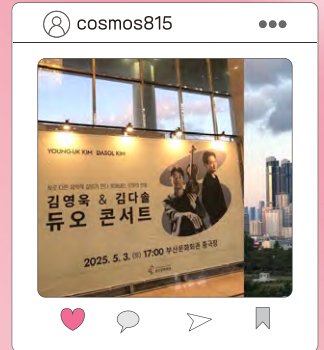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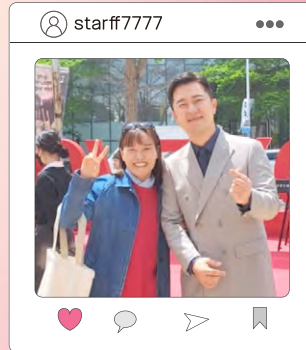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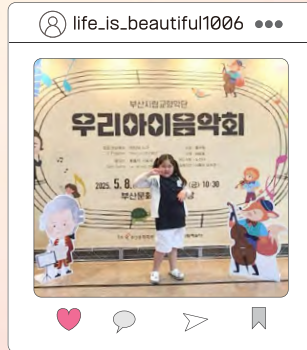


(부산송도) 베스트웨스턴 플러스호텔

- 홈페이지 예약으로만 진행되며
여행사 판매가의 5%를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다녀왔습니다!

#방문 인증 당첨자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다녀왔습니다!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회관에서 공연, 전시, 아카데미 등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는 모습을 후기와 함께 SNS에 인증해주세요!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중 한 곳 이상에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 초대권 또는 기프트콘을 드립니다!

(재)부산문화회관 공식 SNS 채널을 팔로우하세요!



@bsculturalcenter_official



facebook.com/busanculturalcenter



@배시시TV



(재)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창작 위촉곡 시리즈 II

부산국악작곡가협회와 함께하는

바람이 머무는 시간

연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지휘 이동훈

사회 송현민

소프라노 박현진

소리 박성희

합창 김해시립합창단

작곡 이정호 김명옥 조익래 이은경 황의중

NEW COMPOSITION SERIES

Program

상주 모심기 주제에 의한
삶의 노래

유산가 주제에 의한 국악관현악
울창

Variation
얼마야 누나야

국악관현악과 소프라노를 위한
사랑가

합창과 국악관현악을 위한
풍·아·송(風·雅·頌)

2025. 6. 24. 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BMTMO SEASON 2025



KoN



바이올리니스트,
싱어송라이터, 탤런트,
뮤지컬배우, 작곡가, 화가,
모델, 음악감독



사운드
바일린

2025. 6. 20.(금) 19:30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Busan
is good
부산이 좋다

2025
Musical

수박 수영장

2025. 7. 5.(토) 11:00, 14: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제작  AM culture

티켓 R석 55,000원 S석 33,000원 예매 및 문의 www.bscc.or.kr 051-607-6000

Enjoy Your Time at LOTTE -Premium outlet DONG BUSAN



동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에 위치한
롯데프리미엄 아울렛 동부산점에서 구찌·버버리·몽클레르 등
약 500여개의 브랜드를 만날 수 있습니다.

폭넓은 쇼핑 경험을 통해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동부산점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겨보세요.

